

RR - 2019 - 00978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

A Survey on the Current State of University and College General Education

2019. 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한국교양기초교육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

A Survey on the Current State of University and College General Education

연구책임자 : 윤승준(단국대학교)
공동연구자 : 권준원(동아방송예술대학교)
김수연(인천재능대학교)
김지영(서강대학교)
주현재(삼육보건대학교)
최예정(호서대학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한국교양기초교육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이 연구는 2019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입니다. 본 연구에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견해를 밝힙니다.

『This work was funded by 2019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연구결과 요약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산업화 시대의 지식습득형 인재 양성에 최적화되어 있었던 한국의 대학 교육 시스템은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맞물리면서 대학의 지평을 새롭게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된 것은 그와 같은 변화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NCS 기반의 직업기초능력을 함양하는 데 집중하여 온 전문대학에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모든 직업과 직문에 토대가 되고 전이 가능성이 높은 역량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면서 폭넓은 교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에 따라 전국의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관련 현황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여, 대학 교양교육의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및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게 되었다. 특히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의 종료와 대학혁신지원사업 시행, 강사법 시행,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시안) 발표 등으로 요동치고 있는 2019년 한국 대학의 현실 속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인재 양성에 대비해야 하는 대학으로서는 과연 교양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전국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문헌 연구와 기초 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교양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하여 대학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대학 요람과 교양교육과정표를 수합하여 기초조사를 시행하였다.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문항은 대학 기본 정보, 교양교육의 목표,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내용,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 등 6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진은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현황 조사를 위한 설문지 초안에 대하여 1차적인 검토를 받았으며, 한국교양기초교육원과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의 2차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총 198개 일반대학과 136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일반대학은 기초조사에 74개 대학, 설문조사에 87개 대학이 참여하였다. 이 중 45개 대학은 기

초조사와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198개 일반대학 중 이번 조사에 참여한 대학은 총 116개 대학(58.58%)이었다. 전문대학은 88개 대학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전체 136개 전문대학 가운데 64.7%의 참여율을 보였다.

설문에 참여한 일반대학 87개교의 분포를 약술하면, 설립 유형별로는 국립대학 21개교(24.14%), 사립대학 66개교(75.86%)였으며, 소재지 권역별로는 서울 17개교(19.54%), 경기·인천 12개교(13.79%), 강원충청권 26개교(29.89%), 영남권 25개교(28.74%), 호남제주권 7개교(8.05%)였다. 대학 규모별로는 2천명 미만 16개교(18.39%),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 12개교(13.79%), 5천명 이상 1만 명 미만 34개교(39.08%),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 19개교(21.84%), 2만 명 이상 6개교(6.90%)였다.

전문대학은 설문에 참여한 88개교 가운데 국립대학이 1개교(1.13%), 공립대학이 4개교(4.55%), 사립대학이 83개교(94.32%)였으며, 권역별로는 서울 7개교(7.95%), 경기·인천 25개교(28.41%), 강원충청권 14개교(15.91%), 영남권 29개교(32.95%), 호남제주권 13개교(14.77%)였다. 대학 규모별로는 1천명 미만 15개교(17.05%),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29개교(32.95%), 3천명 이상 8천명 미만 43개교(48.86%), 8천명 이상 1개교(1.14%)였다.

II. 대학 교양교육의 현황

1. 일반대학의 교양교육 현황

1.1 교양교육의 목적/목표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일반대학은 96.5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대학의 교양교육 목표를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① 인격, 도덕, 리더십, ② 창의 융합, 미래사회, 문제 해결, ③ 봉사, 공동체, 민주시민, 국가, ④ 기본, 소통능력, 핵심역량, ⑤ 지성, 교양, 인문, 감수성, ⑥ 국제화, 다문화, ⑦ 진로, 직업, 전문성 등의 범주로 대별할 수 있었다. 특히 ① 인격, 인성, 인간성, ② 창의, 창의성, 창의적 인재, ③ 융합, 융복합, 통섭, ④ 국제화, 글로벌, 세계시민, 국제 경쟁력, ⑤ 기본기, 기본능력, 기초, 기초학업능력, ⑥ 지성, 지성인, 지식인, ⑦ 공동체, 공동체의식 등의 키워드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1.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내용

일반대학의 평균 졸업이수학점은 130.81학점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교양이 35.08학점, 전공이 68.92학점, 자유선택이 28.57학점으로, 교양 학점은 전체 졸업이수학점의 26.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양교육과정의 영역 편성에서 「교양기초교육표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초교육, 교양교육, 소양교육의 3개 영역 개념과 범주를 모두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는 대학은 18.9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개 영역 가운데 그 개념과 범주가 상대적으로 가

장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영역은 교양교육 영역이었으며, 가장 모호하게 운영되는 영역은 소양교육 영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양필수 교과목으로는 ① 외국어(27.84%), ② 의사소통(13.28%), ③ 인성 및 리더십(11.05%), ④ 역사·철학·종교(10.52%), ⑤ IT·컴퓨터·소프트웨어(8.5%), ⑥ 진로·취창업(6.27%) 등의 교과목이 보편적으로 개설되고 있었다.

교양 필수 선택의 경우에는 ① 문학·예술 영역(13.10%), ② 역사·철학·종교 영역(10.62%), ③ 외국어 영역(10.02%), ④ 수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환경 영역(10.02%), ⑤ 사회·문화·심리 영역(8.83%), ⑥ IT·컴퓨터·SW·공학·기술 영역(7.84%)을 보편적으로 편성하고 있었다.

한편 교양교육과정에 전공기초/전공예비 과목을 별도의 영역으로 편성한 대학이 53.33%에 이르렀으며, 이들 대학은 전공기초/전공예비 교육에 최소 평균 6.57학점에서 최대 평균 17.47학점까지 편성하고 있었다.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에 교양교육과정에 개설된 교양 교과목 수와 강좌 수를 조사한 결과, 2018학년도에는 평균 543.17개 교과목, 1,264.99개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2019학년도에는 평균 538.70개 교과목, 1,223.12개 강좌가 개설되었다. 또한 신규 개설 교양 교과목의 영역을 조사한 결과, 인문학(17.77%), 사회과학(17.52%),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15.95%), 기초교육(15.24%) 순이었다.

국제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 교과목은 한국어 의사소통(글쓰기, 사고와 표현, 의사소통 등) 교과목이 전체의 48.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한국문화 교과목이 10.00%로 그 뒤를 이어, 국제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교육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에 치우쳐 있었다.

일반대학에서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법 프로그램 외에 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글쓰기 프로그램,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 기초수학과학(BSM) 프로그램,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등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었는데, 국립대학에서는 글쓰기 프로그램을, 사립대학에서는 어학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하고 있었다.

1.3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비율은 2018학년도 평균 53.02%와 46.97%였으며, 2019학년도에는 평균 57.24%와 42.76%였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교양 교과목 담당 전임교원 비율은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에 각각 42.24%와 55.00%, 42.34%와 60.50%였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2018학년도에 비하여 2019학년도 교양 교과목 담당 전임교원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사립대학의 증가폭이 국립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전임교원 가운데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양 교과목 담당 비율은 2018학년도 평균 38.76%와 14.26%였으며, 2019학년도에는 41.91%와 15.33%였다. 국립대학의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양 교과목 담당 비율은 2018학년도 평균 36.86%와 5.38%였으며, 2019학년도에는 36.23%와 6.11%였다. 사립대학의 경우에

는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양 교과목 담당 비율이 2018학년도 평균 39.19%와 16.23%, 2019학년도 평균 43.23%와 17.48%였다.

반면 강사의 교양 교과목 담당 비율은 최근 2년 사이에 사립대학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4학기 동안 강사의 교양 교과목 담당 비율이 평균 49.05%로 0.5% 포인트 안팎의 미미한 증감을 보인 반면, 사립대학에서는 학기별 강사의 교양 교과목 담당 비율이 1학기 평균 30.06%에서 25.33%로, 2학기 평균 31.56%에서 26.16%로 각각 4.73% 포인트와 5.40% 포인트씩 감소하였다.

최근 2년 간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수를 비교한 결과,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강좌 수는 감소한 반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강좌 수는 증가하였다. 비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초빙, 겸임, 산학, 기타 등 강사를 제외한 비전임교원의 강좌 수는 대부분 증가하였으나, 강사의 강좌 수는 감소하였다.

2019학년도 2학기 기준 교양 교과목의 강좌 규모는,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가 30.71%, 21명에서 30명까지의 중소규형 강좌가 18.49%, 31명 이상 50명 미만의 중형 강좌가 32.85%, 51명 이상 100명 미만의 중대형 강좌가 15.47%, 101명 이상 200명 미만의 대형 강좌가 1.63%, 201명 이상의 대규모 강좌가 0.85%를 차지하였다.

교양 교과목의 강좌 규모는 대학의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2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에서는 21-30명의 중소형 강좌가 가장 많이 개설되었고,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의 중소규모 대학에서는 31-50명의 중형 강좌가 가장 많이 개설되었다. 또한 5천명 이상 1만 명 미만의 중규모 대학교에서는 1-20명의 소규모 강좌가 가장 많이 개설되었으며,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의 대규모 대학에서는 31-50명의 중형 강좌가 가장 많이 개설되었다.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에서는 51-100명의 중대형 강좌가 가장 많이 개설되었다.

교양 교과목의 온라인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 교과목을 설강하지 않는 대학이 27.59%였으며, 온라인 교과목을 설강한 대학 중에서도 온라인 교과목이 전체 교양 교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가 49.71%로 절반에 가까웠다.

1.4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개선 활동을 조사한 결과, 일반대학은 평균 6.16개의 개선 활동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개선 활동은 만족도 조사로 83.91%의 대학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교과목 개선을 위한 교강사 워크숍 및 간담회로 80.46%의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60% 이상의 대학이 수업평가(강의평가) 결과를 기초로 교수법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강의 제한 또는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었으며, 교과목 CQI 활동을 통한 교양교육의 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었다.

1.5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대학은 78개교로 전체 87개 응답대학 가운데 89.6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부서장은 교무위원급인 경우가 82.06%로 가장 많았고, 부처장(센터장)급인 경우가 12.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교육 전담조직 소속 전임교원은 평균 24.29명(46.83%)으로, 그 가운데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9.42명(18.16%), 비정년트랙이 14.87명(28.67%)이었다. 그리고 비전임교원이 평균 27.58명으로 53.17%를 차지하여 전체 교양교육 전담조직 교원 수의 절반이 넘는 이들이 비전임교원이었다. 교양교육 전담조직 소속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비율은 국립대학이 3.92%, 사립대학이 30.52%로 국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이 비정년트랙 교원을 10배 가까이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 구성 현황을 대학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2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58.14%)이었으며, 가장 낮은 것은 1만명 이상- 2만명 미만 규모의 대학(13.25%)이었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 가운데 비정년트랙 전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1만명 이상 2만명 미만의 대규모 대학으로 31.20%였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 구성에서 비전임교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2만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으로 67.99%였다.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국립대학은 공정성과 개방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면, 사립대학은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교양교육 전담조직 소속 교원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은 36개 대학으로 44.44%였으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경우는 20개 대학으로 29.5%를 차지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번 조사에 응한 사립대학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위원의 50% 이상을 교양교육 전담조직 소속 교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데 반하여,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경우는 24.07%에 머물렀다. 반면 국립대학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경우가 46.15%에 이른 반면, 교양교육 전담조직 소속 교원의 참여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은 35.29%였다. 이같은 사실은 국립대학이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추구하는 반면, 사립대학은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2.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현황

2.1 교양교육의 목적/목표

설문에 응답한 88개의 전문대학 가운데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대학은 71개교로 전체의 80.68%에 해당하였다.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목표를 내용적으로 분석한 결과, ① 창의, 융합, 미래사회, 문제해결, ② 인격, 도덕, 리더십, ③ 진로, 직업, 전문성, ④ 기초교육, 소통능력, ⑤ 봉사, 공동체, 민주시민, ⑥ 국제화, 다문화, ⑦ 지성, 교양, 인문, 감성의 범주로 대별할 수 있었다. 특히 ① 직업기초능력, NCS, 현장실무능력, 직무역량, ② 인격, 인성, 참사람, ③ 기본능력, 기본역량, 기초, 기초교육, ④ 창의,

창의성, 창조, ⑤ 전문, 전문성, 전문인, 전문직업인, ⑥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 세계시민, ⑦ 융합, 창의융합 융복합, 통섭, ⑧ 소통, 의사소통능력, 문해력 ⑨ 문제해결,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복합문제해결능력의 키워드가 자주 사용되었다.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목표에는 ‘직업기초능력, NCS, 현장실무능력, 직무역량’ 이 ‘인격, 인성, 참사람’ 과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어 교양교육에 대한 전문대학의 대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2.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내용

전문대학의 졸업 이수학점 체계를 분석한 결과, 졸업이수학점의 평균은 2년제 74.2학점, 3년제 111.2학점, 4년제 130.4학점이었다. 그 가운데 교양 학점은 2년제 8.00학점(10.8%), 3년제 14.89학점(13.4%), 4년제 20.84학점(16.0%)이었으며, 전공 학점은 2년제 56.00학점(75.4%), 3년제 83.30학점(74.9%), 4년제 92.62학점(71.0%)이었다. 전문대학 전체 졸업이수학점에서 교양 학점은 평균 13.8%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정에는 2018학년도 평균 74.82개 교과목 314.55개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2019학년도에는 평균 73.30개 교과목 287.16개 강좌가 개설되었다. 그리고 새롭게 개설된 교양 교과목은 2018학년도에 평균 17.0개, 2019학년도에 평균 18.29개였다. 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는 교수학습개발센터나 NCS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개설되고 있었으며,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 글쓰기 프로그램, 기초수학과학(BSM) 프로그램 등이 개설되고 있었다.

2.3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비율은 2018학년도 41.9%와 58.1%, 2019학년도 47.3%와 52.7%였다. 전임교원 가운데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2018학년도에 각각 33.1%와 8.8%를 차지하였으며, 2019학년도에는 각각 36.1%와 11.2%를 차지하였다.

전임교원의 교양 교과목 담당 비율은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에 각각 44.5%와 52.6%였으며, 비전임교원의 교양 교과목 담당 비율은 55.5%와 47.4%였다.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교양 교과목 담당 비율이 강사법 시행을 계기로 역전되었다.

강좌 규모면에서 볼 때, 전문대학의 교양 교과목은 31-50명 규모의 중형 강좌가 가장 보편적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21-30명 규모의 중소형 강좌가 뒤를 이었다. 20명 미만의 소규모 강좌도 2018학년도에 비하면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10% 이상의 교양 교과목은 20명 미만의 소규모 강좌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대학 교양 교과목의 강좌 규모에서 특이한 사항 가운데 하나는 2019학년도 1학기까지는 학기별로 16.3%에서 19.9%까지 개설되던 101명-200명 규모의 대규모 강좌가 2019학년도 2학기 들어서면서 3.0%로 대폭 감소하는 대신 5.0%에서 9.4%까지 개설되던 201명 이상의 대규모 강좌가 갑자기 24.2%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전문대학의 교양 교과목 가운데 온라인 교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교과목을 설강하지 않는 대학이 설문에 응답한 대학 가운데

데 51.43%였고, 온라인 교과목 비율이 0.1%~5.0%인 대학이 23.58%였다. 교양 교과목의 온라인 교과목 비율은 2019학년도 1학기를 전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4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

전문대학은 평균 4.09개의 교양교육과정 개선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만족도 조사였다. 만족도 조사는 설문에 응답한 88개 대학 가운데 67개 대학(76.14%)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교과목 개선을 위한 CQI 활동(61개 대학, 69.32%)을 그 다음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었고, 수업평가(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교수법 컨설팅, 강의 제한, 교과목 개폐 등)가 그 뒤를 이었다.

2.5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

전문대학 가운데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대학은 88개교 가운데 51개교로서 응답대학의 59.30%가 교양교육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부서장은 교무위원급인 경우가 30%로 가장 많았고, 부처장(센터장)급인 경우도 64%나 되었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 소속 교원(정년 전임, 비정년 전임, 비전임)의 수는 평균 6.74명이었으며, 직원(정규직, 계약직) 수는 1.78명이었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 구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평균 2.04명(30.27%),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1.2명(17.8%), 비전임교원이 3.5명(51.92%)으로, 전체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과반수 이상이 비전임교원이었다. 교양교육과정위원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를 설치한 대학은 75개교로 89.29%의 대학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이 위원회 위원의 50%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대학은 43.24%였으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대학은 28.33%에 그쳤다.

Ⅲ.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현황 비교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을 비교한 결과, 전체 졸업이수학점 대비 교양 학점의 비율이 일반대학은 26.82%, 전문대학은 13.8%를 차지하여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에 비하여 교양 학점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에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 개설된 교양 교과목 수와 강좌 수를 비교하면, 일반대학은 2018학년도에 평균 543.17개 교과목, 1,264.99개 강좌, 2019학년도에 평균 538.70개 교과목, 1,223.12개 강좌를 개설한 반면, 전문대학은 2018학년도에 평균 74.82개 교과목, 314.55개 강좌, 2019학년도에 평균 73.30개 교과목, 287.16개 강좌를 개설하였다.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에 신규로 개설한 교양 교과목 수를 비교하면, 일반대학은 2018학년도에 평균 26.96개 교과목, 2019학년도에 평균 23.95개 교과목을 신규로 개설하였으며, 전문대학은 2018학년도에 평균 17.00개 교과목, 2019학년도에 평균 18.29개 교과목을 신규로 개설하였다.

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설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면, 일반대학은 평균

19.1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한 반면, 전문대학은 평균 15.91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가장 많이 개설된 비교과 프로그램은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 모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법 관련 프로그램이었으며, 이 밖에 일반대학은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19.36%), 글쓰기 프로그램(14.57%),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8.94%)을 많이 개설하였고, 전문대학에서는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19.17%),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17.79%), 글쓰기 프로그램(11.50%)을 많이 개설하였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 현황을 비교해 보면, 일반대학은 전임 교원이 55.13%로 비전임교원 44.87%에 비해 높은 반면, 전문대학은 전임교원이 44.6%, 비전임교원이 55.48%로 비전임교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2018~2019학년도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비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대학은 전임교원이 59.13%, 비전임교원이 40.87%의 교양 강좌를 담당하여 전임교원의 교양 강좌 담당 비율이 높은 반면, 전문대학은 전임교원이 48.55%, 비전임교원이 51.45%의 교양 강좌를 담당하여 비전임교원의 교양 강좌 담당 비율이 높았다.

교양교육과정 규모별 강좌 비율을 비교해 보면, 1-20명 규모의 소규모 강좌가 일반대학은 30.71%를 차지하였으나 전문대학은 12.88%로 일반대학이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대로 대규모 강좌인 101-200명과 201명 이상 강좌는 일반대학이 각각 1.62%와 0.79%인 반면, 전문대학은 각각 14.10%와 11.23%를 나타내고 있어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에 비하여 대규모 강좌를 훨씬 많이 개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교과목이 전체 교양 교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검토한 결과, 온라인으로 교양 교과목을 단 한 과목도 개설하지 않은 대학의 비율이 일반대학은 27.59%, 전문대학은 5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 교과목의 비율이 20.1% 이상인 대학은 일반대학(1.44%)에 비해 전문대학(4.83%)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교과목 비율은 그 변화가 미미하나,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019학년도 전후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IV. 대학 교양교육의 문제점

1. 일반대학 교양교육의 문제점

1.1 교양교육의 목적/목표

일반대학은 대부분의 대학이 교양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양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간혹 교양교육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인식이 교양교육의 목표 설정에 반영된 경우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교양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좀 더 명확하고 정교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1.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내용

일반대학의 교양교육과정 편성과 내용의 문제점으로는 ① 졸업이수학점 대비 교양 학점 문제, ② 계열별 교양 이수학점의 편차와 이수 교과목의 문제, ③ 교양필수 교과목의 편향성 문제, ④ 전공기초/전공예비 교과목의 문제, ⑤ 교양 교과목 및 강좌 수의 축소 문제, ⑥ 국제학생 대상 교양 교과목의 편향성 문제, ⑦ 교양교육과정의 영역 편성 문제 등 7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교양교육과정은 대학 교양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았다.

1.3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일반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문제로는 ①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문제와 ② 강좌 수와 강좌 규모의 문제 2가지를 제기하였다. 강사법 시행에 따라 교양 교과목의 전임교원 담당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교양교육을 본업으로 하는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전임교원은 그 가운데 1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대학 전체의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가운데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일반 학과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처럼 빈약한 기반이 곧 우리나라 대학 교양교육의 현실이자 문제이다. 업чин 데 겹친 격으로 강사법 시행과 함께 교양 교과목 수와 강좌 수가 줄어들면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나 강좌 규모 등 교양교육의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1.4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

일반대학은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만족도 조사나 교강사 워크숍, 강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교수법 컨설팅이나 인센티브 지원, 교과목 개선을 위한 CQI 활동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수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교과목 개폐와 같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질 관리 활동과 외부기관 또는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과 같이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질 관리에는 소극적임을 지적하였다. 이같은 경향은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가 실질적이면서도 자발적인 개선 노력으로 이루어지기보다 각종 대학 평가를 대비한 다분히 형식적인 차원으로 흐를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1.5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

일반대학의 교양교육 전담조직과 관련해서는 ①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설치 문제, ②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 문제, ③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문제 등 3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특히 국립대학과 소규모대학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전임교원 비율은 대학 전체 전임교원 비율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비율은 대학 전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비율에 약 4배 가까이 이르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비전임교원 역시 대학 전체 비율보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비전임교원 비율이 높음을 지적하였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문제는 이같은 교원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다.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 참여

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기관의 인사를 위원으로 모셔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2.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문제점

2.1 교양교육의 목적/목표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을 통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동시에 한 사람의 인간을 길러내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도 함께 가지고 있다.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목적/목표에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목적 내지 목표가 동시에 담겨 있다. 현재 전문대학은 교양교육의 본질을 지향하기보다 직업인 양성이라는 전문대학의 현실적 특성에 치우쳐 있으나, 고등직업인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교육의 총체적 완결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교양교육의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내용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① 졸업이수학점 대비 교양 학점의 문제와 ② 교양 교과목 다양성 확보의 문제, 2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전문대학의 졸업이수학점 대비 교양 학점은 평균 졸업이수학점의 13.8%(2년제 8학점, 3년제 14.9학점, 4년제 20.8학점)로, 일반대학의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양 학점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분야의 교양교육을 통해 인간과 세계, 자연에 대한 성찰과 이해를 심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다.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에 전문대학에서 개설한 교양 교과목은 평균 74.82개와 73.30개에 불과하였다. 이는 일반대학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학기별로 35개 내외의 교과목밖에 개설하지 않는 셈이다. 기초학문분야 전공 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전문대학 현실에서 교양 교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를 구실로 교양교육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①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문제와 ② 교양 교과목 이수방식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전문대학의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임교원이 48.55%, 비전임교원이 5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의 경우 전임교원이 59.13%, 비전임교원이 40.87%의 교양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전문대학의 교양 강좌는 상대적으로 비전임교원의 담당 비율이 높다. 전문대학의 교양 강좌가 비전임교원 의존율이 높은 이유는 전문대학의 학과 구성이 인문·사회 영역보다 공학, 보건 계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교양 강좌의 담당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달리 교양 교과목을 학과별로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수방식은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함에 따라 학습자의 자발적인

동기 유발에 원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이면에는 다양한 교양 교과목을 제공하기 어려운 전문대학의 현실적인 한계, 충분한 교원 확보가 어려운 전문대학의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4.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

교양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하여 전문대학에서는 만족도 조사, 교과목 개선을 위한 CQI 활동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외부기관이나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 활동은 부족한 편이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과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 컨설팅을 확산할 필요가 있으며, 개선 활동의 질적 충실성, 개선의 성과 점검 등에 초점을 맞추어 교양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5.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전담조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①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설치 문제, ②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구성원 문제, ③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설치 및 위원 구성 문제 3가지를 제기하였다. 전문대학은 교양교육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있는 비율이 59.30%로 일반대학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설치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학점 배분, 교원의 확보,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이 설치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경우, 전담조직 소속 교원은 평균 6.74명이었으며 직원은 평균 1.78명이었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과 직원 모두 절대 인원이 부족하고, 비전임교원과 계약직 직원의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교양교육 전담조직에 인력이 충원되고 재정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인문학과 사회과학 등 기초학문분야 교원의 충원이 선결되어야 한다. 교양교육과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문대학도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기관의 인사를 위원으로 모셔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V. 대학 교양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대학 교양교육의 개선 방안을 ① 대학 교양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② 대학 교양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 제언 2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대학 교양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은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의 교양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이고, 둘째, 대학 교양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교양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중장기인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이다.

1. 대학 교양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

대학 교양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은 ① 교양교육의 인적 토대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② 교양교육의 물적 토대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③ 고등직업교육 교양교육 모델 개발 등 3가지를 제시하였다. 교양교육의 인적 토대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은 구체적으로 △ 교양교육 전담조직 소속 전임교원 확보율의 법제화, △ 전문대학 교양교육 전담 교원의 전임교원 확보율 인정을 제언하였다. 교양교육의 물적 토대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는 구체적으로 △ 교양교육 전담조직을 교육지원기구에서 교육기구로 전환할 것, △ 대학의 교양교육 예산 편성 원칙과 기준을 제정할 것, △ 대학 교양교육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할 것을 제언하였다. 고등직업교육 교양교육모델 개발은 전환기에 들어선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의 교육목적과 교육환경, 교육운영 등에 적합한 교양교육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2. 대학 교양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 제언

대학 교양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 제언은 ① 교양교육의 인적 토대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② 교양교육의 물적 토대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③ 고등교육 분야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등 3가지를 제시하였다. 교양교육의 인적 토대 구축을 위한 정책은 구체적으로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 비율의 제한, △ 전공 학과 폐과 교원에 대한 전공 전환 및 연수의 국고 지원, △ 전문대학 교양교육 담당 교원의 수급 방안 제도화를 제언하였다. 교양교육의 물적 토대 구축을 위한 정책은 구체적으로 △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예산 지원 확대, △ 교양교육연구소 지원 사업의 확대, △ 전문대학 교양교육 전담조직 개설 지원 강화, △ 전문대학 개별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평가, △ 교양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국가-지역사회-지역산업 거버넌스 구축, △ 고등직업교육 교양교육 2030 로드맵 구축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고등교육 분야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교양교육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목적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각 대학의 교양교육 개선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나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선행 연구의 검토	3
3. 연구 방법	11
II. 대학 교양교육의 현황	24
① 일반대학의 교양교육 현황	24
1. 교양교육의 목적/목표	24
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내용	28
3.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47
4.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	67
5.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	68
②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현황	78
1. 교양교육의 목적/목표	78
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내용	82
3.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88
4.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	92
5.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	94
III.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현황 비교	100

IV. 대학 교양교육의 문제점108

① 일반대학 교양교육의 문제점108

- 1. 교양교육의 목적/목표108
- 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내용110
- 3. 교양교육과정의 운영114
- 4.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116
- 5.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117

②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문제점119

- 1. 교양교육의 목적/목표119
- 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내용120
- 3. 교양교육과정의 운영121
- 4.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122
- 5. 교양교육 전담조직123

V. 대학 교양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제언125

① 대학 교양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125

- 1. 교양교육의 인적 토대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125
- 2. 교양교육의 물적 토대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128
- 3. 고등직업교육 교양교육모델 개발130

② 대학 교양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 제언134

- 1. 교양교육의 인적 토대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134
- 2. 교양교육의 물적 토대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136
- 3. 교양교육 분야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141

표 목 차

<표 I-01> 일반대학, 전문대학 주요 설문 문항	14
<표 I-02> 일반대학 설립 유형별 응답 현황	15
<표 I-03> 일반대학 특성별 응답 현황	16
<표 I-04> 일반대학 학교 소재지별 응답 현황	16
<표 I-05> 일반대학 규모별 응답 현황	17
<표 I-06> 일반대학 전체 교직원 현황	18
<표 I-07> 일반대학 설립 유형별 교직원 현황 비교	18
<표 I-08> 일반대학 규모별 교직원 현황 평균	19
<표 I-09> 전문대학 연구 참여 현황	20
<표 I-10> 전문대학 설립 유형별 응답 현황	21
<표 I-11> 전문대학 학교 소재지별 응답 현황	22
<표 I-12> 전문대학 규모별 응답 현황	22
<표 I-13> 전문대학 특성화 계열별 응답 현황	22
<표 II-01>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한 대학	24
<표 II-02> 설립 유형별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 설정 현황	24
<표 II-03> 교양교육의 목표 키워드 빈도	25
<표 II-04> 교양교육 목표의 키워드 대범주 분류	26
<표 II-05> 교양교육 목표 키워드 대범주와 소범주	27
<표 II-06> 일반대학의 졸업이수학점 체계 (단위: 학점)	28
<표 II-07> 졸업이수학점 체계에 대한 표준편차	29
<표 II-08> 계열별 교양 이수학점 체계별 평균 (단위: 학점)	30
<표 II-09> 계열별 교양 이수학점 체계 표준편차 (단위: 학점)	30
<표 II-10> 교양필수 교과목 구성 영역 수 (단위: 개)	31
<표 II-11> 교양필수 교과목 수 (단위: 개)	31
<표 II-12> 교양필수 교과목의 내용 영역 현황	31
<표 II-13> 신입생 세미나 유형의 교과목 개설 현황	32
<표 II-14> 대학별 신입생 세미나 유형 교과목의 과목명	32
<표 II-15> 일반대학 교양 필수 선택 교과목 개설 영역 현황	33
<표 II-16> 교양필수와 교양 필수 선택 교과목 개설 영역 현황 비교	34
<표 II-17> 대학별 전공기초/전공예비 교과목 편성 현황	35
<표 II-17> 대학별 전공기초/전공예비 교과목 편성 현황	35
<표 II-18> 대학별 전공기초/전공예비 교과목 학점 편성 현황	36
<표 II-20> 2018-2019학년도 개설 교양 교과목 수와 강좌 수 (평균)	37

<표 II-21> 2018-2019학년도 개설 교양 교과목 수와 강좌 수의 표준편차	37
<표 II-22> 대학 규모별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	37
<표 II-23> 설립 유형별 대학의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	38
<표 II-24> 지역별 대학의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 (평균)	39
<표 II-25> 2018-2019학년도 신규 개설 교양 교과목 총계와 평균	39
<표 II-26> 2018-2019학년도 신규 개설한 교양 교과목의 표준편차	39
<표 II-27> 2018-2019학년도 신규 개설 교양 교과목의 내용 영역 현황	39
<표 II-28> 2018-2019학년도 신규 개설 교양 교과목 빈도율	40
<표 II-29> 대학 규모별 신규 개설 교양 교과목 수 현황	40
<표 II-30> 대학 설립 유형별 신규 개설 교양 교과목 수 현황	41
<표 II-31> 지역별 신규 개설 교과목 수 현황	41
<표 II-32> 국제학생 대상 정규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에 대한 응답대학 명 (59개 대학)	41
<표 II-33> 학기별 국제학생 대상 개설 교양 교과목 수 현황	42
<표 II-34> 국제학생 대상 교양 교과목 유형	43
<표 II-35> 비교과 프로그램 현황	44
<표 II-36> 대학 설립 유형별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현황 (수)	44
<표 II-37> 권역별(2차)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현황	45
<표 II-38> 권역별(3차)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현황	45
<표 II-39> 교양교육과정 편성 시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반영 정도	46
<표 II-40> 교양교육과정 편성 시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의 영역별 반영 현 황	46
<표 II-41> 학기별 평균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명수)	47
<표 II-42> 학기별 평균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비율: %)	48
<표 II-43> 대학 규모별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명수)	49
<표 II-44> 설립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50
<표 II-45> 권역별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수)	51
<표 II-46>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52
<표 II-47> 학기별 평균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수	54
<표 II-48> 학기별 평균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비율	54
<표 II-49> 규모별 평균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수	56
<표 II-50> 설립 유형별 평균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수와 비율	57
<표 II-51> 권역별 평균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수	58
<표 II-52> 학기별 교양교육과정의 강좌 규모	59
<표 II-53> 학기별 교양교육과정 규모 별 강좌 비율	59
<표 II-54> 학교 규모별 교양교육과정 강좌 규모 (수, 비율)	61
<표 II-55> 설립 유형별 교양교육과정 강좌 규모(수, 비율)	64

<표 II-56> 권역별(2차) 교양교육과정 강좌 규모(수, 비율)	65
<표 II-57> 지역별 교양교육과정 강좌 규모별 강좌의 수	66
<표 II-58> 온라인 교과목 운영 현황	66
<표 II-59>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질 관리 활동	67
<표 II-60> 교양교육 담당하는 전담조직 설치 현황	69
<표 II-61>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 (설립 유형별)	69
<표 II-62> 규모별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	69
<표 II-63> 권역별(2차)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	70
<표 II-64>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직원 구성 현황	70
<표 II-65> 설립 유형별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 구성 현황(수, 비율)	70
<표 II-66> 설립 유형별 교양교육 전담조직 직원 구성 현황(수, 비율)	71
<표 II-67> 대학 규모별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 구성(수, 비율)	71
<표 II-68> 권역별(2차)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직원 수	72
<표 II-69> 교양교육 전담조직 부서장의 위상	72
<표 II-70> 설립 유형별 교양교육 전담조직 부서장의 위상	73
<표 II-71> 규모별 교양교육 전담조직 부서장의 위상	73
<표 II-72>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설치 현황	74
<표 II-73> 설립 유형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설치 현황	74
<표 II-74> 대학 규모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설치 현황	74
<표 II-75> 권역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설치 현황	74
<표 II-76>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75
<표 II-77>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현황	75
<표 II-78> 설립 유형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위원 소속 교원 구성 현황	75
<표 II-79> 설립 유형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현황	76
<표 II-80> 대학 규모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76
<표 II-81> 권역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76
<표 II-82> 대학 규모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현황	77
<표 II-83> 권역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현황	77
<표 II-84> 연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개최 횟수	77
<표 II-85>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목표 설정 현황	78
<표 II-86> [전문대학] 설립 유형별 교양교육의 목표 설정 현황	78
<표 II-87> [전문대학] 규모별 교양교육의 목표 설정 현황	78
<표 II-88> [전문대학] 권역별 교양교육의 목표 설정 현황	79
<표 II-89> [전문대학] 교양교육 목표 키워드 빈도	80
<표 II-90> [전문대학] 교양교육 목표의 범주와 빈도	81
<표 II-91> [전문대학] 졸업이수학점 체계(2019학년도)	82
<표 II-92> [전문대학] 교양필수 교과목 개설 현황(2019학년도)	83

<표 II-93> [전문대학] 교양필수 교과목 표준편차(2019학년도)	83
<표 II-94> [전문대학] 권역별 교양필수 교과목 현황(2019학년도)	84
<표 II-95> [전문대학]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2018~2019학년도)	84
<표 II-96> [전문대학] 권역별 교양 교과목 개설과목 수(2018~2019학년도)	85
<표 II-97> [전문대학] 권역별 교양교과목 개설강좌 수(2018~2019학년도)	85
<표 II-98> [전문대학] 신규 개설 교양 교과목 수(2018~2019학년도)	86
<표 II-99> [전문대학] 권역별 신규 개설 교양 교과목 수(2018~2019학년도)	86
<표 II-100> [전문대학] 유형별 비교과 프로그램 수(2019학년도)	86
<표 II-101> [전문대학]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수 최대값(2019학년도)	87
<표 II-102> [전문대학] 권역별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수(2019학년도)	87
<표 II-103> [전문대학] 학기별 평균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현황(2018~2019학년도)	88
<표 II-104> [전문대학] 학기별 평균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비율(2018~2019학년도)	88
<표 II-105> [전문대학] 학기별 평균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수(2018~2019학년도)	89
<표 II-106> [전문대학] 학기별 평균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비율(2018~2019학년도)	90
<표 II-107> [전문대학] 학기별 교양교육과정 규모 별 강좌 수(2018~2019학년도)	91
<표 II-108> [전문대학] 학기별 교양교육과정 규모 별 강좌 비율(2018~2019학년도)	91
<표 II-109> [전문대학] 학기별 온라인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2018~2019학년도)	92
<표 II-110>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개선 활동 현황	93
<표 II-111> [전문대학] 교양교육 담당하는 전담조직 설치 현황	94
<표 II-112> [전문대학] 설립 유형별 교양교육 전담조직 설치 현황	94
<표 II-113> [전문대학] 규모별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	94
<표 II-114> [전문대학] 권역별 교양교육 전담조직 설치 현황	95
<표 II-115> [전문대학] 교양교육 관련 주요 의사결정 조직 현황	95
<표 II-116> [전문대학]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직원 현황	96
<표 II-117> [전문대학] 교양교육 전담조직 교원의 직군별 비율	96
<표 II-118> [전문대학] 교양교육 전담조직 직원의 직군별 비율	96
<표 II-119> [전문대학] 교양교육 전담조직 부서장의 위상	96
<표 II-120> [전문대학] 설립 유형별 교양교육 전담조직 부서장의 위상	97
<표 II-121> [전문대학] 규모별 교양교육 전담조직 부서장의 위상	97
<표 II-122>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설치 현황	97
<표 II-123> [전문대학] 설립 유형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설치 현황	98
<표 II-124> [전문대학] 규모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설치 현황	98
<표 II-125> [전문대학] 권역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설치 현황	98

<표 II-126>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위원회 구성 현황(1)	98
<표 II-127>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위원회 구성 현황(2)	99
<표 III-01>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현황(2019학년도)	104
<표 IV-01> 교양교육의 목표 키워드	109
<표 IV-02> 교양필수 교과목 영역과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의 상관관계	112
<표 IV-03> 학기별 평균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현황(인원수: 명)	114
<표 IV-04> 학기별 평균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비율(%)	114
<표 IV-05> 대학 전체 교원과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비율(2019-2학기 기준)	115
<표 V-06>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 현황(2019년 2학기 기준)	118
<표 IV-07> 전문대학 교양교육 목표의 키워드 범주 분류	120
<표 IV-08>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평균 교원 및 직원 수	124
<표 V-01> 전국 각 대학 부설 교양교육연구소 현황	137
<표 V-02> 학제별 교육 기본 여건 비교	139

그 림 목 차

[그림 I -01] 한국교양기초교육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	12
[그림 I -02]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페이지 화면	12
[그림 I -03] 일반대학 학교 소재지별 응답 현황	17
[그림 I -04] 일반대학 규모별 교직원 현황 평균	20
[그림 I -05] 일반대학 학교 소재지별 응답 현황	21
[그림 II -01] 일반대학의 졸업이수학점 체계 (단위: 학점)	29
[그림 II -02] 교양필수 교과목 내용 분포	32
[그림 II -03] 일반대학 교양 필수 선택 교과목 개설 영역 현황	34
[그림 II -04] 교양필수와 교양 필수 선택 교과목 개설 영역 현황 비교	35
[그림 II -05] 계열별 전공기초/전공예비 교과목 학점 편성 현황	36
[그림 II -06] 대학 규모별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	38
[그림 II -07] 대학별 국제학생 대상 교양 교과목 개설 강좌 수 분포도	42
[그림 II -08] 비교과 프로그램 현황	44
[그림 II -09] 학기별 평균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48
[그림 II -10] 권역별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53
[그림 II -11] 학기별 평균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56
[그림 II -12] 학기별 교양교육과정 규모 별 강좌	60
[그림 II -13] 학기별 교양교육과정 규모 별 강좌	64
[그림 II -14]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질 관리 활동	68
[그림 II -15] [전문대학] 졸업이수학점 체계(2019학년도)	82
[그림 II -16] [전문대학]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2018~2019학년도)	85
[그림 II -17] [전문대학] 유형별 비교과 프로그램 수(2019학년도)	87
[그림 II -18] [전문대학] 학기별 평균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현황(2018~2019학년도)	89
[그림 II -19] [전문대학] 학기별 평균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비율(2018~2019학년도)	90
[그림 II -20] [전문대학] 학기별 교양교육과정 규모 별 강좌 비율	91
[그림 II -21]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개선 활동	93
[그림 III -01]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졸업이수학점 체계(2019학년도)	100
[그림 III -02]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전공 학점과 교양 학점 비율(2019학년도)	101
[그림 III -03]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양 교과목 수(2018~2019학년도)	102
[그림 III -04]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양 강좌 수(2018~2019학년도)	102

[그림 Ⅲ-05]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신규 교양 교과목 수(2018~2019학년도)	103
[그림 Ⅲ-06]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현황(2019학년도)	104
[그림 Ⅲ-07]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 현황(2018~2019학년도) ·	105
[그림 Ⅲ-08]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원 유형별 교양 강좌 담당 비율(2018~2019학년도)	105
[그림 Ⅲ-09]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양 교과목 강좌 규모 현황(2018~2019학년도) ·	106
[그림 Ⅲ-10]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온라인 교양 교과목 현황(2018~2019학년도)	107

부 록

<부록 1> 일반대학 자료제출 현황표	146
<부록 2> 대학 교양교육 현황조사 설문지 양식(일반대학)	149
<부록 3> 대학 교양교육 현황조사 설문지 양식(전문대학)	157
<부록 4> 대학 교양교육 현황조사 설문 참여 대학 명단	165
<부록 5> 대학 요람 제출 대학 명단	170
<부록 6> 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 회원교 명단	173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역사는 짧게는 70년, 길게는 근 100년을 헤아린다. 해방 후 미군정기 대학의 교육과정에 필수교양과목이 도입된 것을 한국 대학 교양교육의 출발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¹⁾ 1924년 경성제국대학의 설립과 함께 설치된 경성제국대학 예과를 한국 대학 교양교육의 효시로 보기도 한다.²⁾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³⁾ 한국 대학 교양교육의 역사는 ‘제1기(1946~1954): 교양교육의 형성’, ‘제2기(1955~1972): 교양교육의 정착’, ‘제3기(1973~1994): 교양교육의 실험’, ‘제4기(1995~2009): 학부제와 교양교육의 자율화’, ‘제5기(2010~현재): 교양교육의 재구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1기(1946~1954)는 광복 후 「교육법」, 「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한국의 교육제도를 새롭게 만든 시기이다. 대학 교육과정 안에 일반교양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교양교육이 전공교과, 선택교과와 함께 대학 교육의 삼원체제 가운데 하나로 자리하게 하였다. 이렇게 출발한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제2기(1955~1972)로 들어 졸업학점 대비 교양학점의 비율이 높아지고 ‘교양학부’나 ‘교양과정부’와 같은 교양교육 전담기관이 설치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제3기(1973~1994)는 실험대학으로의 전환과 함께 대학 교육의 내실을 기하던 시기로, 졸업학점의 축소, 계열별 모집, 부전공·복수전공 등이 허용되었다. 이 시기 교양교육과정은 국책교양과 일반교양과목, 기초전공과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각 대학의 교양교육 전담기구들이 폐지되고, 졸업정원제 시행에 따른 대학 정원의 급증으로 인하여 교양교육을 내실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학부제 도입 및 대학 자율화 정책과 함께 시작된 제4기(1995~2009)에는 대학 자율화 정책에 따라 교양 과목에 대한 학점 배정 기준이 폐지되면서 교양교육은 위축되었다. 그러면서도 학부제의 시행과 함께 대학 1학년 교육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 시기는 ‘학부대학’·‘기초교육원’을 비롯한 교양교육 전담기구가 신설되고, 한국교양교육학회가 출범하는 등 담보상태에 머물던 교양교육의 재건을 위하여 다각적

1) 이성호, 「대학의 교육과정과 수업」, 『한국고등교육개혁의 과제와 전망』, 양서원, 1993. ; 정혜령, 「해방 이후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변화 경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양교육 60년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 손동현, 「대학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2.

2) 이상임 외, 「대학교양기초교육백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7.

3) 윤승준·홍석민·홍성기,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역사, 문제점, 그리고 재구성 노력」, 『21세기 동아시아 교양교육의 미래』,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9.10.25.~26.

인 모색을 추진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후 제5기(2010~현재)를 맞아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출범, 교양교육 표준안 제정,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ACE) 사업의 전개, 국제교양포럼을 통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등 역동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기에 서게 되었다.

대학 교육의 목적이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자유인과 시민으로서의 일반적인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음을 상기하면, 교양교육은 전공교육과 함께 대학 교육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학 교육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양교육은 그 의의를 인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매진해 온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교양교육이 그 중요성에 비하여 의의를 인정받지 못해 왔으며, 그에 따라 교육의 기반 또한 약화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2016년 WEF 보고서 『직업의 미래』 *The Future of Jobs*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기술적·사회적·분석적 기술을 두루 갖춘 노동자들에게 어울리는 새로운 직업이나 업무들, 즉 다양한 역량을 두루 갖추어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들에게 어울리는 일자리가 생겨날 터인데, 현재의 교육은 20세기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여 미래 사회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을 여전히 사일로 속에 가두어두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18년 11월에 개최된 2018 국제교양포럼에서 St. John's College의 Panayiotis Kanelos 총장은,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에 25경(2.5 quintillion) byte의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그 속에는 잘못된 정보도 있고 가짜뉴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같은 현실에서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기르는 일, 수많은 정보더미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걸러내고 정제하여 합리적인 판단에 이르게 하는 힘을 기르는 일” 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산업화 시대의 지식습득형 인재 양성에 최적화되어 있는 현재의 한국 교육 시스템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난 10여 년 간 지속되어 온 학부교육선도대학지원사업 및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과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개별대학 교양 컨설팅을 비롯한 다각적 노력을 통해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대학 교육에서 교양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어 왔으나, 정부재정지원사업이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학의 교양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평생고등직업교육을 지향하는 전문대학 교육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직무 중심의 전공교육을 넘어 폭넓은 교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직업과 직무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에 특정 직무 및 기술에 국한된 역

량이 아닌 모든 직업과 직무에 토대가 되고 전이 가능성이 높은 역량에 대한 요구를 전문대학도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⁴⁾

70%에 이르는 고등교육 이수율에도 불구하고 세계 대학 경쟁력 및 국가 경쟁력은 하락하고 있어 대학 교육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⁵⁾ 국가 수준에서 대학 교육의 질, 교양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실태조사 자료가 필요하나, 일반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종합적 실태 조사는 2014년 이후 이루어진 바 없으며, 전문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는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진 바 없다.

이에 전국의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관련 현황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여, 교양교육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및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전국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 연구의 검토

대학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선행 연구는 크게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일반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2011년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발족하면서 전국 각 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진 현황 조사 이후에는 아직까지 일반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최근 몇몇 연구자들에 의하여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2002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문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현황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

4)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들이 전공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뛰어난 인재를 원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기업은 그들이 조직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 역량도 갖춘 것을 요구하고 있다. NCS와 같은 국가 단위의 직무 능력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 시행된 대학 교육에 대한 기업 수요 및 만족도 조사에서 인성, 책임감, 도덕성, 조직 의식, 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등장해왔다. 특히 기업들은 전공 지식이나 실무 경험에 앞서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추는 것이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나아가 2014년 NCS 기반 교육과정을 기초로 교양교육과정이 정리된 이후에 시행된 조사에서도 소통, 창의, 문제해결 등을 중심으로 대학 교육을 통해 강화되어야 할 직무수행 핵심역량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펼쳐질 새로운 경제사회적 환경에서는 이와 같은 토대 역량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경 외, 「학부 교양교육 강화를 위한 국가수준 지원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자문조사 2009-11. 2010. ; 원만희 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산업계 수요 조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7. ; 김수연,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황과 인식 연구」, 『변화의 시대, 지속가능한 교양교육(II)』,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019.

5)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11년 22위에서 2018년 27위로 하락하였으며, 대학 경쟁력은 2011년 39위에서 2018년 49위로 추락하였다.

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대학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2.1. 일반대학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선행 연구

우리나라 4년제 일반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 연구는 강창동, 손동현, 박주호, 유기웅, 이상임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바 있다. 강창동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대학 교양교육은 주로 미국의 일반교양교육(general education)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1954년 이후 졸업학점의 약 30%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각 대학들은 교양교육보다 전공교육에 더욱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⁶⁾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각각 10개교씩을 선정하여 교양교육의 목적, 교양교육의 요구학점 비율, 교양교육의 이수구분과 교과목 개설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양교육의 목적에서는 우선 지식과 사고 영역에서는 통합적 지식을, 가치와 태도 영역에서는 도덕성을, 그리고 사회와 세계 영역에서는 세계화를 가장 강조하고 있으며, 졸업요구학점 대비 교양학점 이수 비율에서는 국립대학이 평균 25.0%, 사립대학이 평균 26.5%로 나타났고,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의 경우에는 국립과 사립에 관계없이 대규모 대학들은 300과목 이상을, 소규모 대학들도 약 200과목을 개설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으나,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골고루 표집하여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한 첫 번째 성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 연구는 손동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⁷⁾ 이 연구는 교양기초교육의 정체성과 당위성을 검토하고,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고찰하였으며, 198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전국 41개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양교육에 대한 교수·학생·직장인의 인식을 조사하고, 바람직한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양교육의 내용과 교육과정, 교육구조, 교육행정, 교육지원 등 5가지 측면에서 개선안을 제언하였다. 먼저 교양교육 내용과 관련해서는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능력의 함양, 기초지식의 습득으로 이루어지는 기초교육 강화와 함께 균형 잡힌 기초학문분야 학업을 통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융·복합적 통찰력을 기를 수 있도록 심화된 교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기초교육은 저학년에서 실시하지만 교양교육은 전공학업과 더불어 전 학년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양기초교육의 총량이 전체 학업의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교육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기초학문분야의 학업이 토대가 되고 그 위에 직업지향적 응용학문분야의 학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고, 교육행정과 관련해서는 교양기초교육을 주관하는 독자적 기관을 설치하고, 그에 전속되는 전임교수

6) 강창동, 「한국의 대학 교양교육의 현황과 특징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8-2, 안암교육학회, 2012.

7) 손동현, 「대학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2.

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교육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국 대학의 교양기초교육 선진화를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주호는 교양기초교육의 영역 및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전국 각 대학의 교양 교과목 편성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⁸⁾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은 교양기초교육의 영역 분류 및 각 영역별 교과목 편성에서 영역별 균형을 유지하고 보편적인 모습으로 교양교과를 편성하기보다 각자 독자적인 교육목적과 이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차별적이게 편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취업률이 높은 대학일수록 기초교과 비중이 높고 심화교양교육 편성 비중이 낮으며, 지방 소재 대학보다 수도권 소재 대학일수록 심화교양교육 영역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교양인 양성을 위해서는 전문지식 중심의 전공이나 실무직업 중심의 교양교육 구조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유기웅은 손동현과 박주호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전국 67개 4년제 대학(국립대 16개교, 사립대 50개교, 공립대 1개교)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의 목적, 교양교육의 구조와 내용, 교양교육의 방법, 교양교육의 운영 등 교양교육 현황과 실태를 조사 보고하였다.⁹⁾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은 교양교육의 목적을 인성/인간성 함양, 국제화/세계화에 따른 국제 경쟁력 함양 및 세계시민 양성, 기본기/기초능력/기초지식 강화, 창의성 함양, 지식인/지성인 양성, 교양인/문화시민 양성, 봉사정신 함양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개설 교과목의 비율을 검토한 결과 전공 영역이 69.3%, 교양 영역이 18.69%, 기타 영역이 4.5%로 나타나 전공에 치우쳐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교양교육의 전임교원 담당 비율은 사립대학에 비하여 국공립대학이 낮으며, 대학의 규모가 커질수록 전임교원의 교양교육 담당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우선 교양교육의 총량 확대를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 밖에도 교양교과목 분류 체계의 기준 명료화, 온라인 교양교육 실태 점검 및 효과성 검토, 교양교육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효과성 검증, 신규 교양교과목 개발 및 연구 지원,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교양기초교육 내실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상임은 2015년 중앙일보 평가 1~10위 대학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의 제반 현황을 세밀하게 조사 보고한 백서를 작성하여 보고함으로써 교양교육 개선의 참고자료를 제공하였다.¹⁰⁾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10개 대학은 각 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건학이념과 교훈에 입각하여 교양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었으며, 각 대학마다 설정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었으며, 개인-사회-공동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역량을 키우고 전인적인 인격과 지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기초적인 교양과목으로 글쓰기와 영어가 필수였으며,

8) 박주호, 「대학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연구(II)」,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3.

9) 유기웅, 「우리나라 4년제 대학 교양교육 현황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4.

10) 이상임, 「대학교양기초교육 백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7.

학문의 기초가 되는 입문 성격의 교양 교과목을 세부영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수업 운영 방식으로는 대부분 오프라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융복합 프로그램의 주제는 기술, 인간, 예술, 문화, 경제 영역의 빈도가 높았다. 비교과 프로그램으로는 사회봉사, 교양축제, 문화/문학/예술 행사, 학술적인 세미나 및 특강이 많았고, 학습클리닉을 비롯하여 취업이나 창업 캠프, 체험 및 설명회도 다수였다. 대학마다 기초교양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좀 더 특성화, 내실화, 전문화된 기초교양교과목을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2.2.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선행 연구

전문대학은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전문대학에서는 현장실무능력이나 직업윤리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전공별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하여 예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전문대학에서 교양 교과목을 법정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하게 한 것은 1970년 2월 26일 「교육법시행령」 개정에서부터였다.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교련, 음악, 미술, 외국어, 가정 등 10개 국책과목을 지정·이수하게 하였다. 그 뒤 1971년 3월에는 국민윤리 과목이 법정 필수과목으로 추가되었고, 1972년 7월에는 한문이 법정 필수과목으로 추가되었으며, 다시 1973년 7월에는 국사가 법정 필수과목으로 추가되어 13개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했다. 그 후 1978년 9월 13일 「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문대학도 4년제 일반대학처럼 국민윤리, 한국사, 교련, 체육 등 4개 국책과목만 필수로 가르치고, 학점은 전체 교과목의 20%가 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교양교과와 전공교과 모두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하였다. 1989년 2월 28일에는 대학자율화 계획의 일환으로 4개 국책과목이 폐지되었다. 교양 학점도 전체 학점의 20~3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993년 2월 24일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문대학 교양교과의 개념을 ‘직업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일반적 과목’ 이라고 정의하였고, 이후 1998년 3월 1일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시 전문대학의 교과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게 되면서 교양교육과정은 대학이 완전 자율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교양교육에 대한 자율화 정책은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위축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들어 고등직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산업계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것을 요구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은 NCS 직업기초능력 기반의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은 NCS 직업기초능력을 기반으로 편성된 역량 중심의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급속한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급변하는 사회와 고등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 그리고 전문대학 역시 고등교육기관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혁신은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2002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바 있으나, 이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남성희, 주현재, 권준원 등 몇몇 개인 연구자들에 의하여 단편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을 뿐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002년 전국의 전문대학 159개교를 대상으로 교양교육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를 강경중·이건남이 분석 보고한 바 있는데,¹¹⁾ 그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교양 교과목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분반 규모가 크고 시간강사 의존도가 높으며 단순히 학점을 채우기 위한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남성희는 45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교양과목의 학점 배분 현황, 교양 과목의 영역별 구성,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 현황의 추이를 분석하면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급변하는 사회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하여 전공 교육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 왔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그 원인을 교양교육을 직업교육이나 전공교육과 대비되는 교육으로 이해하거나 전문직업교육을 보조하는 수단적 교육으로 이해해 온 탓이라고 하였다.¹²⁾ 이 연구에서는 전문직업교육과 교양교육이 서로 상반된 교육이라는 인식을 벗어나고 전문성과 인간적 삶을 통합하는 실천 중심의 교양교육을 시행하여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내용영역을 「삶과 직업의 통합적 이해」, 「세계화와 전통문화의 이해」, 「생태환경과 과학기술의 상보적 이해」, 「기술·정보 지식의 종합적 사고」, 「심미적 감수성과 문화적 창조성」 등 5개 영역으로 구성하고 학습자의 실천적 활동과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현재는 교양교육 전담기구 설치 현황, 교양학점 이수기준과 교양교육과정 편성 현황, 교양교육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 등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 보고하였다.¹³⁾ 조사대상 40개 전문대학 가운데 교양교육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15개에 불과하였고, 교양 이수학점 기준을 학칙에 명시하지 않은 대학도 7개나 있었으며, 대부분의 전문대학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교양교육과정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문제점으로 첫째 각 대학마다 교양학점 이수조건이 각기 다르고 편차가 크다는 점, 둘째 대부분의 전문대학이 교양교육 전담기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점, 셋째 교양교육과정이 일반대학에 비하여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교양교육 체계화를 위해서는 교양교육의 목표 확립, 다양한 교양 교과목 개발, 교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개선, 교양 담당 전임 교원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1) 강경중·이건남,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 개발 방안」, 『직업교육연구』 22, 한국직업교육학회, 2003.

12) 남성희,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3) 주현재,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발전방향」, 『교양교육연구』 7-4,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권준원은 138개 전문대학 가운데 WCC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양이수학점과 교양교육 전담기구 현황을 조사하여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열악한 현실을 보고하고, 교양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¹⁴⁾ 그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교양이수학점은 졸업이수학점의 10% 미만으로 일반대학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도 조사대상 17개 대학 중 7개에 불과하여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여건이 매우 미흡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이밖에도 문승한, 강경중·이건남, 전은실·이로미, 양영근·정원희, 최윤경, 최미숙, 조휘형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진 바 있다. 문승한은 일찍이 교양교육의 개념을 엘리트 교육, 대중적 교육, 자유교육, 일반적 교육, 인간성 교육, 전공기초교육, 공통적 사고교육 등으로 나누고, 외국의 전문대학과 같이 다양한 교양교육을 실시하여 준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교양과’ 또는 ‘교양과정부’와 같은 교양교육 전담기구를 합법화해야 하며,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자유교육과 공통적 사고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교양학점은 전체 교과학점의 20~30%가 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⁵⁾

한편 강경중·이건남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의회의 교양교육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대학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¹⁶⁾ 이들은 기존의 교양교육이 전문대학 학생들의 교양적인 자질을 함양하는데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과연 이 교양교육과정을 통하여 직업기초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교양교육의 성과를 전공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힘들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 결과 교양교육과정은 직업기초능력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담당 교수들이 교육과정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양교과목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이 오늘날과 같이 직업기초능력 교육으로 전환되게 된 것은 이러한 문제인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은실·이로미는 경인여자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정 개발 과정과 결과를 제시하였다.¹⁷⁾ 특히 교양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학교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교양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양영근·정원희는 산업현장과 교육훈련과정의 불일치, 교육훈련과 자격이 따로따로 노는 현실, 다양한 학습경험 인정 시스템의 미흡 등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

14) 권준원, 「전문대학 교양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변화의 시대, 지속가능한 교양교육(Ⅰ)』,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9.

15) 문승한,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의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1993.

16) 강경중·이건남,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 개발 방안」, 『직업교육연구』 22, 한국직업교육학회, 2003.

17) 전은실·이로미,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논문집』 11-1,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2010.

하여 등장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초하여 대림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과정 개편 방안과 교양 교과목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¹⁸⁾ 이들은 NCS 직업기초능력과 산업체의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교양교육과정 개편의 기본 방향을 인성 중심의 교과 운영, 문제해결 중심의 교과 운영, 기초과목의 교차 수강, 융복합 교과운영 등 4가지로 설정하고, NCS 직업기초능력 기반의 교양교육과정이 교양교육의 본질적 목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최윤경은 사례 연구를 통하여 교양 교과목을 통한 전문대학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향상 정도를 분석하였다.¹⁹⁾ 이 연구는 <현대사회와 인간>이라는 교양 교과목을 운영한 교수자 13명과 수강생 1,460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 등 직업기초능력의 향상 정도를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 학생들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양 교과목 및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최미숙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전공교육 및 NCS 중심의 전문대학 교육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원광보건전문대학 구성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6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결과를 기초로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²⁰⁾ 이 연구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다양한 학문분야 간 통합적 융합교육, 사회적 실천과 연계한 유기적 교육, 교양교육 내용의 다양화와 질적 제고를 위한 K-MOOC 활용 교육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전공교과와 교양교과를 연계한 통합 교육, 여러 분야의 학문을 융합하여 새로운 학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열린 사고를 가진 융복합 교양교육전담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둘째,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창의·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의 잠재력 향상은 물론 생활문화 전반에 대한 넓은 안목과 지견의 습득, 사회적 실천과 연결된 다양한 지식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유기적 교육이 되어야 하며, 셋째,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다양화와 질적 개선을 위하여 K-MOOC를 적극 활용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조희형은 김포대학 1학년 학생 및 졸업생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NCS 직업기초능력 교육과 교양교육, 취업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²¹⁾ 이 연구는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이 직업교육과 차별화되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청능력, 도표분석능력, 사고력, 자아인식능력, 예산관리능

18) 양영근·정원희, 「NCS 직업기초능력에 기반한 교양 교과목 개편방향 연구」, 『교양교육연구』 8-4,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 양영근·정원희, 「NCS 직업기초능력과 산업체 교양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양 교육과정 개편 연구」, 『교양교육연구』 9-2, 한국교양교육학회, 2015.

19) 최윤경, 「전문대학 교양 교육과정을 통한 NCS 직업기초능력 향상 방안」, 『교양교육연구』 11-3,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20) 최미숙,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개선 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11-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21) 조희형,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과 하위능력 간의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11-4,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 조희형,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과 취업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12-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8.

력, 협상능력, 정보처리능력, 기술이해능력, 경영이해능력, 근로윤리 등 직업기초능력에 영향을 주는 하위능력의 함양에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직업기초능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가 전문대학 교양교육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전문대학의 의사소통교육, 글쓰기 교육의 개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송명진은 전문대학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함과 아울러 글로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인성과 교양까지 겸비한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전문대학에서의 교양교육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주목하였다.²²⁾ 그러면서도 직업기초능력에서 요구하는 역량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국실용글쓰기 검정 제도와 연계된 교수법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전문대학 학생들의 경우 요약적 읽기 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반면 창의적 읽기 능력 및 글의 구성에 대한 기초적 이해, 즉 문서작성능력은 부족하다는 점을 분석적으로 밝혀낸 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서는 한국실용글쓰기 검정 제도와 연계된 교양국어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면 학생들의 학습 동기 제고 및 성취감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하경숙은 대림대학교의 교양교과목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의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전문대학 글쓰기 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²³⁾ 그에 따르면, 전문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은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주고 학생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습득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강의의 목적과 학습 방향의 재설정, 표준화된 강의를 위한 교재의 마련, 첨삭 지도를 위한 분반 인원의 축소, 검증된 우수 교수진의 확보 등이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대학 당국의 지원과 지속적 관심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은준은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진입과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실용 중심의 교과 외에도 자기 이해와 존중에 기반한 건강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보편적 교양교과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찰적 글쓰기가 그와 같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서 전문대 재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²⁴⁾ 이 연구는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에는 실무 위주의 교과목과 더불어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을 가능하게 하고 훌륭한 시민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게 하는 보편적 교양 교과목도 필요함을 입증한 실질적인 성과였다.

이밖에 교양교육 모델, 의사소통교육, 사고교육, 융합교육, 인성교육, SW교육, 과학교육, 교수학습 방법, 교육성과 평가, 개별대학 교양교육 개선 사례 등 교양교육 각 분야

22) 송명진, 「국어교육과 ‘한국실용글쓰기’ 검정제도 -전문대학의 읽기와 쓰기 교육을 중심으로-」, 『대학작문』 12, 한국리터러시학회, 2015.

23) 하경숙, 「대림대학교 교양교과목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의 현황과 발전방안」, 『대학작문』 10, 한국리터러시학회, 2015.

24) 김은준, 「성찰적 글쓰기가 전문대 재학생들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13-3,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별 연구 성과가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어 향후 교양교육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대학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인재에 대한 요구, 일자리 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대학 교육의 필요성, 대학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 등 대학이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 위중하며, 대외적으로는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는 외국의 우수한 대학들 사이에서 교육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 대학이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교양교육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전국의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관련 현황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여, 교양교육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및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게 되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대학 교양교육 현황 실태에 대한 조사와 분석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의 종료와 대학혁신지원사업 시행, 강사법 시행,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시안) 발표 등으로 요동치고 있는 2019년 한국 대학의 현실 속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인재 양성에 대비해야 하는 대학으로서는 과연 교양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난 5년여 간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져 왔는지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NCS 기반의 직업기초능력을 함양하는 데 집중하여 온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교양교육의 본질과 거리가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문대학 교양교육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기초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전국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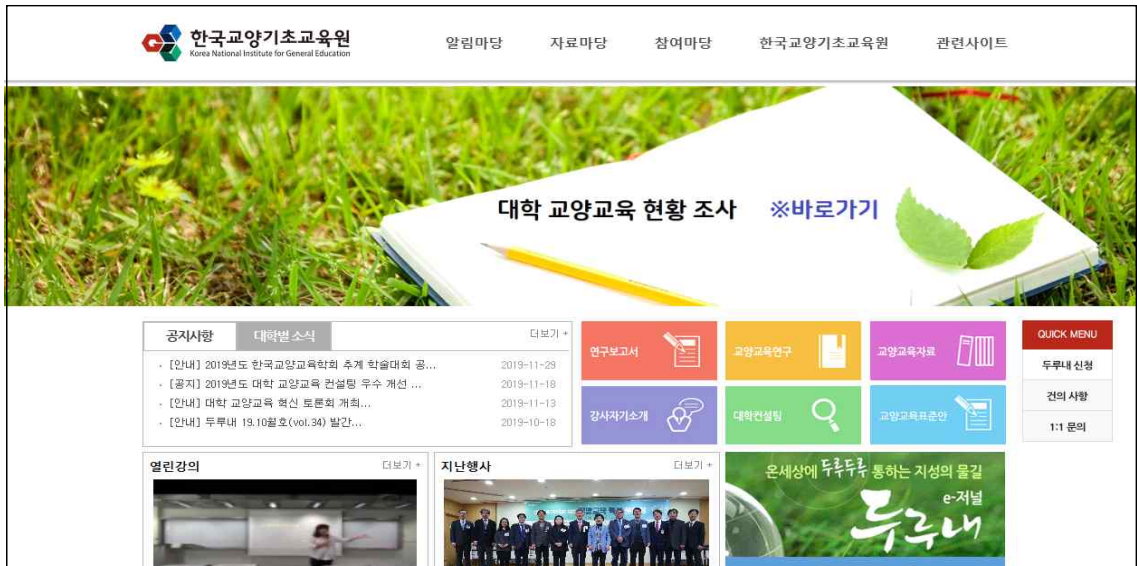
3. 연구 방법

3.1. 연구의 방법과 일정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기초 조사, 설문조사 및 그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하여 대학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대학 요람과 교양교육과정표를 수합하여 기초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조사에 앞서 문헌 연구와 기초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을 이해하고, 설문 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사전 작업을 수행하였다. 자문위원들에게 의뢰하여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에 대한 1차적인 검토를 받

았으며, 2차로 한국교양기초교육원과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를 통하여 자문을 받아 설문 문항을 다시 수정하였다.

온라인 설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한국교양기초교육원 홈페이지에 「대학교양교육 현황 조사」 페이지를 구축하고,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의 협조를 얻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를 위한 설문 작성 및 제출」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림 I -01] 한국교양기초교육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교양교육현황조사

담당자께서는 공지에 첨부된 엑셀파일을 받아서 작성하시고 업로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 일반대학 전문대학

번호	분류	제목	대학명	날짜
공지	일반대학_3장 수정본 등록		교양교육현황조사 연구팀	2019.12.04
공지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_전문대학_최종통계본		교양교육현황조사 연구팀	2019.12.04
공지	대학교양교육현황조사_일반대학 최종수정본		교양교육현황조사 연구팀	2019.12.03
공지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_일반대학 3장		교양교육현황조사 연구팀	2019.11.30
공지	전문대학 3장 통계파일		교양교육현황조사 연구팀	2019.11.30
공지	교양교육현황조사_전문대학2차분 및 전문대학 설문조사 대상파일 88개		교양교육현황조사 연구팀	2019.11.30
공지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_전문대학 1차분		교양교육현황조사 연구팀	2019.11.27
공지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일반대학 파일_4장수정, 3장별도구성파일 추가		교양교육현황조사 연구팀	2019.11.26
공지	일반대학수정_6장수정 및 4장통계 추가		교양교육현황조사 연구팀	2019.11.25
공지	현황통계파일 수정및 5장 추가 파일 8		교양교육현황조사 연구팀	2019.11.24
공지	대학교양교육현황조사_일반대학 통계 파일		교양교육현황조사 연구팀	2019.11.24
공지	일반대학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_수집파일,관리자용 및 질문사항 1		교양교육현황조사 연구팀	2019.11.11
공지	전문대학 전문대학_교양교육 현황조사		교양교육현황조사 연구팀	2019.09.16
공지	일반대학 일반대학 교양교육 현황조사		교양교육현황조사팀	2019.09.16
38	일반대학 [대전대학교]교양교육 현황조사		대전대학교	2019.10.14
37	일반대학 서강대학교_교양교육 현황 조사 자료 제출		서강대학교	2019.10.14
36	일반대학 (청주교육대학교) 일반대학 현황조사		청주교육대학교	2019.10.14

[그림 I -02]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페이지 화면

이렇게 수합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대학 교양교육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양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진행 일정을 간략히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문헌 연구

- 교양교육 현황에 관한 기존 연구 분석
- 문헌 분석: 관련 논문, 정책 보고서, 정부문서 등 분석
- 조사 기간: 5월 1일 ~ 10월 26일

□ 연구 일정

- 기초 조사
 - 요람 사전 취합
 - 1차: 7월 26일 ~ 8월 9일
 - 2차: 8월 26일 ~ 9월 6일
 - 설문 조사지
 - 작성: 6월 15일 ~ 7월 20일
 - 검토: 7월 20일 ~ 8월 3일
 - 확정: 8월 24일
- 중간 보고회: 9월 9일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홈페이지 게시판 제작: 9월 9일 ~ 9월 24일
- 설문 조사 진행
 - 일반대 1차: 9월 24일 ~ 10월 4일
2차: 9월 30일 ~ 10월 15일
최종 접수 마감: 11월 8일
 - 전문대 1차: 9월 24일 ~ 10월 4일
2차: 9월 30일 ~ 10월 15일
3차: 11월 7일 ~ 11월 15일
최종 접수 마감: 11월 26일
- 설문 조사 결과 분석: 11월 10일 ~ 11월 27일
- 자문 회의 진행
 - 1차: 7월 5일
 - 2차: 11월 30일
- 결과 보고회: 12월 12일
- 최종 보고서 제출 및 종료: 12월 27일

3.2.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획득하고, 대학 교양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방향 설정 및 정책 제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9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국의 일반대학 198개교 및 전문대학 136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의 협조를 얻어 전국의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교무처와 교양교육 담당기관 앞으로 교육부 명의의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성 및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설문에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설문지에 연구진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설문 응답 시 질의사항에 대한 응대를 전화 및 이 메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현황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은 대학 기본정보, 교양교육의 목표,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내용,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설문 문항은 아래 표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

<표 1 -01> 일반대학, 전문대학 주요 설문 문항

일반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기본 정보 및 교직원 현황 ○ 교양교육의 목적 및 목표 ○ 교양교육과정 편성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이수 학점 - 교양필수 교과목 및 강좌 수 - 2018~2019학년도 개설 현황 - 신규 개설 교과목 현황 - 국제학생 대상 교양교육과정 현황 - 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 ○ 교양교육과정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 구성 현황 -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수 - 강좌별 규모(수강인원 기준), 온라인 교과목 비율 ○ 교양교육과정 질 관리 활동 ○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 - 전담 교직원 현황 - 교양교육과정위원회 현황
전문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교육의 목적과 목표 ○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3, 4년제 학제에 따른 교양학점 및 졸업 이수 학점 체계 - 교양필수 교과목 및 강좌 수 - 2018~ 2019학년도 귀 대학의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2019학년도 신규 개설한 교양 교과목에 대한 정보 -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 ○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현황 -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수(분반 포함) - 교양교육과정 강좌별 규모(실제 수강인원 기준) - 온라인 교양교과목 비율 - 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선결해야 할 과제 ○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교육과정 개선 및 질 관리 활동 ○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 -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설치 여부 및 주요 활동 -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
--	---

3.3. 설문조사 응답대학 정보

3.3.1 일반대학

국내 총 198개 일반대학(대학교 186개, 교육대학 10개, 방송대 1개, 경찰대 1개)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 연구에 총 116개 대학이 참여하였다. 기초조사에 응하여 대학 요람을 제출한 대학은 74개 대학, 설문조사에 응하여 설문지를 작성 제출한 대학은 87개 대학, 이 두 가지 자료를 모두 제출한 대학은 45개 대학이었다. 대학 요람을 제출한 74개 대학의 데이터를 기초로 교양 공통필수선택 교과목과 전공기초·전공예비 교과목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설문지를 제출한 87개 대학 데이터를 통하여 그 외 모든 결과값을 분석하였다. 신뢰성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하여 문항 별로 성실하게 응답한 대학들의 설문값만을 추출하여 분석하였기에 표별로 참여대학수가 상이할 수 있다.

설문지를 제출한 87개 대학의 현황을 설립 유형, 특성, 소재지, 규모별로 나누어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설립 유형별로는 국립대학이 24.14%, 사립대학이 75.86%였으며, 특성별로는 대학교가 90.80%, 교육대학이 6.9%, 산업대학이 1.15%였다.

<표 I -02> 일반대학 설립 유형별 응답 현황

유형	빈도	비율(%)
국립	21	24.14
사립	66	75.86
계	87	100.00

<표 1-03> 일반대학 특성별 응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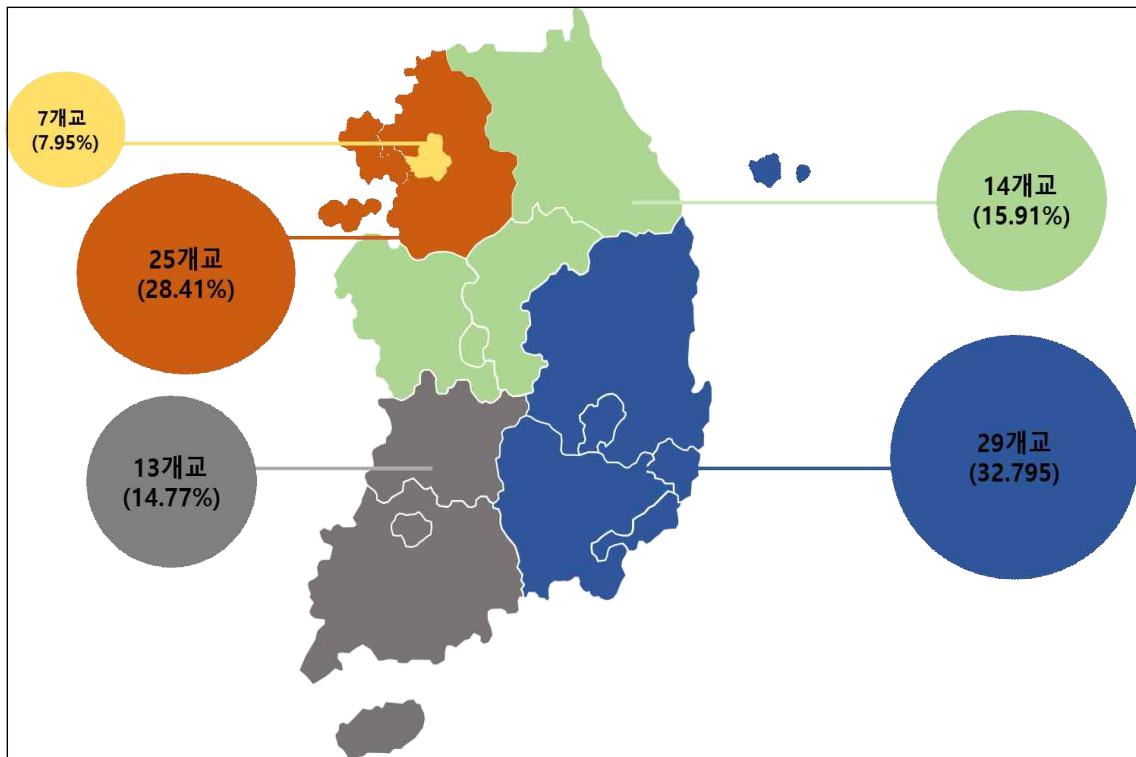
대학 특성	빈도	비율(%)
대학교	80	91.95
산업대학	1	1.15
교육대학	6	6.90
계	87	100.00

설문지를 제출한 87개 대학의 소재지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소재 대학이 17개교(19.54%), 경기·인천 대학이 12개교(13.79%), 강원·충청권 대학이 26개교(29.89%), 영남권 대학이 25개교(28.74%), 호남·제주권 대학이 7개교(8.05%)였다. 수도권 대학이 29개교로 33.33%, 비수도권 대학이 58개교로 66.67%를 차지하였다.

<표 1-04> 일반대학 학교 소재지별 응답 현황

	소재지		2차 권역	3차 권역
	빈도	비율(%)		
서울	17	19.54	서울	수도권
부산	8	9.20	영남권	비수도권
대구	1	1.15	영남권	비수도권
인천	1	1.15	경기·인천	수도권
광주	1	1.15	호남/제주권	비수도권
대전	3	3.45	강원/충청권	비수도권
울산	0	0.00	영남권	비수도권
세종	1	1.15	강원/충청권	비수도권
강원	7	8.05	강원/충청권	비수도권
경기	11	12.64	경기·인천	수도권
경남	6	6.90	영남권	비수도권
경북	10	11.49	영남권	비수도권
전남	2	2.30	호남/제주권	비수도권
전북	3	3.45	호남/제주권	비수도권
충남	8	9.20	강원/충청권	비수도권
충북	7	8.05	강원/충청권	비수도권
제주	1	1.15	호남/제주권	비수도권
계	87	100.00	-	-

설문지를 제출한 87개 대학의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2천명 미만 16개교(18.39%), 2천명 이상 ~ 5천명 미만 12개교(13.79%), 5천명 이상 ~ 1만 명 미만 34개교(39.08%), 1만 명 이상 ~ 2만 명 미만 19개교(21.84%), 2만 명 이상 6개교(6.90%)였다.



[그림 1-03] 일반대학 학교 소재지별 응답 현황

<표 1-05> 일반대학 규모별 응답 현황

재학생 수	빈도	비율(%)
2천명 미만	16	18.39
2천명 이상 ~ 5천명 미만	12	13.79
5천명 이상 ~ 1만명 미만	34	39.08
1만명 이상 ~ 2만명 미만	19	21.84
2만명 이상	6	6.90
계	87	100.00

설문지를 제출한 87개 대학의 교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교원의 경우 전임교원이 47.56%, 비전임교원이 52.44%로, 비전임교원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전임교원 내에서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39.89%,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7.67%로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비율이 5.2배 이상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직원의 경우에는 정규직 직원이 63.18%로 계약직 직원 36.82%보다 1.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1-06> 일반대학 전체 교직원 현황

구분		인원 수(명)	비율(%)
교원	전임	정년	27,990
		비정년	5,380
	비전임	36,791	
	소계	70,161	
직원	정규직	13,329	
	계약직	7,767	
	소계	21,096	
총계		91,257	

설문지를 제출한 87개 대학의 교직원 현황을 설립 유형별에 따라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이나 정규직 직원의 비율이 사립대학에 비하여 국립대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면, 교직원 구성 면에서 국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안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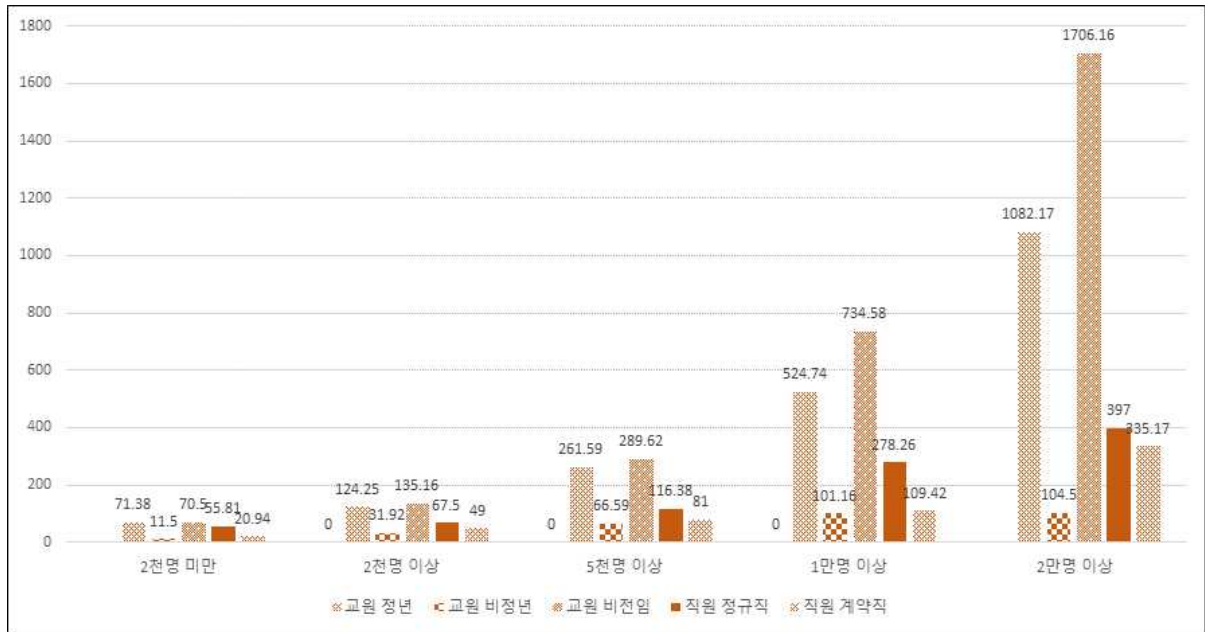
<표 1-07> 일반대학 설립 유형별 교직원 현황 비교

구분	국립대학			사립대학		
		인원 수(명)	비율(%)	인원 수(명)	비율(%)	
교원	전임	정년	8,398	37.65	19,592	40.96
		비정년	1,273	5.70	4,107	8.59
	비전임	12,635	56.64	24,136	50.45	
	소계	22,306	100.00	47,835	100.00	
직원	정규직	5,798	71.21	7,531	58.14	
	계약직	2,344	28.79	5,423	41.86	
	소계	8,142	100.00	12,954	100.00	
계		30,448	100.00	60,789	100.00	

설문지를 제출한 87개 대학의 교직원 현황을 대학 규모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1-08>과 같다.

<표 I -08> 일반대학 규모별 교직원 현황 평균

구분			2천명 미만			2천명 이상 ~ 5천명 미만			5천명 이상 ~ 1만명 미만			1만명 이상 ~ 2만명 미만			2만명 이상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교원	전임	정년	71.38	46.54	54.04	124.25	42.65	53.61	261.59	42.34	53.12	524.74	38.57	46.01	1082.17	37.41	41.02
		비정년	11.50	7.50		31.92	10.96		66.59	10.78		101.16	7.44		104.50	3.61	
	비전임	70.50	45.97		135.16	46.40		289.62	46.88		734.58	53.99		1706.16	58.98		
소계			153.38	100.00		291.33	100.00		617.80	100.00		1360.48	100.00		2892.83	100.00	
직원	정규직		55.81	72.72		67.50	57.94		116.38	58.96		278.26	71.78		397.00	54.22	
	계약직		20.94	27.28		49.00	42.06		81.00	41.04		109.42	28.22		335.17	45.78	
소계			76.75	100.00		116.50	100.00		197.38	100.00		387.68	100.00		732.17	100.00	
총계			230.13	100.00		407.83	100.00		815.18	100.00		1748.16	100.00		3625.00	100.00	



[그림 1-04] 일반대학 규모별 교직원 현황 평균

3.3.2 전문대학

국내 136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은 총 88개 대학이다. 이는 전체 전문대학 중 64.7%에 해당한다. 구체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09> 전문대학 연구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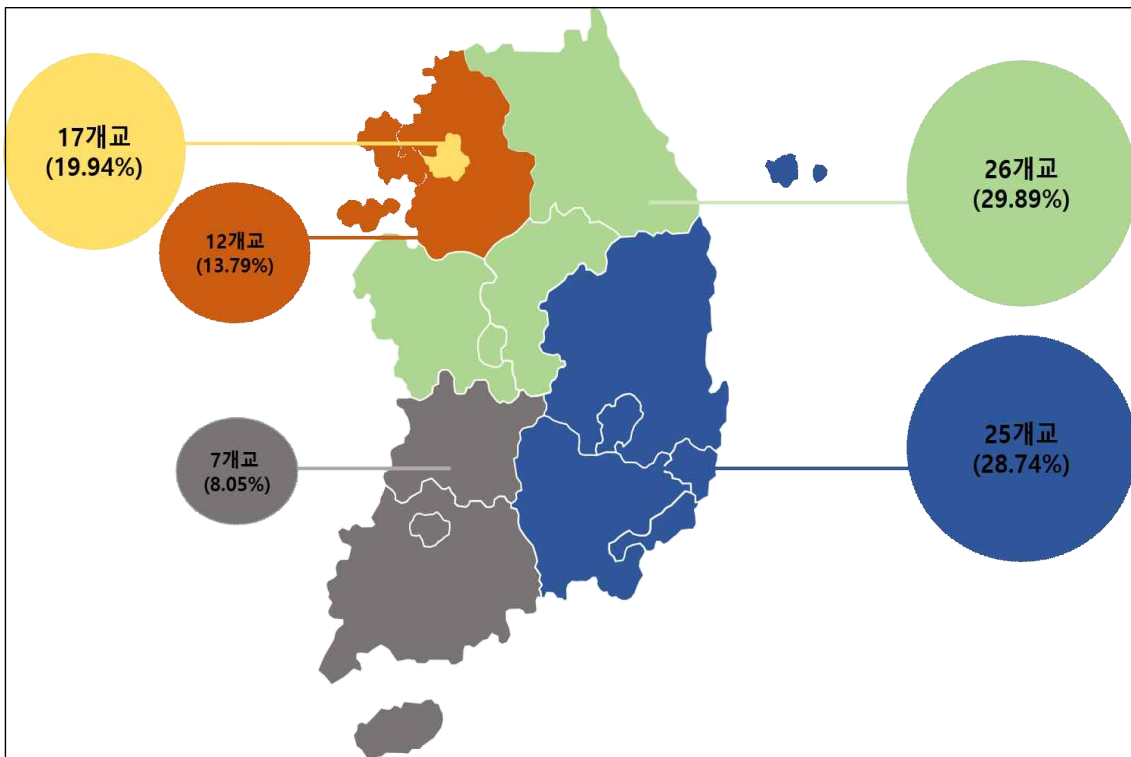
대학 명
강동대, 강릉영동대, 강원도립대, 거제대, 경기과학기술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북대, 경북도립대, 경북보건대, 경북전문대, 계명문화대, 계원예술대, 광주보건대, 구미대, 김포대, 농협대, 대경대, 대구공업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림대, 대원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보건대, 동서울대, 동아방송예술대, 동아보건대, 동양미래대, 동원과학기술대, 동원대, 동의과학대, 명지전문대, 목포과학대, 문경대, 배화여자대, 백제예술대, 부산경상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자대, 부산예술대, 부천대, 삼육보건대, 서라벌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정대, 서해대, 선린대, 성덕대, 세경대, 수원과학대, 수원여자대, 순천제일대, 신구대, 신성대, 신안산대, 안동과학대, 여주대, 연성대, 연암공과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오산대, 용인송담대, 웅지세무대, 원광보건대, 유한대, 인덕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업전문대, 장안대, 전남과학대, 전북과학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진주보건대, 청암대, 춘해보건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충청대, 포항대, 한국골프대, 한국복지대, 한양여자대, 한영대

설문지를 제출한 88개 전문대학의 현황을 설립 유형, 특성, 소재지, 규모별로 나누어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설립 유형별로는 국립대학이 1개교(1.13%), 공립대학이 4개교(4.55%), 사립대학이 83개교(94.32%)였다.

<표 1-10> 전문대학 설립 유형별 응답 현황

유형	빈도	비율(%)
국립	1	1.13
공립	4	4.55
사립	83	94.32
계	88	100

설문지를 제출한 88개 전문대학의 소재지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소재 전문대학이 7개교(7.95%), 경기·인천 전문대학이 25개교(28.41%), 강원·충청권 전문대학이 14개교(15.91%), 영남권 전문대학이 29개교(32.95%), 호남·제주권 전문대학이 13개교(14.77%)였다. 수도권 전문대학이 32개교로 36.36%, 비수도권 전문대학이 56개교로 63.64%를 차지하였다.



[그림 1-05] 전문대학 학교 소재지별 응답 현황

〈표 1-11〉 전문대학 학교 소재지별 응답 현황

소재지	1차 구분		2차 권역	3차 권역
	빈도	비율		
서울	7	7.95	서울	수도권
부산	5	5.68	영남권	비수도권
대구	6	6.82	영남권	비수도권
인천	2	2.27	경기·인천	수도권
광주	3	3.41	호남제주권	비수도권
대전	3	3.41	강원충청권	비수도권
울산	1	1.14	영남권	비수도권
세종	0	0.00	강원충청권	비수도권
강원	5	5.68	강원충청권	비수도권
경기	23	26.14	경기·인천	수도권
경남	6	6.82	영남권	비수도권
경북	11	12.50	영남권	비수도권
전남	6	6.82	호남제주권	비수도권
전북	4	4.55	호남제주권	비수도권
충남	1	1.14	강원충청권	비수도권
충북	5	5.68	강원충청권	비수도권
제주	0	0.00	호남제주권	비수도권
계	88	100	-	-

설문지를 제출한 88개 전문대학의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1천명 미만 15개교(17.05%), 1천명 이상 ~ 3천명 미만 29개교(32.95%), 3천명 이상 ~ 8천명 미만 43개교(48.86%), 8천명 이상 1개교(1.14%)였다.

〈표 1-12〉 전문대학 규모별 응답 현황

재학생 수	빈도	비율(%)
1천명 미만	15	17.05
1천명 이상 ~ 3천명 미만	29	32.95
3천명 이상 ~ 8천명 미만	43	48.86
8천명 이상	1	1.14
계	88	100.00

설문지를 제출한 88개 전문대학의 특성화 계열 현황을 살펴보면, 공학계열 21개교(23.86%), 자연과학계열(보건계열 포함) 20개교(22.73%), 인문사회계열 8개교(9.09%), 예체능계열 7개교(7.95%), 기타 9개교(10.23%)였으며, 2개 이상 복수로 응답한 대학이 23개교(26.14%)였다.

<표 1-13> 전문대학 특성화 계열별 응답 현황

특성화 계열	빈도	비율(%)
공학	21	23.86
자연과학(보건계열 포함)	20	22.73
인문사회	8	9.09
예체능	7	7.95
기타	9	10.23
복수 응답	23	26.14
계	88	100.00

II. 대학 교양교육의 현황

1] 일반대학의 교양교육 현황

1. 교양교육의 목적/목표

1.1 교양교육의 목적/목표 설정 현황

대학의 교양교육이 비전 및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학의 규모나 설립 유형에 관계없이 대학의 설립 이념과 보편적인 교양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양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설문에 응답한 87개 일반대학 중에서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응답한 대학은 84개교로, 96.55%의 대학이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었다.

<표 II-01>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한 대학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한 대학교의 수	비율(%)
84	96.55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한 84개 대학을 설립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대학은 응답 대학 66개교 전체가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반면, 국립대학은 응답 대학 중 85.71%인 18개교만이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02> 설립 유형별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 설정 현황

구분	조사대상 대학(개교)	설정 대학(개교)	설정 대학 비율(%)
국립	21	18	85.71
사립	66	66	100.00
계	87	84	96.55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3개 대학은 모두 재학생 수 2,00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학이었다. 부산과 경남, 강원에 소재한 이들 3개 대학을 제외하면, 일반대학은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를 모두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2 교양교육의 목적/목표 키워드 분석

각 대학이 설정하고 있는 교양교육의 목적이나 목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양교육의 목적 및 목표를 기술하라는 주관식 설문문항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양교육의 목적과 목표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설정하였거나 목적과 목표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는 대학들이 많았다. 이와 같은 응답 결과에 따라 내용 분석 또한 교양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진행하였다.

각 대학이 설정하고 있는 교양교육의 목적이나 목표에 등장하는 키워드를 추출해보면 아래 <표 II-0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는 ‘인격, 인성, 인간성’이었으며(46개교), ‘창의’ (42개교), ‘융합’ (39개교), ‘글로벌’ (35개교) 등의 키워드가 그 뒤를 이었다.²⁵⁾ 이밖에 ‘기본·기초’, ‘지성’, ‘공동체’, ‘소통’ 등의 키워드도 20개 이상의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어서 대학의 교양교육 목적 또는 목표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03> 교양교육의 목표 키워드 빈도

순위	교양교육의 목표	빈도
1	인격, 인성, 인간성	46
2	창의, 창의성, 창의적, 창조, 창의인재, 창의적 인재	42
3	융합, 융복합, 통섭	39
4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 세계시민, 국제경쟁력	35
5	기본기, 기본능력, 기본소양, 기본역량, 기초, 기초교육, 기초소양, 기초역량, 기초지식, 기초학업능력	28
6	지성, 지성인, 지식, 지식인, 탐구, 이성	26
7	공동체, 공동체의식, 사회 연계성	26
8	소통, 소통능력, 의사소통, 의사소통능력, 문해력	23
9	인간관, 인간에 대한 이해, 세계관, 가치관, 가치	19
10	도덕, 도덕성, 윤리, 윤리의식, 덕성, 책임감, 성실, 신뢰	17
11	리더, 리더십, 지도자, 사회지도자, 자기주도, 자기관리	17
12	봉사, 봉사정신, 봉사활동, 봉사능력, 사회봉사	16
13	기독교, 기독교적, 기독교 정신	15

25) 2014년에 조사 보고된 대학 교양교육의 목적/목표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는 ① ‘인격, 인성, 인간성’, ②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 ③ ‘기본기, 기본소양, 기초능력’, ④ ‘창의성, 창조, 창의 인재’, ⑤ ‘지식, 지식인, 지성’, ⑥ ‘교양, 교양인, 교양지식’, ⑦ ‘문화, 문화인, 문화교육’, ⑧ ‘봉사, 봉사정신, 사회봉사’, ⑨ ‘전문, 전문인, 전문지식’, ⑩ ‘미래사회, 미래지향적, 21세기’ 순이었다. 물론 5년이 지난 이번 조사에서도 ‘인격, 인성, 인간성’이 교양교육의 목적/목표로 가장 자주 보이는 키워드이기는 하나, ‘융합, 융복합, 통섭’, ‘공동체, 공동체의식, 사회 연계성’, ‘도덕, 도덕성, 윤리, 윤리의식’ 등의 키워드가 교양교육의 목적/목표로 새롭게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cf. 유기웅(2014), 「우리나라 4년제 대학 교양교육 현황 실태 분석 연구」, pp.16~22.

	비판, 비판적, 비판적 사고, 판단력	15
	감성, 감수성, 감성조절, 공감, 정서	15
16	핵심역량	14
17	교양, 교양인, 교양지식, 교양형성	12
	전문, 전문성, 전문인, 전문지식	12
19	다문화, 문화적 다양성, 다양성	11
20	문제해결, 문제해결능력, 복합문제해결능력	10
21	민주사회, 민주시민, 민주시민정신	9
22	전인, 전인적	8
23	4차 산업혁명, 소프트웨어, SW, 디지털, 정보, 정보화, 지식정보화, 정보통신, 기술, 과학기술	7
	국가, 국가관, 국가발전, 국가사회, 지역사회	7
25	인문, 인문학적	5
	미래사회, 미래지향적	5
27	문화, 문화시민, 문화예술, 문화인	4
28	진로, 취업, 창업, 취창업	2
	직업기초능력, NCS, 현장실무능력, 실무적, 실용	2
30	기타	1

이상과 같은 대학 교양교육의 목표 키워드는 아래 <표 II-04>에서 보는 바와 같은 7개의 대범주로 분류된다. 이들 7개의 대범주는 학문 분류 체계와는 겹쳐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어서 교양교육의 목적과 목표는 전공 학문과는 구분되는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04> 교양교육 목표의 키워드 대범주 분류

순위	대범주	소범주 수	빈도 수
1	인격, 도덕, 리더십	6	122
2	창의 융합, 미래사회, 문제 해결	6	118
3	봉사, 공동체, 민주시민, 국가	4	70
4	기본, 소통능력, 핵심역량	3	65
5	지성, 교양, 인문, 감수성	5	62
6	국제화, 다문화	2	46
7	진로, 직업, 전문성	3	16

교양교육 목표의 키워드 대범주 ‘인격, 도덕, 리더십’ 과 ‘창의 융합, 미래사회, 문제 해결’ 은 가장 많은 소범주를 가지며 빈도수가 가장 많다. 교양교육에서 전통적으로 중요시되어 왔던 ‘기본, 소통능력, 지성, 교양, 인문, 문화, 감수성’ 등도 여전히 중요한 교양교육의 목표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화’, ‘다문화’ 는 2개의 소범주만을 갖고 있지만 46회 사용되고 있어서 다른 범주들과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교양교육의 목표로 자리잡고 있음이 드러난

다. ‘진로, 직업, 전문성’ 이 교양교육의 목표로 사용되는 경우도 16회나 있었다.

교양교육의 목표 대범주 ‘인격, 도덕, 리더십’ 에는 ‘인격’, ‘인간관’, ‘도덕’, ‘리더’, ‘기독교’, ‘전인’ 등의 소범주가 포함된다. 이와 연관된 키워드를 교양교육의 목표로 설정한 대학을 모두 합하면 ‘인격, 도덕, 리더십’ 을 교양교육의 목표로 설정한 대학은 총 122개교에 이른다. ‘인격, 도덕, 리더십’ 의 범주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중복해서 교양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대학이 그만큼 많다는 사실은 교양교육의 목표로서 ‘인격, 도덕, 리더십’ 의 가치를 반증하는 셈이다.

‘인격, 도덕, 리더십’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교양교육의 목표 키워드는 ‘창의 융합, 미래사회, 문제 해결’ 로 118개 대학이 이를 교양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 밖에 ‘봉사, 공동체, 민주시민, 국가’ 등 공동체를 향한 관심을 드러내는 키워드가 70개 대학에서 교양교육의 목표로 제시되고 있었다.

한편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키워드가 동수의 대학에서 교양교육의 목표로 발견된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즉 ‘비판적 사고’ 와 ‘감수성’ 범주가 각각 15개 대학에서 나타나고, ‘교양’ 과 ‘전문성’ 역시 각각 12개 대학에서 나타난다. 이같은 사실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전인적 인간 형성이라는 교양교육의 보편적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교양교육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에도 한다.

<표 II-05> 교양교육 목표 키워드 대범주와 소범주

대범주	소범주
인격, 도덕, 리더십	인격, 인성, 인간성
	전인, 전인적
	인간관, 인간에 대한 이해, 세계관, 가치관, 가치
	도덕, 도덕성, 윤리, 윤리의식, 덕성, 책임감, 성실, 신뢰
	리더, 리더십, 지도자, 사회지도자, 자기주도, 자기관리
창의 융합 미래사회, 문제해결	기독교, 기독교적, 기독교 정신
	창의, 창의성, 창의적, 창조, 창의인재, 창의적 인재
	미래사회, 미래지향적, 진취적, 21세기
	4차산업혁명, 소프트웨어, SW, 디지털, 정보, 정보화, 지식정보화, 정보통신, 기술, 과학기술
	문제해결, 문제해결능력, 복합문제해결능력
봉사, 공동체, 민주시민, 국가	비판, 비판적, 비판적 사고, 판단력
	융합, 융복합, 통섭
	국가, 국가관, 국가발전, 국가사회, 지역사회
	공동체, 공동체의식, 사회 연계성
기본, 소통능력, 핵심역량	민주 사회, 민주 시민, 민주 시민정신
	봉사, 봉사정신, 봉사활동, 봉사능력, 사회봉사
	기본기, 기본능력, 기본소양, 기본역량, 기초, 기초교육, 기초소양, 기초역량, 기초지식, 기초학업능력

	소통, 소통능력, 의사소통, 의사소통능력, 문해력 핵심역량
지성, 교양, 인문, 감수성	지성, 지성인, 지식, 지식인, 탐구, 이성 교양, 교양인, 교양지식, 교양형성 문화, 문화시민, 문화예술, 문화인 감성, 감수성, 감성조절, 공감, 정서 인문, 인문학적
국제화, 다문화	다문화, 문화적 다양성, 다양성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 세계시민, 국제경쟁력
진로, 직업, 전문성	진로, 취업, 창업, 취창업 직업기초능력, NCS, 현장실무능력, 실무적, 실용 전문, 전문성, 전문인, 전문지식

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내용

2.1 졸업이수학점 체제와 교양교육과정

아주대학교나 단국대학교와 같이 최근 선택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대학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하나, 대학의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에 응답한 87개 대학 가운데 졸업이수학점 체제에 대하여 응답한 대학은 84개 대학이었다. 이들 84개 대학의 2019학년도 졸업이수학점 체제는 다음과 같았다.

〈표 II-06〉 일반대학의 졸업이수학점 체제 (단위: 학점)

응답대학 수	교양			전공	기타 (자유선택)	졸업이수 학점
	필수	선택	계			
84	17.38	17.45	35.08	68.92	28.57	130.81

전체 응답대학 중 이 항목에 정보를 제공한 84개 일반대학의 2019학년도 졸업이수학점 체제를 분석한 결과 평균 졸업이수학점은 130.81학점, 교양과정은 35.08학점, 전공과정은 68.92학점, 자유선택과정은 28.57학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교육과정은 전체 졸업이수학점에서 26.82%를 차지한다. 한편 교양교육과정에서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이 차지하는 학점 비율을 분석한 결과, 교양필수는 평균 17.38학점, 교양선택은 평균 17.45학점으로, 교양필수가 교양교육과정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9.54%에 이르고 있었다.

<표 II-07> 졸업이수학점 체계에 대한 표준편차

응답대학 수	교양			전공	기타 (자유선택)	졸업이수 학점
	필수	선택	계			
84	8.43	7.09	7.35	14.95	14.33	4.47



[그림 II-01] 일반대학의 졸업이수학점 체계 (단위: 학점)

2.2 계열별 교양교육과정 이수학점

일반대학의 졸업이수학점 체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계열별 교양이수 학점 체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08> 계열별 교양 이수학점 체계별 평균 (단위: 학점)

계열	응답대학 수	교양			전공	기타 (자유선택)	졸업이수 학점
		최소	최빈	최대			
인문사회	79	29.03	33.04	36.58	70.11	26.64	130.72
자연과학	64	28.29	33.77	39.22	75.64	24.98	131.64
공학	65	29.44	36.11	39.79	74.54	24.42	132.66
예체능	68	29.98	31.88	36.94	70.30	26.34	128.42
의학	28	22.30	23.00	33.91	128.67	12.60	156.52
기타	21	30.79	34.77	39.47	74.84	24.94	130.00

<표 II-09> 계열별 교양 이수학점 체계 표준편차 (단위: 학점)

계열	응답대학 수	교양			전공	기타 (자유선택)	졸업이수 학점
		최소	최빈	최대			
인문사회	79	10.40	9.20	9.91	17.38	14.29	4.91
자연과학	64	12.08	9.77	8.65	21.52	13.53	4.30
공학	65	11.00	11.00	10.72	17.11	12.86	7.29
예체능	68	9.82	10.60	7.76	13.82	13.52	13.06
의학	28	14.71	15.73	30.37	62.74	32.47	43.74
기타	21	9.77	9.32	10.67	15.01	14.49	16.25

최빈가 기준으로 볼 때, 교양 이수학점이 가장 많은 계열은 공학계열(36.11학점)이었고, 의학계열(23.00학점)을 제외하면 인문사회계열(33.04학점)의 교양 이수학점이 가장 낮았다. 졸업 이수학점 대비 교양 이수학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계열은 역시 공학계열(27.21%)이었고, 의학계열(14.69%)을 제외하면 교양 이수학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계열은 예체능계열(24.82%)이었다.

2.3 교양필수 교과목 및 강좌 수

일반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은 교양필수 학점과 교양선택 학점의 비율이 49.54% 대 50.46%로, 교양필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전체 응답대학 중 교양필수 교과목 분석이 가능한 75개 대학의 교양필수 교과목 구성 영역 및 교과목 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10> 교양필수 교과목 구성 영역 수 (단위: 개)

최대	평균	최소	최빈값
8	3.28	1	3

<표 II-11> 교양필수 교과목 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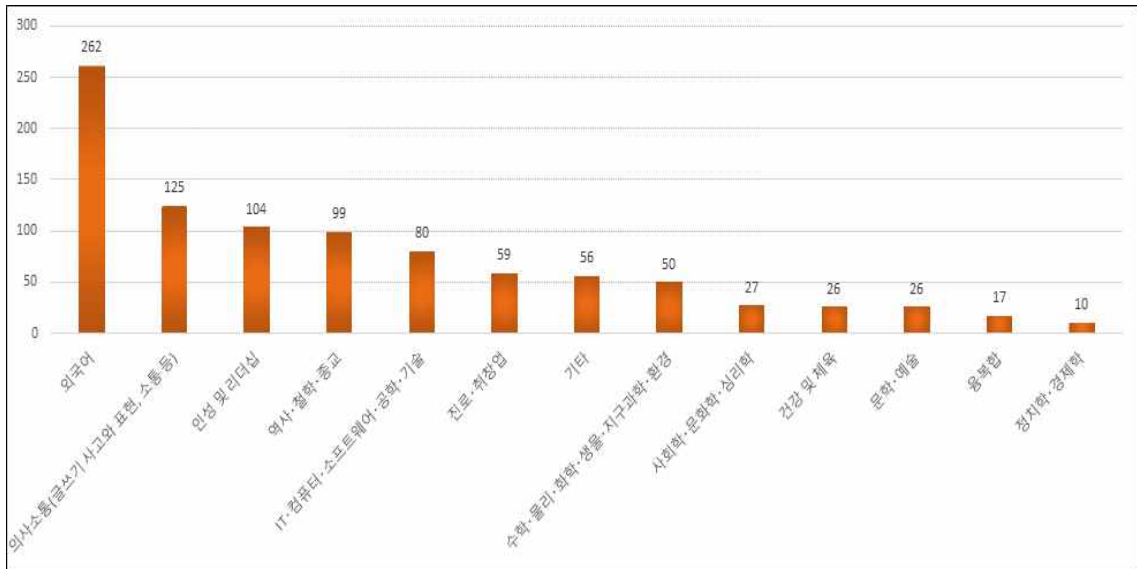
최대	평균	최소	최빈값
35	10.82	1	10

75개 대학의 교양필수 교과목을 분석한 결과, 교양필수는 평균 3.2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교과목 수는 평균 10.82개였다.²⁶⁾ 또한 75개 대학의 대학별 교양필수 교과목의 편성 현황을 영역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2> 교양필수 교과목의 내용 영역 현황

번호	영역	개설 수	전체개설 과목수 중 개설수 비율	순위
1	외국어	262	27.84	1
2	의사소통(글쓰기 사고와 표현, 소통 등)	125	13.28	2
3	인성 및 리더십	104	11.05	3
4	역사·철학·종교	99	10.52	4
5	IT·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기술	80	8.50	5
6	진로·취창업	59	6.27	6
7	기타	56	5.96	7
8	수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환경	50	5.31	8
5	사회학·문화학·심리학	27	2.87	9
10	건강 및 체육	26	2.76	10
11	문학·예술	26	2.76	10
12	융복합	17	1.81	12
13	정치학·경제학	10	1.06	13
	합계	941	99.99	해당없음

26) 교양필수 학점이 평균 17.38학점인데 교과목 수가 평균 10.82개로 나타난 것은 교양필수를 선택적 필수로 이수하게 하는 대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II-02] 교양필수 교과목 내용 분포

대학별 교양필수 교과목의 편성 현황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외국어’, ‘의사소통’ (글쓰기, 사고와 표현 등), ‘인성 및 리더십’ (봉사 포함), ‘역사·철학·종교’ (채플 포함), ‘IT·컴퓨터·소프트웨어’, ‘진로·취창업’ 등을 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기초수학·과학’, ‘사회과학’, ‘체육’, ‘문학·예술’, ‘융복합’ 분야의 교과목을 교양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대학 교양필수 교과목 가운데 대학생활 적응, 진로·전공탐색 등 신입생 세미나 성격의 교과목 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13> 신입생 세미나 유형의 교과목 개설 현황

대학 수	1학기		2학기		전체 대학 총 강좌 수 총합
	전체 대학 총 강좌 수	대학당 평균	전체 대학 총 강좌 수	대학당 평균	
43	5,767	134	4,749	110	10,516

대학생활 적응, 진로·전공탐색 등 신입생 세미나 성격의 교과목을 교양필수로 개설 운영하는 대학은 응답대학 84개교 가운데 43개 대학으로, 전체 응답대학의 51.19%를 차지한다. 이들 대학은 신입생 세미나 성격의 교과목을 1학기 평균 134강좌, 2학기 평균 110강좌를 운영하고 있어서 단일 교양과목으로는 최대 강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입생 세미나 유형의 교과목 과목명은 아래 <표 II-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 ‘대학생활’, ‘인성’, ‘설계’ 등의 단어를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표 II-14> 대학별 신입생 세미나 유형 교과목의 과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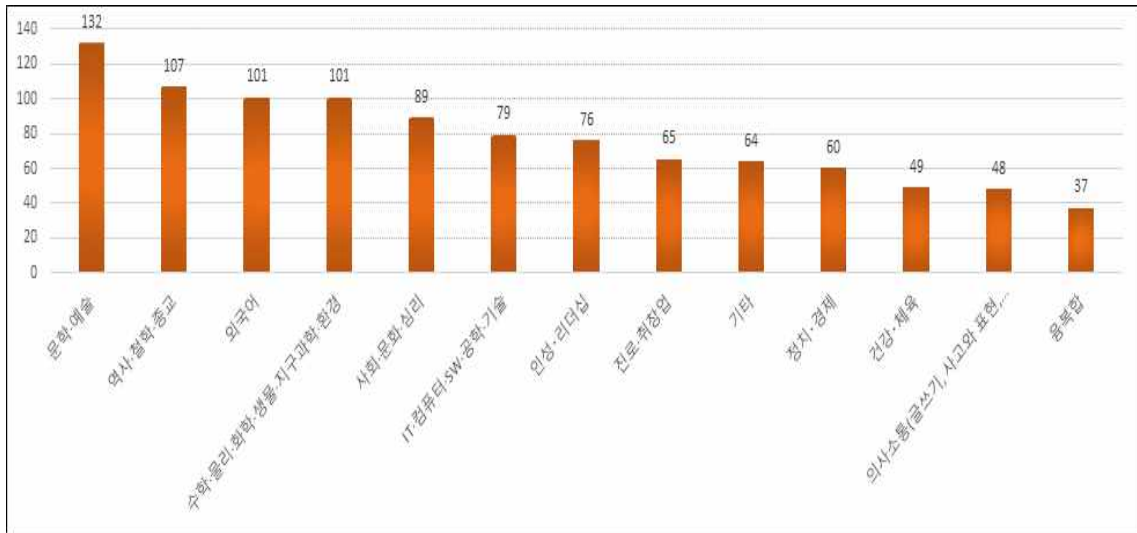
대학별 신입생 세미나 유형 교과목의 과목명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진로선택, SU인성코칭, 내인생의 성공학·실패학, 대학생활, 대학생활과 미래설계, 대학생활과자기혁신, 대학생활과진로설계, 대학생활길라잡이, 대학생활설계, 대학생활설계와비전, 대학생활세미나, 동국인의자기계발, 맞춤형진로설계, 비전탐색, 사제동행세미나, 삶과꿈, 새대기세미나, 성신의대학생활지도, 세계와시민, 알바트로스세미나, 인간의가치탐색, 인생설계와진로, 인생설계와진로, 인성과대학생활, 인성과미래설계, 인성과삶의가치, 인성과학문, 인성교육과자기설계, 인성교육과취업진로, 자기계발과 대학생활, 자기계발과직업기초능력, 자기계발과진로설계, 자기계발과진로탐색, 자기이해와진로설계, 자기이해와진로탐색, 자아탐색과진로설계, 전공설계세미나, 전공탐색, 직업설계세미나, 진로설계, 진로설계세미나, 진로탐색및생애설계, 진로설계와상담, 진로설계와자기계발, 진로설계와현장교육, 진로연계지도, 진로코칭, 진로탐색, 진로탐색및목표설정, 창의적대학설계, 취업진로설계, 파트너십트레이닝

2.4 일반대학 교양 필수 선택 교과목 개설 현황

기초조사를 통해 수행한 74개 대학의 요람 분석 결과, 일반대학의 교양 필수 선택 교과목 개설 영역은 아래 <표 II-1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15> 일반대학 교양 필수 선택 교과목 개설 영역 현황

번호	개설 영역	개설 과목 수	비율(%)
1	문학·예술	132	13.10
2	역사·철학·종교	107	10.62
3	외국어	101	10.02
4	수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환경	101	10.02
5	사회·문화·심리	89	8.83
6	IT·컴퓨터·SW·공학·기술	79	7.84
7	인성·리더십	76	7.54
8	진로·취창업	65	6.45
9	기타	64	6.35
10	정치·경제	60	5.95
11	건강·체육	49	4.86
12	의사소통(글쓰기, 사고와 표현, 소통 등)	48	4.76
13	융복합	37	3.67
	총합	1,008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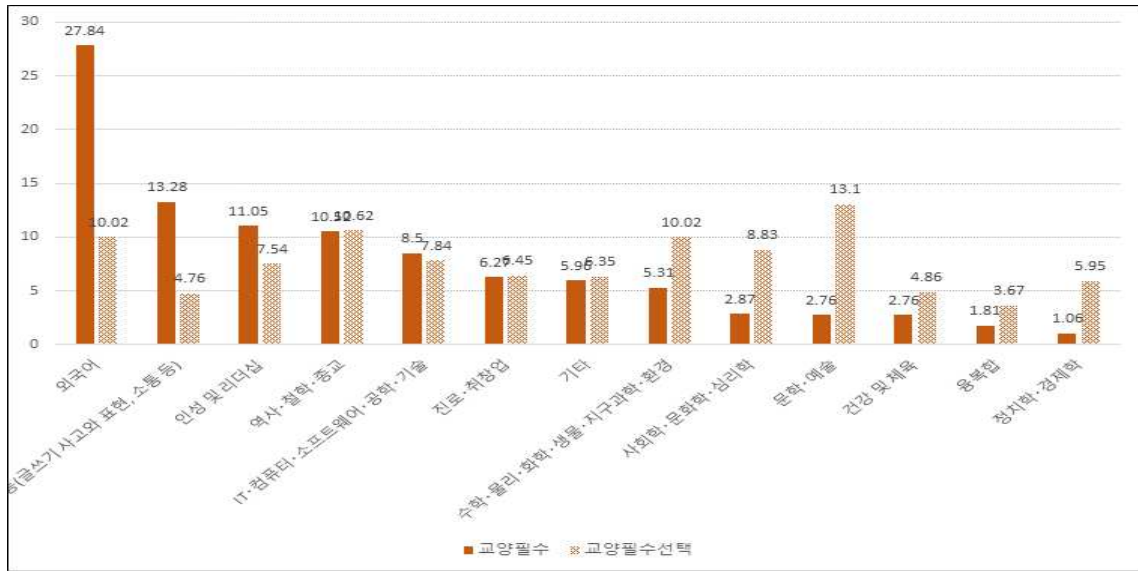
[그림 II-03] 일반대학 교양 필수 선택 교과목 개설 영역 현황

교양 필수 선택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영역은 문학·예술 영역으로 13.10%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역사·철학·종교 영역으로 10.62%로 나타났다. 외국어 영역과 수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환경영역은 동일하게 10.02%로 나타났다.

교양필수 교과목과 교양 필수 선택 교과목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16> 교양필수와 교양 필수 선택 교과목 개설 영역 현황 비교

교양필수		영역	교양 필수 선택	
비율(%)	순위		순위	비율(%)
27.84	1	외국어	3	10.02
13.28	2	의사소통(글쓰기 사고와 표현, 소통 등)	12	4.76
11.05	3	인성 및 리더십	7	7.54
10.52	4	역사·철학·종교	2	10.62
8.50	5	IT·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기술	6	7.84
6.27	6	진로·취창업	8	6.45
5.96	7	기타	9	6.35
5.31	8	수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환경	3	10.02
2.87	9	사회학·문화학·심리학	5	8.83
2.76	10	문학·예술	1	13.10
2.76	10	건강 및 체육	11	4.86
1.81	12	융복합	13	3.67
1.06	13	정치학·경제학	10	5.95



[그림 II-04] 교양필수와 교양 필수 선택 교과목 개설 영역 현황 비교

교양필수 교과목과 교양 필수 선택 교과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외국어’나 ‘역사·철학·종교’ 영역이 교양필수와 교양 필수 선택 모두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건강 및 체육’, ‘융복합’, ‘정치학·경제학’ 영역은 교양필수와 교양 필수 선택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IT·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기술’과 ‘진로·취창업’ 영역은 교양필수와 교양 필수 선택에서 모두 일정 부분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소통’과 ‘인성 및 리더십’은 교양필수에서, 그리고 ‘문학·예술’과 ‘수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환경’, ‘사회학·문화학·심리학’은 상대적으로 교양 필수 선택에서 중요하게 개설 운영되고 있었다.

2.5 전공기초/전공예비 교과목 편성 현황

74개 대학의 요람을 분석한 결과, 전공기초/전공예비 교과목을 교양교육과정의 별도 영역으로 편성한 대학은 40개교, 53.33%에 이르렀다. 전공기초/전공예비 교과목을 교양교육과정에 편성하는 경우, 적게는 2학점에서 24학점까지, 많게는 4학점에서 44학점까지 편성하였다. 이들 대학은 교양교육과정 가운데 전공기초/전공예비 교육을 위한 학점을 평균 6.57학점 이상 편성하고 있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6학점을 편성하였다.

<표 II-17> 대학별 전공기초/전공예비 교과목 편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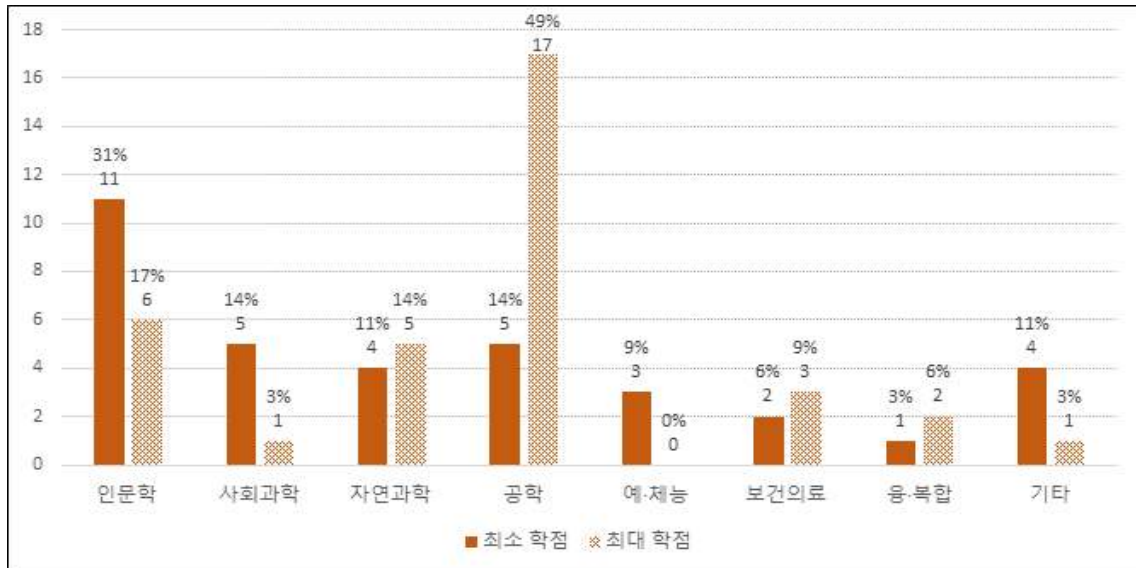
미 편성		편성		총합	
대학 수	비율(%)	대학 수	비율(%)	대학 수	비율(%)
35	46.67	40	53.33	75	100.00

<표 II-18> 대학별 전공기초/전공예비 교과목 학점 편성 현황

최소 학점				최대 학점			
최소	최빈	최대	평균	최소	최빈	최대	평균
2	6	24	6.57	4	6	44	17.47

<표 II-19> 계열별 전공기초/전공예비 교과목 학점 편성 현황

계열	최소 학점		최대 학점	
	대학 수	비율(%)	대학 수	비율(%)
인문학	11	31.43	6	17.14
사회과학	5	14.29	1	2.86
자연과학	4	11.43	5	14.29
공학	5	14.29	17	48.57
예·체능	3	8.57	0	0.00
보건의료	2	5.71	3	8.57
융·복합	1	2.86	2	5.71
기타	4	11.43	1	2.86
합	35	100.00	35	100.00



[그림 II-05] 계열별 전공기초/전공예비 교과목 학점 편성 현황

계열별 전공기초/전공예비 교과목의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공기초/전공예비 교과목을 가장 적게 편성하는 계열은 인문학 계열(11개교 31.43%)이었으며, 전공기초/전공예비 교과목을 가장 많이 편성하는 계열은 공학계열(17개교 48.57%)이었다. 즉 공학계열에서는 교양 이수 학점 중 전공기초/전공예비 교과목의 학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공 이외의 교양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6 2018-2019학년도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

전체 응답대학 83개교의 2018-2019학년도 교양 교과목과 강좌 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20> 2018-2019학년도 개설 교양 교과목 수와 강좌 수 (평균)

응답대학 수	구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1학기	2학기	계	1학기	2학기	계
83	개설 과목 수	285.61	280.33	543.17	284.17	277.60	538.70
83	개설 강좌 수	666.79	615.57	1,264.99	638.67	602.18	1,22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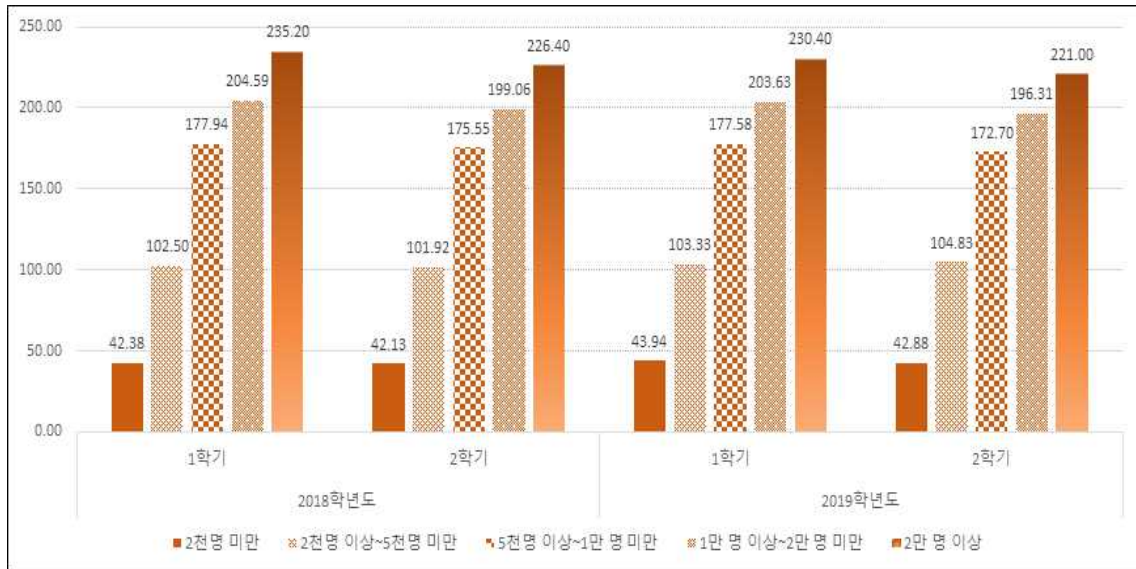
<표 II-21> 2018-2019학년도 개설 교양 교과목 수와 강좌 수의 표준편차

응답대학 수	구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83	개설 과목 수	84.69	81.58	82.92	78.27
83	개설 강좌 수	362.84	330.67	346.31	314.91

대학 평균 개설 교양 교과목 수는 2018학년도 296.87개 교과목, 2019학년도 293.93개 교과목이었다. 평균 개설 강좌 수는 2018학년도 956.76개 강좌, 2019학년도 924.93개 강좌로, 2019학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교과목 수와 강좌 수 모두 감소하였으며, 교과목 수에 비해 강좌 수의 변동 폭이 더 컸다. 대학 규모별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22> 대학 규모별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

규모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1학기	2학기	계	1학기	2학기	계
2천명 미만	42.38	42.13	84.50	43.94	42.88	86.81
2천명 이상~5천명 미만	102.50	101.92	204.42	103.33	104.83	208.17
5천명 이상~1만 명 미만	177.94	175.55	353.48	177.58	172.70	350.27
1만 명 이상~2만 명 미만	204.59	199.06	403.65	203.63	196.31	399.94
2만 명 이상	235.20	226.40	461.60	230.40	221.00	451.40



[그림 II-06] 대학 규모별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

대학 규모별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규모에 따라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에 개설된 교양 교과목의 수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학생 수 5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은 전년 대비 교양 교과목의 수가 늘어난 반면, 재학생 수 5천명 이상의 중규모 대학 및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은 전년 대비 교양 교과목의 수가 줄어들었다.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을 대학 설립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설립 유형에 따른 교양 교과목의 수는 주목할 만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표 II-23> 설립 유형별 대학의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

설립 유형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1학기	2학기	계	1학기	2학기	계
국립	128.47	125.53	254.00	123.11	119.39	242.50
사립	156.14	153.45	309.59	156.20	152.19	308.39

지역별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역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볼 수는 없었다. 다음 <표 II-24>에 의하면 수도권 대학의 교양 교과목 개설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게 나타나지만, 이는 수도권 응답 대학 중 소규모 대학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²⁷⁾

27) 설문에 응답한 대학 중 경기·인천 소재 대학은 12개교였는데, 이 가운데 재학생 2천명 미만의 대학이 3개교, 2천명에서 5천명 미만의 대학이 5개교였다. 수도권 대학의 교양 교과목 개설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것은 이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II-24> 지역별 대학의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 (평균)

권역	2018학년도			2019학년도		
	1학기	2학기	계	1학기	2학기	계
서울	162.81	160.31	323.13	166.06	162.00	328.06
경기·인천	90.41	87.05	177.45	87.73	83.09	170.82
영남권	122.22	123.41	245.63	118.77	116.01	234.78
호남·제주권	222.17	206.17	428.33	216.83	204.67	421.50
강원·충청권	154.98	153.69	308.66	158.66	152.91	311.57

2.7 2018-2019학년도 신규 개설 교양 교과목

설문에 응답한 87개 대학 가운데 76개 대학이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신규로 개설한 교양 교과목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하였다. 이들 76개 대학이 신규 개설한 교양 교과목은 2018학년도 평균 26.96개, 2019학년도 평균 23.95개 교과목이었으며, 1학기에 신규 개설하는 교과목이 2학기에 개설하는 신규 교과목보다 1.5~2배 가까이 많았다.

<표 II-25> 2018-2019학년도 신규 개설 교양 교과목 총계와 평균

응답대학 수	구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1학기	2학기	계	1학기	2학기	계
76	신규개설 교양 교과목 총계	1,247	613	1,860	1,006	626	1,632
	신규개설 교양 교과목 평균	17.81	9.15	26.96	14.17	9.78	23.95

<표 II-26> 2018-2019학년도 신규 개설한 교양 교과목의 표준편차

응답대학 수	구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76	신규 개설 교양 교과목 수	26.64	19.77	22.94	20.49

76개 대학의 신규 개설 교양 교과목을 영역별로 분류해 보면, 신규 교양 교과목이 가장 많이 개설된 영역은 인문학 영역으로 전체 신규 개설 교과목 중 17.77%였으며, 사회과학 영역이 17.52%로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 영역(15.95%)과 기초교육 영역(15.24%)이 그 다음으로 많이 개설된 신규 교양 교과목 영역이었다.

<표 II -27> 2018-2019학년도 신규 개설 교양 교과목의 내용 영역 현황

구분		기초 교육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과학, 공학·기술	예체능	인성 및 종교	보건 및 의학	융복합	기타
2018	과목수	252	367	329	306	144	76	23	183	77
	비율(%)	13.90	20.25	18.15	16.88	7.94	4.19	1.26	10.09	4.24
2019	과목수	224	188	218	192	151	35	15	106	74
	비율(%)	17.09	14.35	16.64	14.65	11.52	2.67	1.14	8.09	5.64
평균	과목수	238	277.5	273.5	249	147.5	55.5	19	144.5	75.5
	비율(%)	15.24	17.77	17.52	15.95	9.44	3.55	1.21	9.25	4.83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신규 개설 교양 교과목 현황을 학기별로 살펴보면, 1학기에 더 많은 교과목이 신규 개설되고 있으며, 최근 4개 학기 중 2018학년도 1학기에 신규 교과목이 가장 높은 비율로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 -28> 2018-2019학년도 신규 개설 교양 교과목 빈도율

년도 및 학기	학년별 빈도 비율(%)	2개년도 중 빈도 비율(%)
2018-1학기	66.07	34.99
2018-2학기	33.93	17.97
2018년총계	100.00	
2019-1학기	59.16	27.83
2019-2학기	40.84	19.21
2019-전체총계	100.00	
2018-2019총계		100.00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신규 개설 교양 교과목 현황을 대학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에 따른 변화 추이나 경향성은 일정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대학 규모별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표 II -24>)과 비교해보면, 2천명 미만의 대학은 이 기간에 신규 개설한 교과목 수가 2018학년도 11.65개, 2019학년도 6.33개, 2천명 이상-5천명 미만 규모의 대학은 각각 47.00개, 44.50개여서 신규 개설 교양 교과목 수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I -29> 대학 규모별 신규 개설 교양 교과목 수 현황

규모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1학기	2학기	계	1학기	2학기	계
2천명 미만	6.09	5.56	11.65	4.00	2.33	6.33
2천명 이상~5천명 미만	26.75	20.25	47.00	24.67	19.83	44.50
5천명 이상~1만 명 미만	14.93	6.00	20.93	15.35	8.76	24.11
1만 명 이상~2만 명 미만	26.38	8.54	34.92	9.92	9.00	18.92
2만 명 이상	16.60	8.75	25.35	14.20	5.75	19.95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신규 개설 교양 교과목 현황을 대학 설립 유형별로 보면, 국립대 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2배 이상의 많은 과목을 신규 개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30> 대학 설립 유형별 신규 개설 교양 교과목 수 현황

설립 유형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1학기	2학기	계	1학기	2학기	계
국립	31.47	17.31	48.77	20.93	20.45	41.38
사립	14.09	7.19	21.28	12.51	7.57	20.07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신규 개설 교양 교과목 현황을 대학 소재지별로 분석한 결과, 영남권 소재 대학의 신규 개설 교과목 수가 2018학년도 31.18과목, 2019학년도 31.54과목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제주권 소재 대학이 2018학년도 11.13과목, 2019학년도 15.50과목으로 가장 적었다.

<표 II-31> 지역별 신규 개설 교과목 수 현황

지역별 평균	2018학년도			2019학년도		
	1학기	2학기	계	1학기	2학기	계
서울	8.14	7.71	15.86	9.07	8.21	17.29
경기·인천	16.78	8.94	25.72	9.35	6.44	15.79
영남권	18.96	12.23	31.18	18.82	12.72	31.54
호남제주권	5.83	5.29	11.13	9.13	6.38	15.50
강원충청권	19.44	4.56	24.00	13.36	4.86	18.22

2.8 2019학년도 국제학생(학부생) 대상 정규 교양교과목 개설 현황

2019학년도 대학별 국제학생 대상 정규 교양교과목 개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에 응답한 대학은 59개교였다.

<표 II-32> 국제학생 대상 정규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에 대한 응답대학 명 (59개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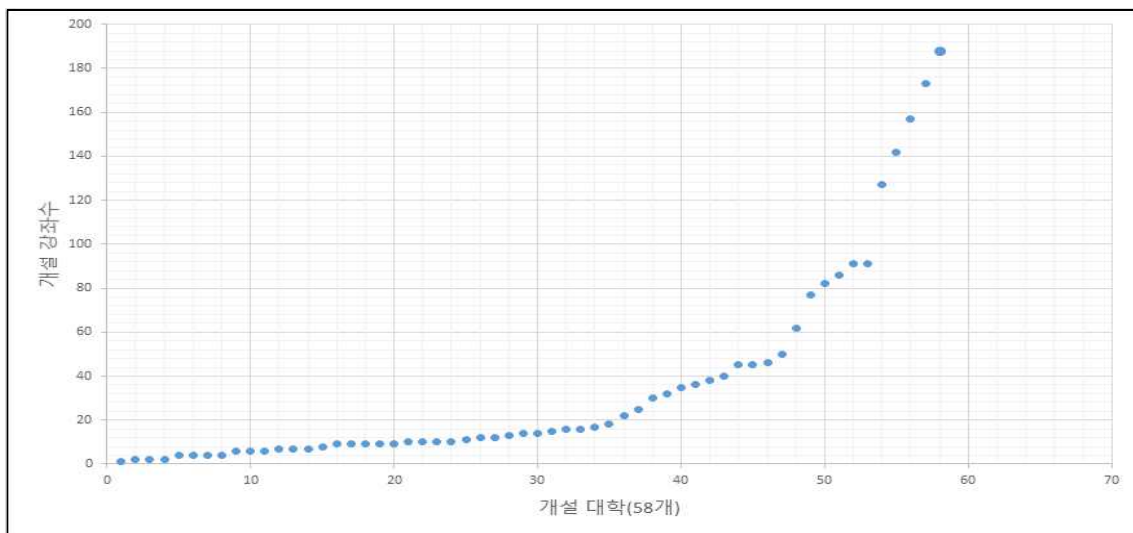
응답 대학
가톨릭관동대, 강남대, 건국대, 건양대, 경남대, 경동대, 경북대, 경성대, 경희대, 광운대, 극동대, 금오공과대, 김천대, 남서울대, 단국대(천안), 단국대, 대구한의대, 덕성여대, 동국대(경주), 동서대, 동아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대, 부경대(개설 강좌수 미응답), 부산대, 부산외대, 삼육대, 상명대, 상지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여대, 서원대, 선문대, 세명대, 세종대, 수원대, 송실대, 안동대, 안양대, 영남대, 예원예대, 용인대, 원광대, 을지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창신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항공대, 한동대, 한림대, 한성대, 협성대, 호서대

2019학년도 대학별 국제학생 대상 정규 교양교과목 개설 현황 문항에 응답한 59개 대학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각 대학에서 개설하는 국제학생 대상 정규 교양 교과목의 학점은 0학점, 1학점, 2학점, 3학점, 4학점, 6학점, 9학점, 12학점으로 다양했는데, 대부분의 대학은 교과목별로 3학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표 II-33> 학기별 국제학생 대상 개설 교양 교과목 수 현황

학기	개설 교과목 수(59개 대학)				개설 강좌 수(58개 대학)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1학기	575	1	41	9.75	1,008	1	88	17.38
2학기	540	0	26	9.15	1,025	0	100	17.67
연간	1,115	0	67	19.90	2,033	0	188	35.05

국제학생 대상 개설 교양 교과목의 수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연간 67개 교과목을 개설하였으며, 강좌를 가장 많이 개설 대학은 연간 188개 강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학생 대상 교양 교과목 개설 강좌 수는 연간 1개 강좌부터 188개 강좌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데, 이 가운데 5개 대학이 연간 120개 강좌 이상을 개설하고 있다.



[그림 II-07] 대학별 국제학생 대상 교양 교과목 개설 강좌 수 분포도

국제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정규 교양 교과목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 의사소통(글쓰기, 사고와 표현, 의사소통 등) 교과목이 전체 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한국문화 교과목이 그 다음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II-34> 국제학생 대상 교양 교과목 유형

연번	교과목 유형	과목 수	비율(%)
1	한국어 의사소통(글쓰기·사고와 표현·소통 등)	381	48.11
2	한국문화	81	10.23
3	사회·문화·심리	60	7.58
4	역사·철학·종교	46	5.81
5	수학·물리·생물·지구과학·환경	32	4.04
6	외국어	27	3.41
7	정치·경제	25	3.16
8	문학·예술	24	3.03
9	융복합	24	3.03
10	IT·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기술	21	2.65
11	인성·리더십	21	2.65
12	진로·취창업	19	2.40
13	건강·체육	7	0.88
14	한국어와 문화	5	0.63
15	기타	19	2.40
	총합	792	100.00

2.9 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응답한 대학은 79개교였다. 이들 대학에서는 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을 평균 1.70개, 글쓰기 프로그램을 2.77개, 기초수학과학(BSM) 프로그램을 1.29개,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3.68개, 기타 프로그램을 25.22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²⁸⁾ 가장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기타 프로그램은 학습법 특강이나 기초학습 튜터링 등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이나 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정보처리 및 SW 능력 향상 프로그램, 독서토론대회, 지역사회 봉사활동, 인성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특강, 음악회, Brown Bag Lecture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28) 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교과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표 II-37>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 따라서는 누락된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II-35> 비교과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유형	총계	평균	표준편차	유형별 빈도율	응답대학수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134	1.70	2.11	8.94%	79
글쓰기 프로그램	219	2.77	2.70	14.57%	79
기초수학과학(BSM) 프로그램	102	1.29	1.80	6.79%	79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	291	3.68	11.42	19.36%	79
기타 프로그램	756	9.57	25.22	50.34%	79
총계	1,502	19.01	43.25	100.00%	



[그림 II-08] 비교과 프로그램 현황

비교과 프로그램을 대학 설립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 모두 기타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제외하면 국립대학에서는 글쓰기 프로그램이, 사립대학에서는 어학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었다.

<표 II-36> 대학 설립 유형별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현황 (수)

프로그램 유형	국립	사립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1.56	1.74
글쓰기 프로그램	3.11	2.67
기초수학과학(BSM) 프로그램	1.50	1.23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	1.89	4.21
기타 프로그램	9.39	9.62
총계	17.44	19.48

비교과 프로그램을 대학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우선 서울 지역의 대학에서는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과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운영 개수가 같았고(2.75개), 글쓰기 프로그램 또한 평균 2.44개를 운영하고 있어서 3개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게 운영됨을 알 수 있었다. 경기·인천 소재 대학의 경우, 기타 프로그램이 3.91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1.77개, 글쓰기 프로그램이 1.32개였으며,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이 0.64개로 가장 적었다. 영남권 대학의 경우에는 기타 프로그램이 13.39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4.44개로 많았다. 호남제주권은 글쓰기 프로그램이 6.25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 5.13개, 기타 프로그램 4.28개였다. 강원충청권은 기타 프로그램이 4.04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글쓰기 프로그램이 2.90개였으며, 기초수학과학프로그램이 1.79개로 3위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비교과 프로그램은 권역별로 뚜렷한 특색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에서 운영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면,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글쓰기 프로그램의 운영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 -37> 권역별(2차)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현황

프로그램 유형	서울	경기·인천	영남권	호남제주권	강원충청권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2.75	0.64	1.22	1.63	1.39
글쓰기 프로그램	2.44	1.32	1.94	6.25	2.90
기초수학과학(BSM) 프로그램	0.75	0.95	0.95	0.75	1.79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	2.75	1.77	4.44	5.13	1.55
기타 프로그램	8.19	3.91	13.39	4.38	4.04
총계	16.88	8.59	21.92	18.13	11.67

<표 II -38> 권역별(3차)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현황

프로그램 유형	수도권	비수도권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1.34	1.34
글쓰기 프로그램	1.69	3.34
기초수학과학(BSM) 프로그램	0.89	0.96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	2.10	3.60
기타 프로그램	5.34	7.45
총계	11.35	16.68

2.10 교양교육과정 편성 영역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대학 교양기초교육 표준 모델」에서는 대학의 교양기초교육 영역을 기초교육과 교양교육, 소양교육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기초교육은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한 기초지식 및 기본적인 지적·언어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가리키고, 교양교육은 교양교육과정의 본령으로, 인간·사회·자연에 대한 학문적 탐구 성과를 두루 습득함으로써 이 주제 영역에서 제기되는 여러 근본 문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이를 토대로 나름대로

그에 대한 식견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인간관, 세계관, 가치관의 정립을 목표로 한다. 소양교육은 포괄적 의미에서의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학문 탐구의 궁극 목적이 되기도 하고 그 전제가 되기도 한다.

교양기초교육 영역에 대한 이와 같은 구분 및 개념 규정을 기준으로 요람을 제출한 74개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편성 영역을 분석한 결과, 대학의 상황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3개 영역의 개념 및 범주를 교양교육과정 편성에 모두 반영하고 있는 대학은 74개교 가운데 14개교(18.92%)에 불과하였다. 기초교육과 교양교육, 소양교육 가운데 2개 영역의 개념 및 범주를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는 대학은 13개교(17.57%)였으며, 1개 영역의 개념과 범주를 반영하고 있는 대학은 20개교(27.03%), 하나도 반영하고 있지 않은 대학은 27개교(36.48%)였다.

<표 II-39> 교양교육과정 편성 시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반영 정도

기초교육/교양교육/소양교육 개념과 범주의 대학 교양교육과정 반영 정도					
반영 정도	반영하지 않음	1개만 반영	2개만 반영	3개 모두 반영	계
학교 수(개교)	27	20	13	14	74
비율(%)	36.48	27.03	17.57	18.92	100.00

기초교육과 교양교육, 소양교육 3개 분야 가운데 각 대학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영역은 교양교육 영역(55.41%)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학문적 전통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고, 그와 관련한 교양 교과목을 개설해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소양교육 영역(24.32%)은 그 개념과 범주를 상대적으로 가장 느슨하게 반영하고 있는 영역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각 대학마다 각종 재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취·창업 교육이 교양교육과정 속에 자리 잡게 되고 실용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소양교육 분야의 교육과정 편성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운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II-40> 교양교육과정 편성 시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의 영역별 반영 현황

구분	기초교육	교양교육	소양교육	계
반영 학교 수(개교)	30	41	18	74
비율(%)	40.54	55.41	24.32	100.00

3.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현황, 교원 유형별 담당 강좌 수, 강좌 규모, 온라인 교과목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3.1 2018~2019학년도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2018학년도 1,2학기 2019학년도 1,2학기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학년도에 비해 2019학년도의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아래 <표 II-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비전임교원의 수가 그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II-41> 학기별 평균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명수)

학기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총계 (명)
	정년 트랙	비정년 트랙	계	초빙	겸임	산학 중점	강사	기타	계	
2018-1	92.53	32.12	124.65	17.32	5.67	0.51	69.64	13.88	107.01	231.67
2018-2	79.32	30.97	110.30	15.09	5.27	0.55	66.65	13.28	100.85	211.15
2019-1	96.33	33.99	130.32	16.65	7.35	0.57	57.04	13.24	94.63	224.95
2019-2	82.91	31.46	114.36	14.86	7.35	0.51	52.85	12.07	87.65	20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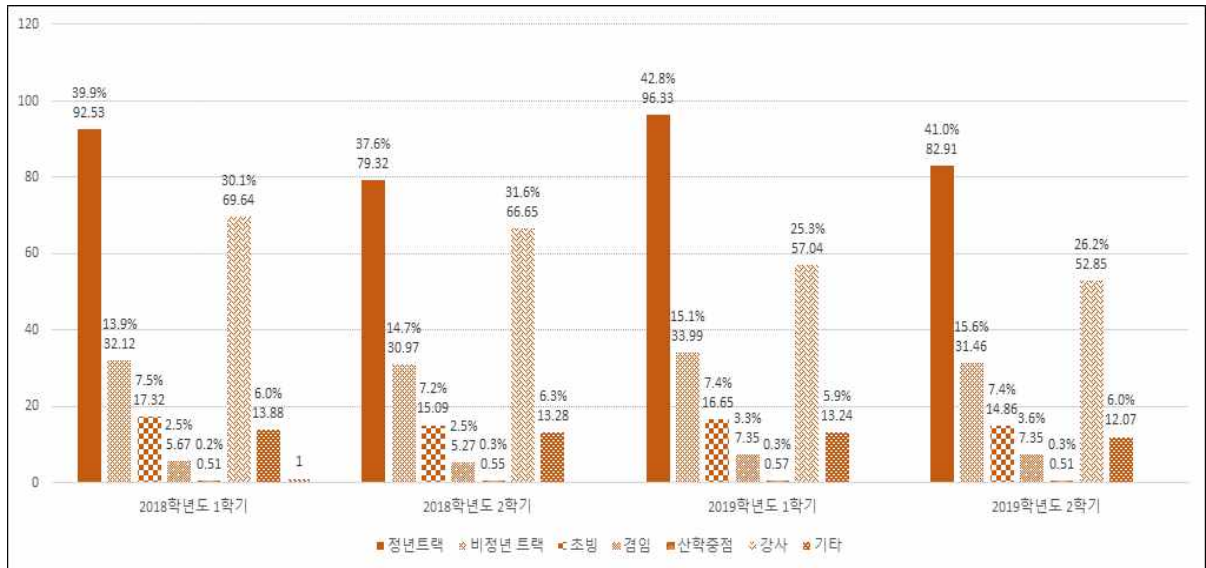
교양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학기별로 개설되는 교과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수를 비교할 때에는 동일 학기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2018학년도와 2019학년을 비교할 때,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수는 조사 대상 84개 대학 전체에서 1학기에 평균 5.67명 증가하였고 2학기에는 평균 4.06명 증가하였다. 반면 비전임교원은 같은 시기 1학기에 평균 12.38명 감소하였고, 2학기에는 평균 13.20명 감소하였다. 비전임교원의 경우 겸임교원의 수가 학기별로 평균 1.68명, 2.08명씩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큰 폭의 감소폭을 보인 것은 강사 수의 변동 때문이다.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는 1학기에 평균 12.60명, 2학기에는 평균 13.80명 감소하였다.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사이에 나타난 이와 같은 변화는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강사법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한편 2019학년도 2학기에 교양 교과목을 담당한 교원을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나누어 볼 때 각각 56.61%, 43.39%를 차지하였다. 2019학년도 1학기에도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비율은 57.87%와 42.13%로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9학년도의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비율을 한 해 전인 2018학년도 1, 2학기과 비교해 보면 전임교원의 비율이 학기별로 4.07% 포인트와 4.37% 포인트 증가하였고, 강사의 비율은 학기별로 12.60% 포인트와

13.80% 포인트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강사법 시행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표 II-42> 학기별 평균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비율: %)

학기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총계 (비율)
	정년 트랙	비정년 트랙	계	초빙	겸임	산학 중점	강사	기타	계	
2018-1	39.94	13.86	53.80	7.48	2.45	0.22	30.06	5.99	46.20	100.00
2018-2	37.57	14.67	52.24	7.15	2.50	0.26	31.56	6.29	47.76	100.00
2019-1	42.78	15.09	57.87	7.40	3.26	0.25	25.33	5.89	42.13	100.00
2019-2	41.04	15.57	56.61	7.36	3.64	0.25	26.16	5.97	43.39	100.00



[그림 II-09] 학기별 평균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 현황을 대학 규모별로 살펴보면 <표 II-45>와 같다.

<표 II-43> 대학 규모별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명수)

규모	학기	전임교원		비전임					총계 (명)
		정년 트랙	비정년 트랙	초빙	겸임	산학 중점	강사	기타	
2천명 미만	2018-1	16.63	4.31	1.69	0.50	0.00	28.13	1.19	52.45
	2018-2	15.75	4.31	1.63	0.69	0.00	26.81	1.25	50.44
	2019-1	16.69	4.50	1.81	1.06	0.00	26.94	1.50	52.50
	2019-2	16.38	4.06	2.31	1.06	0.00	23.94	1.87	49.63
2천명 이상 ~ 5천명 미만	2018-1	33.83	15.25	2.42	3.25	0.08	37.58	4.17	96.58
	2018-2	30.17	15.67	2.50	3.50	0.08	36.75	3.67	92.34
	2019-1	34.58	16.08	3.33	4.00	0.00	31.83	4.58	94.40
	2019-2	34.25	16.67	3.33	3.75	0.00	34.50	4.00	96.50
5천명 이상 ~ 1만명 미만	2018-1	106.84	35.03	12.25	5.69	0.78	63.94	11.44	235.97
	2018-2	94.68	35.00	12.35	5.03	0.94	63.97	11.19	223.16
	2019-1	115.84	38.31	12.58	6.72	0.94	47.94	11.66	233.99
	2019-2	104.74	35.65	13.32	7.68	0.84	40.06	10.65	212.94
1만명 이상 ~ 2만명 미만	2018-1	123.33	49.28	30.50	7.00	0.28	90.39	21.83	322.61
	2018-2	94.89	43.94	22.94	6.50	0.22	82.28	21.56	272.33
	2019-1	121.78	49.94	30.11	10.22	0.22	73.17	19.89	305.33
	2019-2	87.17	44.11	23.11	8.56	0.17	76.72	18.33	258.17
2만 명 이상	2018-1	185.60	37.00	60.60	14.40	1.40	193.60	45.20	537.80
	2018-2	170.00	38.40	53.20	13.80	1.40	181.00	39.20	497.00
	2019-1	178.80	38.60	46.40	18.40	1.80	182.00	39.20	505.20
	2019-2	176.80	40.20	39.00	19.80	1.80	152.80	33.60	464.00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의 수를 대학 규모와 유형을 동시에 고려하여 살펴보면 몇 가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대학의 규모가 ① 5천명 미만, ② 5천명 이상-2만 명 미만, 그리고 ③ 2만 명 이상, 이렇게 3단계에 따라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수가 급격한 격차를 보이며 증가한다.²⁹⁾ 반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학교 규모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2만 명 이상 대규모 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수가 5천명 이상 1만 명 미만의 중규모 대학 또는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의 대규모

29)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현 단계에서는 추론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모 대학보다 적다. 이같은 결과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대학의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지 학교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비전임교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만 2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과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의 중소규모 대학의 비전임교원 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소규모 대학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교양 교과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이상의 교원(비전임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전임교원 중 강사와 기타(대우교수, 연구교수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진 비전임교원)에 속하는 교원의 수는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에서 급격히 증가한다.

<표 II-44> 설립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구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총계 (수)	
	정년 트랙	비정년 트랙	계	초빙	겸임	산학 중점	강사	기타	계		
국 립	2018-1	108.00	16.64	124.64	20.09	2.55	0.45	141.64	4.73	169.45	294.09
	비율	36.72	5.66	42.38	6.83	0.87	0.15	48.16	1.61	57.62	100.00
	2018-2	92.55	12.73	105.27	11.91	2.09	0.45	125.36	5.00	144.82	250.09
	비율	37.00	5.09	42.09	4.76	0.84	0.18	50.13	2.00	57.91	100.00
	2019-1	106.09	18.73	124.82	21.50	2.64	0.36	139.73	4.45	168.68	293.50
	비율	36.15	6.38	42.53	7.33	0.90	0.12	47.61	1.52	57.47	100.00
	2019-2	91.73	14.73	106.45	11.36	1.73	0.27	127.09	5.73	146.18	252.64
	비율	36.31	5.83	42.14	4.50	0.68	0.11	50.31	2.27	57.86	100.00
사 립	2018-1	89.88	34.78	124.66	16.84	6.20	0.52	57.27	15.45	96.28	220.94
	비율	40.68	15.74	56.00	7.62	2.81	0.23	25.92	6.99	44.00	100.00
	2018-2	77.01	34.16	111.17	15.65	5.83	0.57	56.40	14.73	93.17	204.35
	비율	37.69	16.72	54.00	7.66	2.85	0.28	27.60	7.21	46.00	100.00
	2019-1	94.66	36.61	131.27	15.89	8.16	0.61	42.83	14.75	82.23	213.50
	비율	44.34	17.15	61.00	7.44	3.82	0.29	20.06	6.91	39.00	100.00
	2019-2	81.37	34.38	115.75	15.48	8.33	0.56	39.89	13.17	77.43	193.17
	비율	42.12	17.80	60.00	8.01	4.31	0.29	20.65	6.82	40.00	100.00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원 비율이 증가하였지만,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국립대학은 학기별로 볼 때 2018년 1학기보다 2019년 1학기에 0.15% 포인트 증가하였고, 2018년 2학기보다 2019년 2학기에 0.05% 포인트 증가하였다. 사립대학은 2018년 1학기보다 2019년 1학기에 5.00% 포인트 증가하였고, 2018년 2학기보다 2019년 2학기에 6.00% 포인트 증가하였다.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비율은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이 높다. 교양 교과목의 전임교원 담당 비율이 국립대학은 2019년 2학기 기준 42.14%인 반면, 사립대학은 60.00%였다.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비율 중에서도 특히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비율은 국립

대학보다 사립대학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4학기 동안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비율이 5.09~6.38%인 반면, 사립대학은 15.74~17.80%였으며, 사립대학은 매 학기 지속적으로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는 비전임교원 중에서도 특히 강사의 비율은 최근 2년 사이에 사립대학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4학기 동안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의 비율이 0.5% 포인트 안팎의 미미한 증감이 있었던 반면, 사립대학에서는 최고 27.60%에서 최저 20.65%로 6.95% 포인트 감소하였다.

<표 II-45> 권역별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수)

권역	학기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총계 (수)
		정년트랙	비정년트랙	초빙	겸임	산학중점	강사	기타	
서울	2018-1	69.56	31.00	31.28	7.61	1.00	68.44	29.78	238.67
	2018-2	53.65	31.82	26.94	7.06	1.12	70.06	30.06	220.71
	2019-1	72.88	33.71	24.94	10.59	1.35	56.24	26.65	226.36
	2019-2	51.29	32.12	23.47	10.82	1.18	52.65	25.00	196.53
경기	2018-1	36.15	22.08	5.31	3.77	0.23	38.92	9.31	115.77
	2018-2	31.69	22.08	4.77	4.46	0.15	37.38	10.15	110.68
인천	2019-1	33.23	22.69	8.62	4.62	0.08	33.31	9.62	112.17
	2019-2	31.54	22.38	8.46	4.85	0.08	31.54	8.85	107.7
영남권	2018-1	85.36	33.45	10.77	5.05	0.27	72.36	6.09	213.35
	2018-2	85.40	34.95	12.15	5.15	0.40	70.85	7.00	215.9
	2019-1	89.25	35.05	12.21	7.00	0.25	59.95	6.80	210.51
	2019-2	87.95	36.10	10.75	7.50	0.20	51.45	6.35	200.3
호남제주권	2018-1	88.89	26.89	15.11	2.22	0.00	55.33	5.22	193.66
	2018-2	91.00	26.57	9.71	3.29	0.00	45.71	4.29	180.57
	2019-1	107.86	37.86	23.14	2.57	0.14	61.00	4.00	236.57
	2019-2	85.71	26.57	11.29	1.86	0.00	49.29	5.71	180.43
강원충청권	2018-1	135.19	29.62	14.05	5.24	0.52	81.62	10.29	276.53
	2018-2	129.47	34.06	16.82	5.06	0.71	89.29	10.00	285.41
	2019-1	167.44	39.72	16.78	8.50	0.72	70.17	13.94	317.27
	2019-2	146.71	34.29	17.47	7.88	0.76	72.47	10.94	290.52

학기별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 현황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인천 소재 대학의 담당 교원 수가 특히 적고, 강원충청권 대학의 담당 교원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권역별 교양교과목 담당 교원의 학기별 변동 상황을 보면, 서울, 경기·인천, 영남권은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총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호남제주권과 강원충청권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호남제주권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강사의 수가 모두 증가하였으므로 총 인원 수도 증가했는데 비해, 강원충청권은 강사 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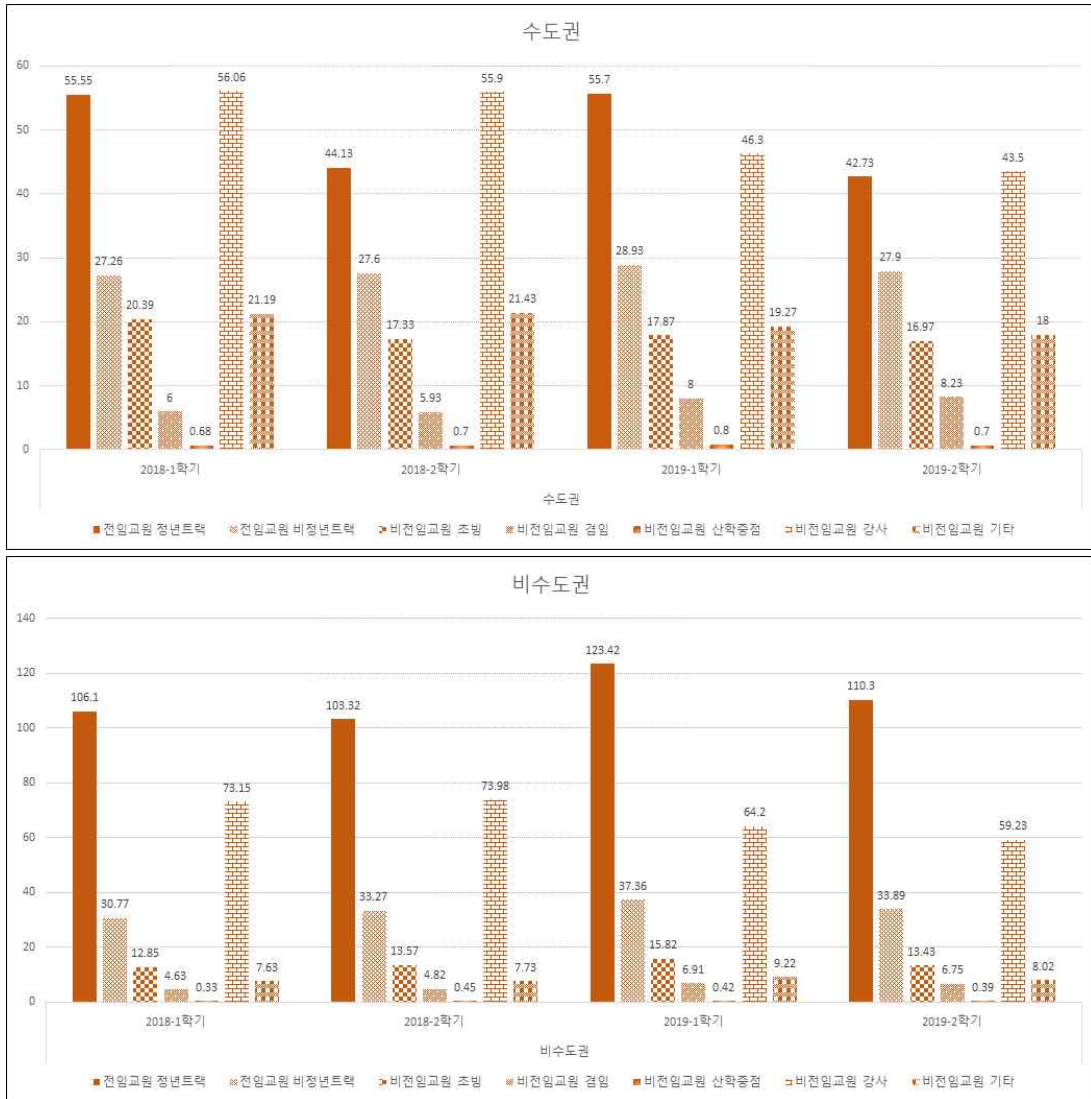
감소한 반면 전임 교원의 수가 확연히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다소 증가한 반면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1학기에 32.25명, 2학기에 17.24명이 증가하여 다른 권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³⁰⁾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 현황을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46>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권역	학기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총계 (수)
		정년트랙	비정년트랙	초빙	겸임	산학중점	강사	기타	
수도권	2018-1	55.55	27.26	20.39	6.00	0.68	56.06	21.19	187.13
	2018-2	44.13	27.60	17.33	5.93	0.70	55.90	21.43	173.02
	2019-1	55.70	28.93	17.87	8.00	0.80	46.30	19.27	176.87
	2019-2	42.73	27.90	16.97	8.23	0.70	43.50	18.00	158.03
비수도권	2018-1	106.10	30.77	12.85	4.63	0.33	73.15	7.63	235.46
	2018-2	103.32	33.27	13.57	4.82	0.45	73.98	7.73	237.14
	2019-1	123.42	37.36	15.82	6.91	0.42	64.20	9.22	257.35
	2019-2	110.30	33.89	13.43	6.75	0.39	59.23	8.02	232.01

30) 이것의 원인은 현 단계에서는 추론하기 어려우므로 더 자세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림 II-10] 권역별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학기별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 현황을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비수도권 대학이 전임교원(정년트랙, 비정년트랙)과 비전임교원 모두 큰 차이로 많은 것이 나타난다. 총 인원수는 비수도권 대학의 담당 교원이 1.38배 많았고,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2.23배 많았다. 강사의 경우에도 모든 학기에서 비수도권 대학의 강사 수가 수도권 대학 강사 수의 1.5배가량 많았다.

3.2 2018~2019학년도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수

2018학년도 1,2학기과 2019학년도 1,2학기의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수를 비교해 보면,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강좌 수는 감소한 반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강좌 수는 증가하였다. 비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초빙, 겸임, 산학, 기타 등 강사를 제외한 비전임교원의 강

좌 수는 대부분 증가하였으나, 강사의 강좌 수는 감소하였다.

<표 II-47> 학기별 평균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수

학기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총계(수)
	정년트랙	비정년트랙	초빙	겸임	산학중점	강사	기타	
2018-1	207.53	99.46	44.94	9.93	0.86	119.40	21.36	510.32
2018-2	186.33	97.39	41.79	10.12	0.85	115.05	20.91	475.45
2019-1	204.17	108.23	46.14	12.11	0.99	105.31	23.63	538.13
2019-2	176.76	105.43	43.34	11.55	0.96	89.88	19.65	486.61

이와 같은 현상은 교원 유형별 담당 강좌 비율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II-48> 학기별 평균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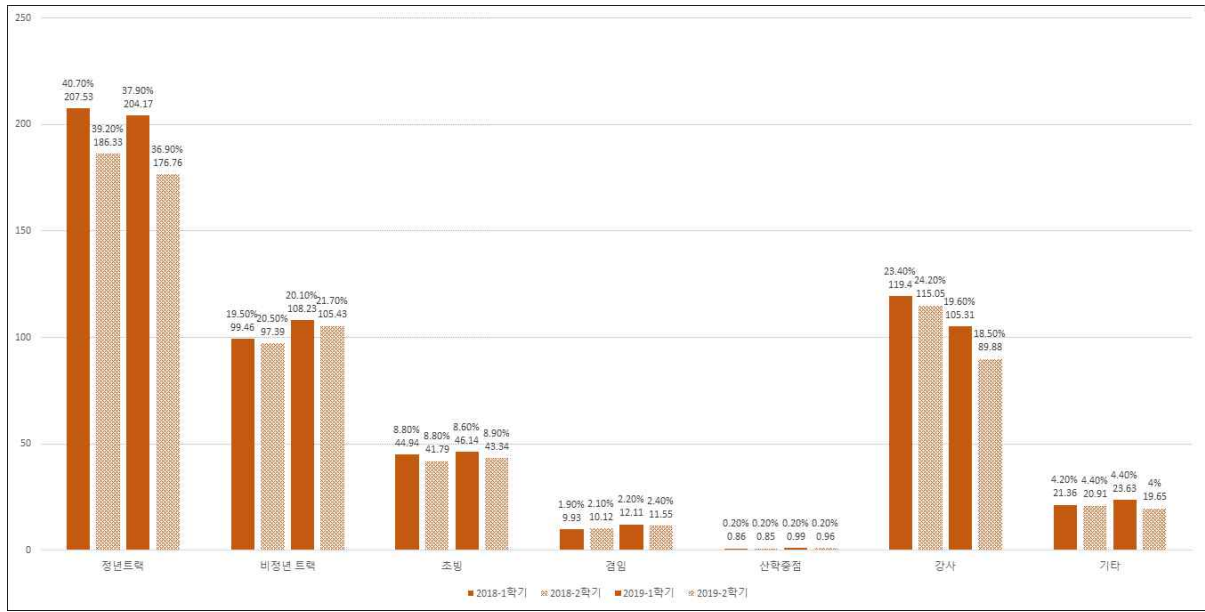
학기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총계(비율)
	정년트랙	비정년트랙	초빙	겸임	산학중점	강사	기타	
2018-1	40.7	19.5	8.8	1.9	0.2	23.4	4.2	100.0
2018-2	39.2	20.5	8.8	2.1	0.2	24.2	4.4	100.0
2019-1	37.9	20.1	8.6	2.2	0.2	19.6	4.4	100.0
2019-2	36.9	21.7	8.9	2.4	0.2	18.5	4.0	100.0

전임교원의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비율을 학기별로 비교하면,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비율은 2018학년도 1학기 40.7%에서 2019학년도 1학기 37.9%로 2.8% 포인트 감소하였고, 2018학년도 2학기 39.2%에서 2019학년도 2학기 36.9%로 2.3% 포인트 감소하였다. 반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비율은 2018학년도 1학기 19.5%에서 2019학년도 1학기 20.1%로 0.6% 포인트 증가하였고, 2018학년도 2학기 20.5%에서 2019학년도 2학기 21.7%로 1.2% 포인트 증가하였다.

비전임교원의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비율을 학기별로 비교해보면, 초빙, 산학중점, 기타 교원의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거의 차이가 없었다. 겸임교원의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비율은 1학기 2.1%에서 2학기 2.4%로 0.3% 포인트 증가하였다. 반면 강사는 2018년 1학기 23.4%에서 2019년 1학기 19.6%로 3.8% 포인트 감소하였고, 2018년 2학기 24.2%에서 2019년 2학기 18.5%로 5.7% 포인트 감소하였다.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수를 대학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교원의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수는 전반적으로 대학 규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유형이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강좌 수로,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담당 강좌 수가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의 대규모 대학보다 작으며, 5천명 이상 1만 명 미만 중규모 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강좌 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산학 중점 교원의 경우에는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 대규모 대학의 강좌 수가

5천명 이상 1만 명 미만 대규모 대학이나 2만 명 이상 대규모 대학보다 눈에 띄게 적다. 기타 교원의 수는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 대규모 대학과 2만 명 이상 대규모 대학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림 II-11] 학기별 평균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표 II-49> 규모별 평균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수

구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총계 (수)		
	정년트랙	비정년트랙	초빙	겸임	산학중점	강사		기타	
2천명 미만	2018-1	28.50	7.75	8.19	0.94	0.00	40.94	4.25	90.56
	2018-2	29.38	8.50	7.81	1.00	0.00	37.31	3.88	87.88
	2019-1	30.94	8.56	8.06	1.81	0.00	39.63	4.69	93.69
	2019-2	31.69	8.75	9.31	1.50	0.00	32.75	4.75	88.75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	2018-1	82.58	64.08	8.50	4.92	0.08	68.08	7.50	235.75
	2018-2	77.58	63.75	8.83	5.67	0.08	63.75	7.42	227.08
	2019-1	81.67	69.42	11.33	6.83	0.00	62.00	10.08	241.33
	2019-2	80.42	74.83	10.58	6.58	0.00	63.08	7.75	243.25
5천명 이상 ~1만 명 미만	2018-1	219.42	123.30	22.97	8.45	1.36	115.39	21.18	512.08
	2018-2	187.16	115.80	21.24	8.27	1.48	109.55	22.45	465.96
	2019-1	219.45	122.30	23.06	10.58	1.55	91.45	22.67	491.05
	2019-2	202.70	120.48	25.22	11.81	1.97	76.81	22.22	461.21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	2018-1	358.56	173.25	77.31	22.06	0.56	166.31	19.94	818.00
	2018-2	314.61	164.61	69.83	19.78	0.44	170.56	20.17	760.00
	2019-1	338.06	190.24	92.88	21.41	0.53	154.35	24.29	821.76
	2019-2	265.29	184.76	78.76	18.88	0.47	139.12	19.53	706.82
2만 명 이상	2018-1	470.67	98.83	250.33	19.67	2.67	328.17	99.50	1269.83
	2018-2	433.17	108.00	227.17	24.50	2.33	288.67	87.00	1170.83
	2019-1	452.83	149.00	211.83	32.17	3.83	304.33	104.67	1258.67
	2019-2	463.60	131.20	226.40	29.00	1.60	253.20	79.80	1184.80

대학 설립 유형을 기준으로 할 때,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 전임교원의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비율이 더 높다. 이는 <표 II-48>에서 살펴 본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의 전임교원이 교양 교과목 강의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2018학년도보다 2019학년도에 전임교원의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비율이 증가하였다. 교양 교과목의 강좌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담당 강좌 수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담당 비율은 증가하였다. 국립대학은 2018년 1학기 35.4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2학기에는 38.78%가 되었다. 사립대학은 비율만을 따져보면 좀 복잡한 양상을 보여서 2018년 2학기가 66.17%로 가장 낮고, 2019년 2학기는 69.43%로 가장 높다. 이러한 차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사립대학도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전임교원의 교양 교과목 강의 비율이 뚜렷하게 상승했음이 나타난다. 국립대학은 약 3.34% 포인트 증가하였고 사립대학은 3.26% 포인트 증가하였다.

전임교원 중에서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비율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2018학년도보다 2019학년도에 증가하였다. 국립대학은 2018년 1학기 4.1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2학기에는 5.45%가 되었다. 사립대학은 2018년 1학기 23.4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2학기는 27.77%로 높아졌다.

강사가 교양 교과목 강좌를 담당하는 비율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국립대학은 2018년 1학기 48.83%에서 2019년 2학기 44.34%로 4.49% 포인트 감소하였고 사립대학은 2018년 1학기 17.57%에서 2019년 2학기 13.85%로 3.77% 포인트 감소하였다.

<표 II-50> 설립 유형별 평균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수와 비율

구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총계 (수)	
	정년트랙	비정년트랙	소계	초빙	겸임	산학중점	강사	기타		
국립	2018-1	128.60	16.84	145.44	47.05	6.65	0.60	200.35	10.25	410.34
	비율	31.34	4.10	35.44	11.47	1.62	0.15	48.83	2.50	100
	2018-2	122.62	16.45	139.07	44.00	6.52	0.52	186.05	10.14	386.31
	비율	31.74	4.26	36	11.39	1.69	0.13	48.16	2.62	100
	2019-1	139.60	20.42	160.02	57.70	3.15	0.45	204.25	10.80	436.37
	비율	31.99	4.68	36.67	13.22	0.72	0.10	46.81	2.47	100
	2019-2	123.05	20.11	143.16	48.75	2.10	0.55	163.70	10.90	369.16
	비율	33.33	5.45	38.78	13.21	0.57	0.15	44.34	2.95	100
사립	2018-1	233.41	125.20	358.61	44.27	10.97	0.94	93.70	24.89	533.37
	비율	43.76	23.47	67.23	8.30	2.06	0.18	17.57	4.67	100
	2018-2	207.90	123.50	331.4	41.06	11.30	0.95	91.75	24.44	500.90
	비율	41.51	24.66	66.17	8.20	2.26	0.19	18.32	4.88	100
	2019-1	225.00	135.15	360.15	42.53	14.91	1.16	74.39	27.64	520.77
	비율	43.21	25.95	69.16	8.17	2.86	0.22	14.28	5.31	100
	2019-2	198.67	132.45	331.12	41.60	14.60	1.10	66.06	22.47	476.94
	비율	41.66	27.77	69.43	8.72	3.06	0.23	13.85	4.71	100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수와 비율을 권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수와 비율을 권역에 따라 분석해보면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1학기 2학기별로 비교해볼 때 서울, 경기·인천, 호남·제주권 대학에서는 작은 차이는 있지만 감소하는 반면, 영남권 대학에서는 미세하나마 증가하였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수가 서울, 영남권, 호남·제주권에서는 증가하였다. 강사의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수는 전국 어느 권역에서나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2018학년도 2019학년도까지의 4학기 중 2019년 2학기의 담당 강좌 수가 가장 작았다. 강사 수가 가장 많은 학기와 가장 적은 학기를 비교할 때, 서울 지역은 34.99명, 경기·인천 지역은 6.45명, 영남권은 61.81명, 호남·제주권은 35.17명, 강원·충청권은 19.78명 감소하였다.

〈표 II-51〉 권역별 평균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수

권역	학기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총계 (수)
		정년트랙	비정년트랙	초빙	겸임	산학중점	강사	기타	
서울	2018-1	236.80	94.33	101.20	21.53	2.27	110.47	50.13	616.73
	2018-2	185.19	115.88	85.94	20.63	2.13	119.06	44.06	572.88
	2019-1	213.75	118.31	79.25	25.88	2.81	99.38	54.31	593.69
	2019-2	183.43	111.64	85.29	22.57	2.21	84.07	44.93	534.14
경기· 인천	2018-1	51.85	50.10	8.00	3.05	0.32	47.59	9.95	170.86
	2018-2	55.70	39.05	7.14	3.41	0.27	45.27	11.82	162.66
	2019-1	47.90	47.95	12.09	3.45	0.23	46.27	11.00	168.90
	2019-2	43.30	49.85	12.45	3.55	0.23	41.14	9.45	159.97
영남권	2018-1	189.33	71.24	76.33	6.20	0.79	172.00	11.22	521.11
	2018-2	176.96	69.22	68.08	5.60	0.46	146.83	11.31	478.46
	2019-1	189.88	80.30	78.73	6.45	0.79	147.94	11.57	515.65
	2019-2	179.24	80.89	67.45	7.27	0.46	110.19	11.48	456.99
호남· 제주권	2018-1	178.42	55.08	39.42	4.58	0.00	115.50	14.83	407.83
	2018-2	151.25	56.00	37.92	6.46	0.00	92.79	14.58	359.00
	2019-1	176.67	62.96	48.58	4.00	0.13	101.79	12.04	406.17
	2019-2	149.33	62.33	47.42	3.96	0.00	80.33	15.75	359.12
강원· 충청권	2018-1	268.70	105.12	21.37	6.28	0.57	105.23	14.25	521.50
	2018-2	255.39	94.09	23.96	6.44	0.58	118.22	14.25	512.94
	2019-1	277.69	97.85	32.59	8.84	0.69	119.47	17.24	554.37
	2019-2	235.58	93.17	27.87	10.69	1.07	99.69	14.76	482.84

3.3 2018~2019학년도 개설된 교양교육과정 강좌별 규모

설문에 응답한 87개 일반대학에서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에 개설된 교양교육과정의 강좌 규모를 실제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주목되는 것은 1학과와 2학과 모두 교양교육

과정의 총 강좌 수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1학기에 개설된 강좌는 546.58개 강좌에서 511.86개 강좌로, 2학기에 개설된 강좌는 504.85개 강좌에서 474.51개 강좌로 각각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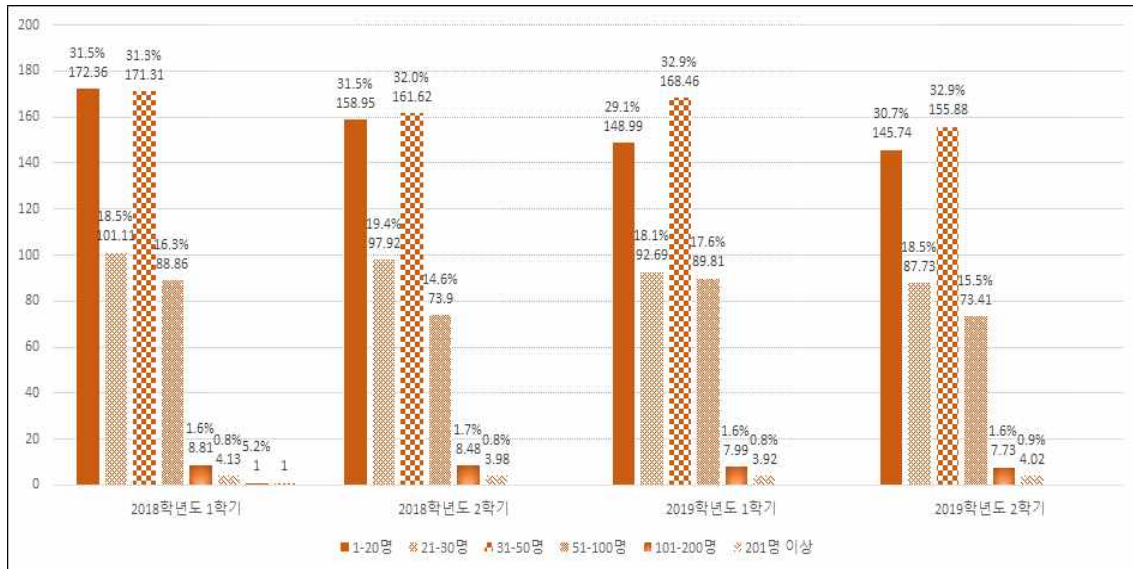
<표 II-52> 학기별 교양교육과정의 강좌 규모

학기	1-20명	21-30명	31-50명	51-100명	101-200명	201명 이상	총계(수)
2018-1	172.36	101.11	171.31	88.86	8.81	4.13	546.58
2018-2	158.95	97.92	161.62	73.90	8.48	3.98	504.85
2019-1	148.99	92.69	168.46	89.81	7.99	3.92	511.86
2019-2	145.74	87.73	155.88	73.41	7.73	4.02	474.51
계	626.04	379.45	657.27	325.98	33.01	16.05	2,037.80

2018학년도 1학기부터와 2019학년도 2학기까지 개설된 교양교육과정의 강좌 규모를 분석해 보면, 강좌 수의 전반적인 축소로 모든 규모의 강좌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0명 규모와 21-30명 규모의 소규모 강좌는 10% 이상 감소하여 2018년 1학기 대비 2019년 2학기 강좌 수가 각각 84.3%, 86.77%를 유지하는 반면, 201명 이상 강좌 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교양교육과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개설되는 강좌의 규모는 31-50명 규모의 강좌로, 4학기 동안 총 657.27개 강좌가 개설되어 교양교육과정에 개설된 전체 강좌 중에서 32.28%를 차지하였다.

<표 II-53> 학기별 교양교육과정 규모 별 강좌 비율

학기	1-20명	21-30명	31-50명	51-100명	101-200명	201명 이상	총계(비율)
2018-1	31.53	18.50	31.34	16.26	1.61	0.76	100
2018-2	31.49	19.40	32.01	14.64	1.68	0.78	100
2019-1	29.11	18.11	32.91	17.55	1.56	0.76	100
2019-2	30.71	18.49	32.85	15.47	1.63	0.85	100
평균	30.71	18.63	32.28	15.98	1.62	0.79	100.00



[그림 II-12] 학기별 교양교육과정 규모 별 강좌

교양교육과정의 강좌 규모가 대학의 규모에 따라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2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에서는 21-30명의 소규모 강좌가 가장 많이 개설되었고,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의 중소규모 대학에서는 31-50명의 강좌가 가장 많이 개설되었다. 또한 5천명 이상 1만 명 미만의 중규모 대학교에서는 1-20명의 소규모 강좌가 가장 많이 개설되었으며,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의 대규모 대학에서는 31-50명의 강좌가 가장 많이 개설되었다.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에서는 51-100명의 중대형 강좌가 가장 많이 개설되었다.

〈표 II-54〉 학교 규모별 교양교육과정 강좌 규모 (수, 비율)

구분		1-20명	21-30명	31-50명	51-100명	101-200명	201명 이상	총계
2천명 미만	2018-1	23.87	31.33	26.13	6.80	0.73	0.53	89.40
	비율	26.70	35.04	29.23	7.61	0.82	0.59	100
	2018-2	25.53	33.00	21.13	4.80	1.00	0.53	86.00
	비율	29.69	38.37	24.57	5.58	1.16	0.62	100
	2019-1	23.27	32.93	28.33	6.33	0.73	0.53	92.13
	비율	25.26	35.74	30.75	6.87	0.79	0.58	100
	2019-2	25.00	32.53	21.80	6.00	0.80	0.47	86.60
비율	28.87	37.56	25.17	6.93	0.92	0.54	100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	2018-1	70.27	48.18	101.18	32.00	3.18	2.45	257.27
	비율	27.31	18.73	39.33	12.44	1.24	0.95	100
	2018-2	74.17	54.67	85.33	27.33	4.00	2.42	247.92
	비율	29.92	22.05	34.42	11.02	1.61	0.98	100
	2019-1	65.25	49.33	106.58	32.00	3.33	2.33	258.83
	비율	25.21	19.06	41.18	12.36	1.29	0.90	100
	2019-2	68.33	57.83	94.75	25.58	2.50	2.33	251.33
비율	27.19	23.01	37.70	10.18	0.99	0.93	100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2018-1	238.85	102.76	170.82	81.12	9.74	3.88	607.18
	비율	39.34	16.92	28.13	13.36	1.60	0.64	100
	2018-2	213.53	104.44	155.00	64.85	9.03	3.59	550.44
	비율	38.79	18.97	28.16	11.78	1.64	0.65	100
	2019-1	207.82	94.64	185.15	83.00	8.12	3.21	581.94
	비율	35.71	16.26	31.82	14.26	1.40	0.55	100
	2019-2	211.59	93.53	172.16	69.31	7.41	3.19	557.19
비율	37.97	16.79	30.90	12.44	1.33	0.57	100	
1만명 이상~ 2만명 미만	2018-1	255.82	121.76	315.82	157.47	13.82	7.00	871.71
	비율	29.35	13.97	36.23	18.06	1.59	0.80	100
	2018-2	226.21	118.11	310.84	128.79	12.37	6.68	803.00
	비율	28.17	14.71	38.71	16.04	1.54	0.83	100
	2019-1	209.72	124.50	275.17	165.28	13.67	7.56	795.89
	비율	26.35	15.64	34.57	20.77	1.72	0.95	100
	2019-2	181.61	112.33	264.89	130.22	13.22	8.17	710.44
비율	25.56	15.81	37.29	18.33	1.86	1.15	100	
2만명 이상	2018-1	117.50	304.67	256.17	247.67	19.83	9.50	955.33
	비율	12.30	31.89	26.81	25.93	2.08	0.99	100
	2018-2	139.83	245.83	230.33	217.17	20.67	9.33	863.17
	비율	16.20	28.48	26.68	25.16	2.39	1.08	100
	2019-1	120.20	248.60	243.00	252.20	19.60	9.40	893.00
	비율	13.46	27.84	27.21	28.24	2.19	1.05	100

	2019-2	143.20	199.40	208.20	212.20	23.40	9.20	795.60
	비율	18.00	25.06	26.17	26.67	2.94	1.1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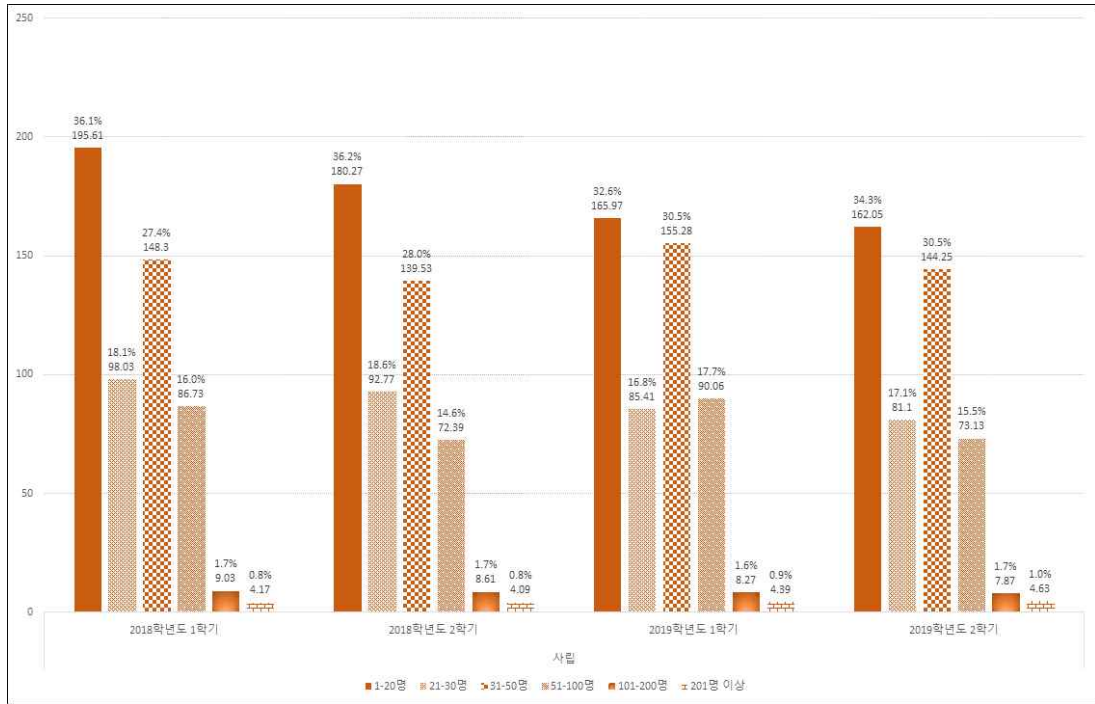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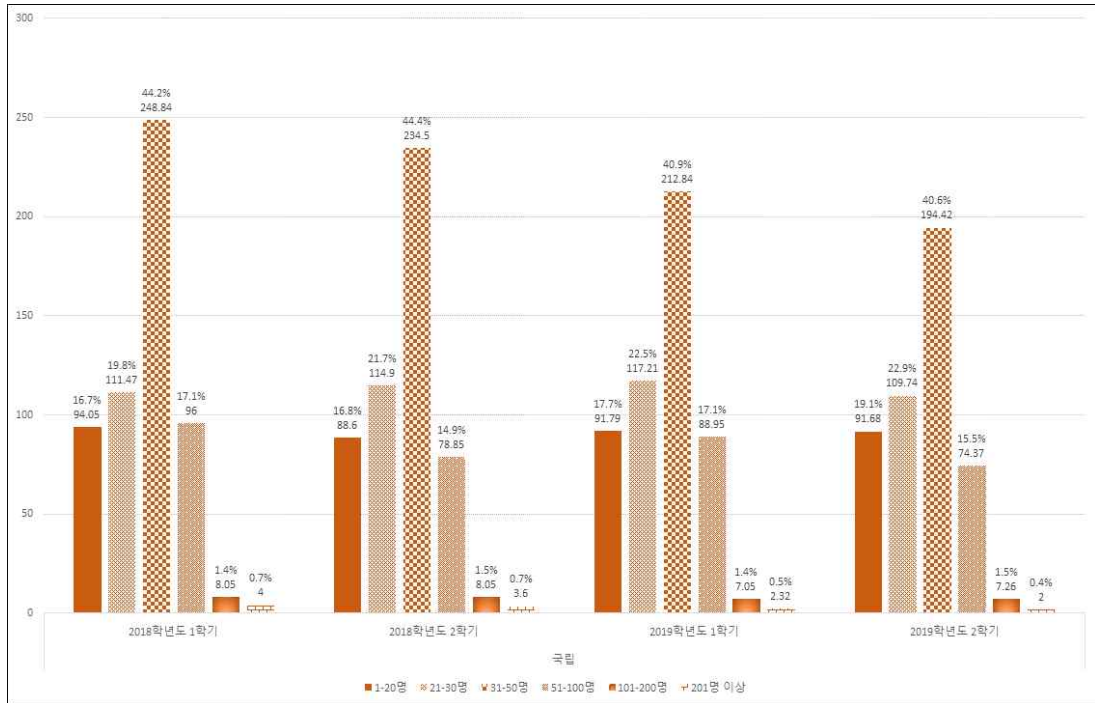
1-20명 규모의 소규모 강좌를 가장 많이 개설한 대학은 5천명 이상 1만 명 미만 규모의 대학으로, 지난 2년간 교양교육과정의 강좌 가운데 35.71%~39.43%의 강좌를 소규모 강좌로 개설하였다. 반면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은 1-20명 규모의 소규모 강좌를 12.30%~18.00% 개설하여 가장 적게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명 이상의 대규모 강좌는 학교 규모와 일정한 연관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01-200명의 대규모 강좌는 학교 규모와 일정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학기를 기준으로 할 때, 101-200명의 대규모 강좌는 2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에서 0.92%,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 중소규모 대학에서는 0.99%, 5천명 이상 1만 명 미만의 중규모 대학에서는 1.33%,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의 대규모 대학에서는 1.86%,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에서는 2.94% 개설되어 학교 규모가 커질수록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교양교육과정의 강좌 규모를 설립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1-20명 미만의 소규모 강좌가 차지하는 비율이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에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1-30명, 31-50명, 51-100명 규모의 강좌의 비율은 모두 국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높으며 101명 이상-200명, 그리고 201명 이상의 대규모 강좌 비율은 사립대학이 국립대학보다 높았다.

<표 II-55> 설립 유형별 교양교육과정 강좌 규모(수, 비율)

유형	학기	1-20명	21-30명	31-50명	51-100명	101-200명	201명 이상	총계
국립	2018-1	94.05	111.47	248.84	96.00	8.05	4.00	562.42
	비율	16.72	19.82	44.24	17.07	1.43	0.71	100
	2018-2	88.60	114.90	234.50	78.85	8.05	3.60	528.50
	비율	16.76	21.74	44.37	14.92	1.52	0.68	100
	2019-1	91.79	117.21	212.84	88.95	7.05	2.32	520.16
	비율	17.65	22.53	40.92	17.10	1.36	0.45	100
	2019-2	91.68	109.74	194.42	74.37	7.26	2.00	479.47
	비율	19.12	22.89	40.55	15.51	1.51	0.42	100
사립	2018-1	195.61	98.03	148.30	86.73	9.03	4.17	541.88
	비율	36.10	18.09	27.37	16.01	1.67	0.77	100
	2018-2	180.27	92.77	139.53	72.39	8.61	4.09	497.67
	비율	36.22	18.64	28.04	14.55	1.73	0.82	100
	2019-1	165.97	85.41	155.28	90.06	8.27	4.39	509.38
	비율	32.58	16.77	30.48	17.68	1.62	0.86	100
	2019-2	162.05	81.10	144.25	73.13	7.87	4.63	473.03
	비율	34.26	17.14	30.49	15.46	1.66	0.98	100



[그림 II-13] 학기별 교양교육과정 규모 별 강좌

한편 교양교육과정의 강좌별 규모를 지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 -56> 권역별(2차) 교양교육과정 강좌 규모(수, 비율)

권역	학기	1-20명	21-30명	31-50명	51-100명	101-200명	201명 이상	총계
서울	2018-1	132.38	126.56	134.19	88.00	11.81	5.69	498.63
	비율	26.55	25.38	26.91	17.65	2.37	1.14	100
	2018-2	111.53	109.65	138.82	85.82	11.53	5.12	462.47
	비율	24.12	23.71	30.02	18.56	2.49	1.11	100
	2019-1	118.75	105.31	130.19	92.44	12.06	7.00	465.75
	비율	25.50	22.61	27.95	19.85	2.59	1.50	100
경기·인천	2019-2	103.67	96.33	129.07	83.93	10.80	6.93	430.73
	비율	24.07	22.36	29.97	19.49	2.51	1.61	100
	2018-1	73.00	48.27	60.36	23.55	4.14	2.68	212.00
	비율	34.43	22.77	28.47	11.11	1.95	1.26	100
	2018-2	71.77	47.41	56.18	19.91	4.32	2.59	202.18
	비율	35.50	23.45	27.79	9.85	2.14	1.28	100
영남권	2019-1	61.23	47.86	67.32	23.73	3.50	1.91	205.55
	비율	29.79	23.28	32.75	11.54	1.70	0.93	100
	2019-2	64.59	43.18	62.91	20.68	3.32	1.86	196.55
	비율	32.86	21.97	32.01	10.52	1.69	0.95	100
	2018-1	189.78	102.02	174.97	129.87	6.14	4.25	607.02
	비율	31.26	16.81	28.82	21.39	1.01	0.70	100
호남·제주권	2018-2	172.51	95.99	150.72	109.13	8.00	4.05	540.41
	비율	31.92	17.76	27.89	20.19	1.48	0.75	100
	2019-1	164.65	101.49	140.04	131.96	4.91	4.15	547.20
	비율	30.09	18.55	25.59	24.12	0.90	0.76	100
	2019-2	158.56	94.68	125.20	103.13	8.17	3.81	493.55
	비율	32.13	19.18	25.37	20.90	1.66	0.77	100
강원·충청권	2018-1	51.54	63.67	170.96	108.50	6.79	1.54	403.00
	비율	12.79	15.80	42.42	26.92	1.68	0.38	100
	2018-2	55.33	74.17	136.38	79.00	8.33	1.50	354.71
	비율	15.60	20.91	38.45	22.27	2.35	0.42	100
	2019-1	44.42	68.21	168.42	102.88	9.50	1.13	394.54
	비율	11.26	17.29	42.69	26.08	2.41	0.29	100
강원·충청권	2019-2	51.00	64.00	143.96	79.83	8.38	1.42	348.58
	비율	14.63	18.36	41.30	22.90	2.40	0.41	100
	2018-1	218.44	81.94	163.95	76.09	9.94	2.00	552.37
	비율	39.55	14.83	29.68	13.78	1.80	0.36	100
	2018-2	204.24	82.10	173.71	61.14	8.86	2.14	532.19
	비율	38.38	15.43	32.64	11.49	1.66	0.40	100
강원·충청권	2019-1	185.76	80.36	214.93	74.25	8.10	2.09	565.49
	비율	32.85	14.21	38.01	13.13	1.43	0.37	100
	2019-2	173.06	73.88	190.83	64.87	7.20	2.94	512.79
	비율	33.75	14.41	37.21	12.65	1.40	0.57	100

교양교육과정의 강좌 규모를 지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학기당 변동 비율의 차이도 크기는 했지만 1-20명 미만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강원충청권이였다.(2019-2학기 기준 33.75%) 반면 1-20명 미만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2019년 2학

기 기준 24.07%였다. 서울, 호남제주권, 강원충청권의 대학은 31-50명 규모의 중규모 강좌를 많이 개설하였으며, 강원충청권 다음으로 1-20명 규모의 소규모 강좌를 많이 개설하는 지역은 경기·인천 지역의 대학과 영남권 대학들이었다. 또한 호남제주권의 대학들은 31-50명 규모와 51-100명 규모의 중대형 강좌를 많이 개설하고 있는 반면, 1-20명 미만의 소규모 강좌는 적게 개설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일반적으로 강좌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권역과 관계없이 시(市)에 소재한 대학보다 그렇지 않은 대학에서 1-20명 규모의 소규모 강좌를 2배 이상 많이 개설하고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57〉 지역별 교양교육과정 강좌 규모별 강좌의 수

유형	학기	1-20명	21-30명	31-50명	51-100명	101-200명	201명 이상	총계
시 소재 대학	2018-1	94.13	77.55	148.84	102.49	6.58	2.73	432.32
	2018-2	86.67	77.77	129.60	83.90	8.23	2.71	388.87
	2019-1	89.04	73.60	136.38	98.81	6.50	2.75	407.07
	2019-2	79.12	68.61	119.07	79.82	7.97	2.74	357.33
기타	2018-1	170.28	82.80	148.91	80.50	8.15	2.94	493.58
	2018-2	158.63	83.14	138.72	62.79	7.51	2.83	453.60
	2019-1	140.26	81.21	164.30	84.09	7.05	2.61	479.52
	2019-2	140.84	76.28	147.79	68.10	6.50	2.86	442.37

3.4 2018~2019학년도 온라인 교과목 개설 현황

교양 교과목의 온라인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하였는데(일반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 교육부 2018.12), 전체 87개 응답대학 가운데 온라인 교과목을 설강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학이 27.59%였으며, 온라인 교과목을 설강한 대학 중에서 온라인 교과목이 전체 교양 교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5.0%를 차지하는 경우가 49.71%로 가장 많았다.

〈표 II-58〉 온라인 교과목 운영 현황

학기	전체 교양 교과목 가운데 온라인 교과목이 차지하는 비율(%)						무응답
	없음	0.1-5.0	5.1-10.0	10.1-15.0	15.1-20.0	20.1 이상	
2018-1	25	44	6	6	2	1	3
2018-2	24	44	9	4	2	2	2
2019-1	23	44	9	6	2	1	2
2019-2	24	41	13	3	3	1	2
총계	96	173	37	19	9	5	9
비율(%)	27.59	49.71	10.63	5.49	2.59	1.44	2.59

4.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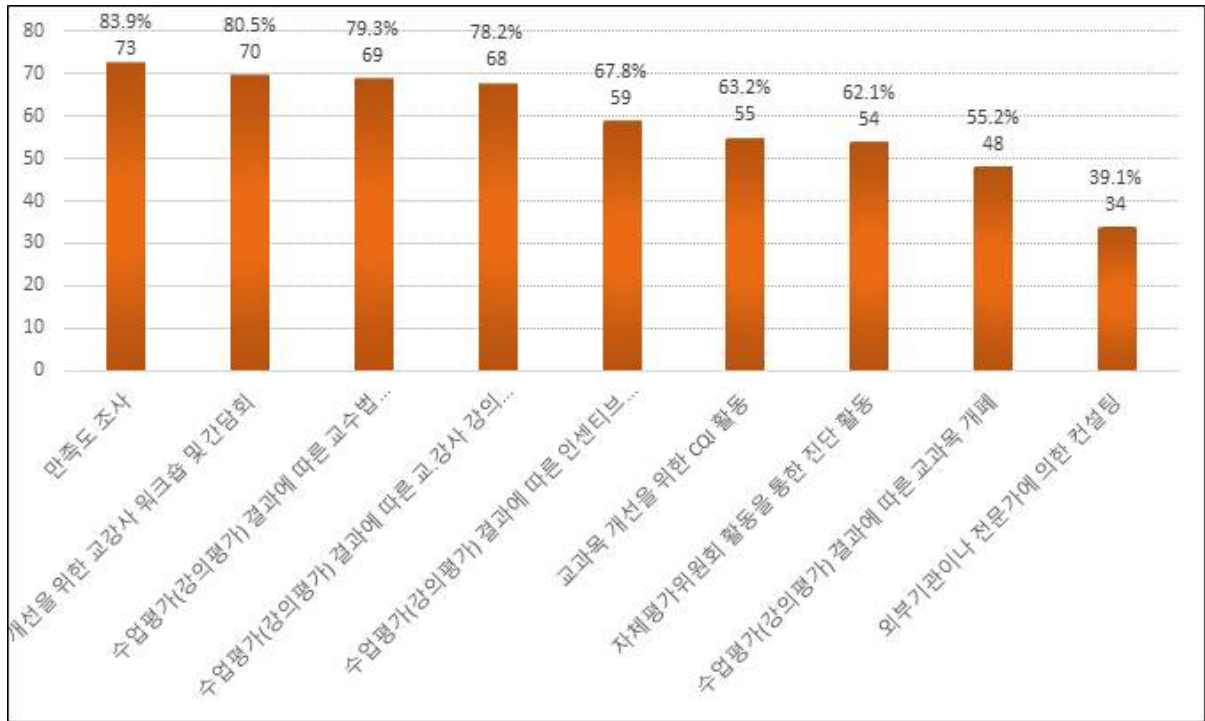
4.1 교양교육과정 개선 활동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개선 활동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양교육과정 개선 활동은 만족도 조사로 조사대상 87개 대학 가운데 73개 대학(83.91%)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교과목 개선을 위한 교강사 워크숍 및 간담회로서 70개 대학(80.46%)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대학 중 60% 이상의 대학이 수업평가(강의평가) 결과를 기초로 교수법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강의 제한 또는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었으며, 교과목 CQI 활동을 통한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 대학별로 평균 6.16개의 교양교육과정 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대학 중 50% 이상의 대학이 예시한 활동 중 외부기관이나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을 복수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9>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질 관리 활동

구분	시행대학	순위	시행률(%)
만족도 조사	73	1	83.91
교과목 개선을 위한 교강사 워크숍 및 간담회	70	2	80.46
수업평가(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교수법 컨설팅 및 교수법 관련 지원	69	3	79.31
수업평가(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교강사 강의 제한	68	4	78.16
수업평가(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우수강의시상 등 포함)	59	5	67.82
교과목 개선을 위한 CQI 활동	55	6	63.22
자체평가위원회 활동을 통한 진단 활동	54	7	62.07
수업평가(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교과목 개폐	48	8	55.17
외부기관이나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	34	9	39.08
총계	536		
평균	6.16		



[그림 II-14]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질 관리 활동

5.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

5.1 교양교육 전담조직 설치

2019년 10월 14일 기준, 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 회원교 122개교의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교양대학이나 학부대학과 같이 단과대학 형태로 교양교육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대학은 69개교(56.56%)에 이르며, 교양교육원이나 기초교육원과 같은 교육지원기구 형태로 운영하는 대학이 35개교(28.69%), 교양학부 형태로 운영하는 대학이 16개교(13.11%), 센터로 운영하는 대학이 2개교(1.64%)로 나타난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87개 대학 가운데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대학은 78개교로, 89.66%의 대학이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60> 교양교육 담당하는 전담조직 설치 현황

구분	대학 수	비율(%)
전담조직 설치 대학	78	89.66
전담조직 미설치 대학	9	10.34
합계	87	100.00

교양교육 전담조직 설치 현황을 대학 설립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대학은 95.45%의 대학이 전담조직을 설치한 반면 국립대학은 71.43%의 대학만 설치하고 있어 사립대학에 비해 국립대학에서 상대적으로 교양교육 전담조직 설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1>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 (설립 유형별)

유형	국립대학		사립대학	
	수	합계	수	합계
전담조직 설치 대학	15	21	63	66
전담조직 미설치 대학	6		3	
전담조직 설치 비율(%)	71.43		95.45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설치 현황을 대학 규모별로 살펴보면, 재학생 5천명 이상의 대학은 응답대학 모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있는 반면, 2천명 미만의 대학은 62.50%의 대학만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표 II-62> 규모별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

규모	2천명 미만		2천명 이상~5천명 미만		5천명 이상	
	수	총합	수	총합	수	총합
전담조직 설치 대학	10	16	10	12	59	59
전담조직 미설치 대학	6		2		0	
전담조직 설치 비율(%)	62.50		83.33		100.00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설치 현황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호남제주권의 대학은 응답대학 전체가 설치하고 있었던 반면, 영남권 대학은 응답대학의 88%가 설치했다고 응답하여 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II-63> 권역별(2차)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

소재지	서울		경기·인천		영남권		호남제주권		강원충청권	
	수	총합	수	총합	수	총합	수	총합	수	총합
전담조직 설치 대학	16	17	11	12	22	25	7	7	23	26
전담조직 미설치 대학	1		1		3		0		3	
전담조직 설치 비율(%)	94.12		91.67		88.00		100.00		88.46	

5.2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구성원

교양교육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 소속 교원과 직원 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는데,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 소속 교원(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의 수는 평균 51.87명이었으며, 직원(정규직 직원, 계약직 직원)의 수는 평균 5.49명이었다.

<표 II-64>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직원 구성 현황

구분	교원				직원		
	정년 전임	비정년 전임	비전임	계	정규직	계약직	계
인원 수	9.42	14.87	27.58	51.87	2.66	2.83	5.49
비율(%)	18.16	28.67	53.17	100.00	48.45	51.55	100.00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 중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평균 9.42명(18.16%)이었으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평균 14.87명(28.67%)이었다. 그리고 비전임교원이 교양교육 전담조직 전체 교원의 절반이 넘는 53.17%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직원은 정규직과 계약직의 비율이 각각 48.45%, 51.55%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대학 설립 유형별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65> 설립 유형별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 구성 현황(수, 비율)

구분	정년트랙 전임	비정년트랙 전임	비전임	계
국립	인원 수	90	14	253
	비율(%)	25.21	3.92	70.87
사립	인원 수	635	1101	1871
	비율(%)	17.60	30.52	51.87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을 대학 설립 유형에 따라 직급별로 분석한 결과, 국립대학은 강사를 포함한 비전임교원의 비율이 70.87%로 사립대학의 51.87%에 비해 매우 높았다. 반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비율은 국립대학이 3.92%, 사립대학이 30.52%로 국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이 8배 가까이 높았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직원을 설립 유형에 따라 직급별로 분석해 보면, 국립대학은 정규직과 계약직의 비율이 각각 60.32%와 32.05%로 정규직이 계약직에 비하여 2배 가까이 많은 반면, 사립대학은 정규직과 계약직의 비율이 각각 43.43%와 56.57%로서 계약직이 정규직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II-66> 설립 유형별 교양교육 전담조직 직원 구성 현황(수, 비율)

구분		정규직	계약직	계
국립	인원 수	76	50	76
	비율(%)	60.32	32.05	100.00
사립	인원 수	129	168	129
	비율(%)	43.43	56.57	100.00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을 대학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2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으로 58.14%이었으며,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의 대규모 대학으로 13.25%였다. 반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의 대규모 대학으로 31.20%였으며, 가장 낮은 것은 2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으로 10.47%였다. 그리고 비전임교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 역시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으로 67.99%였으며, 가장 낮은 것은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의 중소규모 대학으로 25.27%였다.

<표 II-67> 대학 규모별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 구성(수, 비율)

구분		2천명 미만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1만명 이상~ 2만명 미만	2만명 이상
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원수	50	80	313	186	96
	비율(%)	58.14	22.92	22.46	13.25	17.36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원수	8	105	483	438	81
	비율(%)	10.47	30.09	30.73	31.20	14.65
비전임교원	인원수	28	164	776	780	376
	비율(%)	32.56	46.99	49.36	55.56	67.99
계	인원수	96	349	1,572	1,404	553
	비율(%)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 현황을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인천 지역의 대학으로 28.43%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11.69%였다. 반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영남권으로 36.73%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충청권으로 23.6%였다. 그리고 비전임교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61.82%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인천 지역으로 44.99%였다.

<표 II-68> 권역별(2차)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직원 수

권역별		정년트랙 전임	비정년트랙 전임	비전임	계
서울	인원수	176	399	931	1,506
	비율(%)	11.69	26.49	61.82	100.00
경기·인천	인원수	139	130	220	489
	비율(%)	28.43	26.58	44.99	100.00
영남권	인원수	126	317	420	863
	비율(%)	14.69	36.73	48.67	100.00
호남·제주권	인원수	23	33	50	106
	비율(%)	22.33	31.13	47.17	100.00
강원·충청권	인원수	261	236	503	1,000
	비율(%)	26.1	23.6	50.3	100.00

5.3 교양교육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 부서장의 위상

미응답 대학 8교를 제외한 79개교를 중심으로 교양교육 전담조직 부서장의 위상을 분석한 결과, 교양교육 전담조직 부서장은 교무위원급인 경우가 82.27%로 가장 많았고, 부처장(센터장)급인 경우가 12.65%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표 II-69> 교양교육 전담조직 부서장의 위상

전체	대학의 수	비율
교무위원급	65	82.27
부처장(센터장)	10	12.65
팀장급	2	2.53
기타	2	2.53
계	79	99.98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부서장이 교무위원급인 경우가 사립대학은 85.72%로 국립대학의 66.67%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반면 국립대학은 교무위원급이 아닌 경우 주로 부처장(센터장)급으로 임명하고 있는 반면, 사립대학은 교무위원급이 아닌 경우에는 다양한 위상으로 임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0> 설립 유형별 교양교육 전담조직 부서장의 위상

구분	국립		사립	
	대학 수	비율(%)	대학 수	비율(%)
교무위원급	10	66.67	55	85.94
부처장(센터장)	5	33.33	5	7.94
팀장급	0	0	2	3.17
기타	0	0	2	3.17
계	15	100.00	64	100.22
미 응답	6		2	

대학 규모별로 부서장의 위상을 분석한 결과, 5천명 이상의 중대규모 대학에서는 모두 교무위원급 또는 부처장급의 위상을 갖고 있는 데 비하여, 5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표 II-71> 규모별 교양교육 전담조직 부서장의 위상

규모	2천명 미만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		5천명 이상 ~1만 명 미만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		2만 명 이상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교무위원급	7	70	6	60	30	88.24	17	89.47	5	83.33
부처장(센터장)	1	10	2	20	4	11.76	2	10.53	1	16.67
팀장급	1	10	1	10	0	0.00	0	0.00	0	0.00
기타	1	10	1	10	0	0.00	0	0.00	0	0.00
계	10	100	10	100	34	100	19	100	6	100
미응답	6		2		0		0		0	

대학의 교양교육 전담 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대학은 교양교육 관련 의사결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경남과학기술대, 대전가톨릭대, 아세아연합신학대는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교양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양교육과정의 개편, 편성 및 운영을 하거나,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교무, 교과과정위원회에서 주요 사항 발생 시 안전으로 의결을 처리하고 단계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고 응답하였다. 공주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 등 교육대학은 교원양성위원회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진행한다고 응답하였다.

5.4 교양교육과정 위원회 설치 여부 및 주요활동

교양교육과정위원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교양교육과정 위원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응답한 대학은 82개교로 전체의 94.25%를 차지하였다.

<표 II-72>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설치 현황

구분	설치	미설치	합계
학교 수	82	5	87
비율(%)	94.25	5.75	100.00

교양교육과정위원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 설치 여부를 대학 설립 유형별로 분석하면 국립대학은 80.95%의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사립대학은 98.48%의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모별로는 2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 5개교(국립대 4, 사립대 1)를 제외하면 모든 대학에서 교양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3> 설립 유형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설치 현황

구분	국립	사립
설치 대학 / 응답 대학(수)	17 / 21	65 / 66
비율(%)	80.95	98.48

<표 II-74> 대학 규모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설치 현황

구분	2천명 미만	2천명 이상
설치 대학 / 전체 대학(수)	11 / 16	71 / 71
비율(%)	68.75	100.00

또한 교양교육과정위원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권역별(서울, 경기·인천, 영남권, 호남/제주, 강원/충청)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의 대학은 응답대학 모두 설치하고 있었다. 반면 호남제주권의 대학은 85.71% 설치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75> 권역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설치 현황

구분	서울	경기·인천	영남권	호남/제주	강원/충청
설치 대학 / 전체 대학(수)	17 / 17	12 / 12	23 / 25	6 / 7	24 / 26
비율(%)	100.00	100.00	92.00	85.71	92.31

5.5 교양교육과정위원회 구성 현황

전체 교양교육과정위원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응답한 81개 대학을 대상으로³¹⁾ 교양교육 전담조직 소속 교원이 해당 위원회의 50% 이상을 차지하는지 여부와 타

31) 교양교육과정위원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의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82개교가 설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위원회의 구성 현황에 대해서는 그 가운데 81개교가 설문에 답하였다. 그에 따라 교양교육과정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한 분석은 응답대학 81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 등 외부위원의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76>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구분	교양 전담조직 교원 50% 이상	교양 전담조직 교원 50% 미만	계
대학 수	36	45	81
비율(%)	44.44	55.56	100.00

<표 II-77>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현황

구분	외부위원 참여	외부위원 미 참여	계
대학 수	20	47	67
비율(%)	29.85	70.15	100.00

교양교육과정위원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교양교육 전담조직 소속 교원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대학은 36개교로 44.44%였으며, 외부위원이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대학은 29.85%였다.³²⁾ 교양교육과정위원회는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편성이나 교과목 개설 또는 폐지 등 교양교육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라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교양교육 전담조직 소속 교원의 의견이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설문 응답 결과를 토대로 보면 아직은 그러한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대학 설립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대학은 81개 응답대학 가운데 46.88%에 해당하는 38개교가 위원회의 50% 이상을 교양교육 전담조직 소속 교원으로 구성하고 있음에 비하여 국립대학은 35.29%만이 그와 같은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반면 교양교육과정위원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에 외부 인사의 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국립대학은 53.85%의 대학이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고 있는 데 비하여, 사립대학은 24.07%만이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고 있었다. 이같은 결과는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국립대학은 공정성과 개방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면, 사립대학은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표 II-78> 설립 유형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위원 소속 교원 구성 현황

구분	교양 전담조직 교원 50% 이상		교양 전담조직 교원 50% 미만	
	대학 수	비율(%)	대학 수	비율(%)
국립	6	35.29	11	64.71
사립	30	46.88	34	53.13

32)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외부위원의 참여 여부에 대하여 응답한 대학은 67개 대학이었다.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응답한 81개 대학 가운데 이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14개 대학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할 확률보다는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점에서 이 수치는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II-79〉 설립 유형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현황

구분	외부위원 참여		외부위원 미 참여	
	대학 수	비율(%)	대학 수	비율(%)
국립	7	53.85	6	46.15
사립	13	24.07	41	75.93

한편 교양교육과정위원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 구성 현황을 대학 규모별로 살펴보면, 교양교육 전담조직 소속 교원이 교양교육과정위원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 위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은 재학생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이 83.3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2천 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 54.55%, 세 번째로 5천명 이상 1만 명 미만의 중규모 대학 51.52% 순이었다. 반면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의 중소규모 대학이나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의 대규모 대학은 25% 내외에 머물고 있어 교양교육위원회가 교양교육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권역별로는 호남제주권의 대학이 특히 교양교육과정위원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 구성에서 교양교육 전담조직 소속 교원의 참여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80〉 대학 규모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구분	교양 전담조직 교원 50% 이상		교양 전담조직 교원 50% 미만	
	대학 수	비율(%)	대학 수	비율(%)
2천명 미만	6	54.55	5	45.45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	3	25.00	9	75.00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17	51.52	16	48.48
1만명 이상 ~2만명 미만	5	26.32	14	73.68
2만명 이상	5	83.33	1	16.67

〈표 II-81〉 권역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구분	교양 전담조직 교원 50% 이상		교양 전담조직 교원 50% 미만	
	대학 수	비율(%)	대학 수	비율(%)
서울	7	43.75	9	56.25
경기·인천	6	50.00	6	50.00
영남권	11	47.83	12	52.17
호남/제주권	1	16.67	5	83.33
강원/충청권	11	45.83	13	54.17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 타 대학 등 외부기관의 위원을 참여시킴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

성과 객관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로 이를 이행하고 있는 대학의 비율은 응답대학 61개교 가운데 29.85%에 머물고 있다. 대학의 규모나 권역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대학이 20%대에 머물고 있는데, 그나마 5천명 이상 1만 명 미만의 중규모 대학, 그리고 영남권 대학에서는 외부위원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대학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표 II-82> 대학 규모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현황

구분	외부위원 참여		외부위원 미 참여	
	대학 수	비율(%)	대학 수	비율(%)
2천명 미만	2	28.57	5	71.43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	2	22.22	7	77.78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10	35.71	18	64.29
1만명 이상 ~2만명 미만	5	26.32	14	73.68
2만명 이상	1	25.00	3	75.00

<표 II-83> 권역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현황

구분	외부위원 참여		외부위원 미 참여	
	대학 수	비율(%)	대학 수	비율(%)
서울	4	26.67	11	73.33
경기·인천	3	27.27	8	72.73
영남권	7	41.18	10	58.82
호남/제주권	1	20.00	4	80.00
강원/충청권	5	26.32	14	73.68

교양교육과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연간 교양교육과정위원회를 평균 4.45회 개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77개 대학이 응답하였다. 교양교육과정위원회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련한 주요 사항은 교무운영위원회 또는 교수회를 통하여 결정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공주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등 교육대학의 경우에는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I-84> 연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개최 횟수

응답대학	개최 횟수(평균)
77	4.45

②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현황

1. 교양교육의 목적/목표

1.1 교양교육의 목적/목표 설정 현황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일반대학과는 교육체제가 상이하고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서도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일반대학의 교양교육과 다를 수밖에 없고, 교육목적이나 목표 또한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88개 전문대학 중에서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답한 대학은 71개교로, 전체의 80.68%의 대학이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표 II-85>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목표 설정 현황

교양교육의 목표를 설정한 대학	비율(%)
71	80.68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한 71개 대학을 설립 유형별(사립, 국공립)로 살펴보면, 사립대학은 응답대학 83개교 가운데 68개(81.93%)가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공립대학은 응답대학 5개 가운데 3개교(60%)가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86> [전문대학] 설립 유형별 교양교육의 목표 설정 현황

구분	설문 응답 대학	목표 설정 대학	비율(%)
국공립	5	3	60.00
사립	83	68	81.93
합계	88	71	80.68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한 71개 대학을 대학 규모별로 살펴보면, 재학생 수가 3,000명 미만의 중소규모 대학은 응답대학 44개교 가운데 32개교(72.72%)가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재학생 수가 3,000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에서는 응답대학 44개교 가운데 39개교(88.63%)가 교양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87> [전문대학] 규모별 교양교육의 목표 설정 현황

구분	설문 응답 대학	목표 설정 대학	비율(%)
3,000명 미만 대학	44	32	72.72
3,000명 이상 대학	44	39	88.63
합계	88	71	80.68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 설정 여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은 응답대학 30개교 가운데 25개교(83.33%)가 설정해 놓았고, 비수도권 대학은 58개교 가운데 46개교(79.31%)가 설정해 놓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88> [전문대학] 권역별 교양교육의 목표 설정 현황

구분	설문 응답 대학	목표 설정 대학	비율(%)
수도권	30	25	83.33
비수도권	58	46	79.31
합계	88	71	80.68

1.2 교양교육의 목적/목표 키워드 분석

전문대학이 설정하고 있는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대학이 설정한 교양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각 대학에서는 교양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목표를 개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전문대학이 설정하고 있는 교양교육의 목적이나 목표에 등장하는 키워드를 추출해 보면 아래 <표 II-89>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³³⁾ 이 가운데 ‘직업기초능력, NCS, 현장실무능력, 직무역량’ (24개교)과 ‘인격, 인성, 참사람’ (24개교)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기본능력, 기본역량, 기초, 기초교육’ (18개교), ‘창의, 창의성, 창조’ (16개교), ‘전문, 전문성, 전문인, 전문직업인’ (13개교),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 세계시민’ (13개교) 등의 키워드가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융합, 융복합, 통섭’, ‘소통,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등의 키워드도 10개교 이상의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직업기초능력, NCS, 현장실무능력’ 등의 키워드가 ‘인격, 인성, 참사람’ 과 함께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목적 또는 목표로 사용되는 키워드 가운데 이처럼 상호 이질적인 개념의 키워드가 가장 널리 그것도 서로 대등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33) 대학이 설정한 교양교육의 목적이나 목표는 여러 가지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양교육의 목적이나 목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키워드 역시 한 대학에 하나로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개의 키워드를 교양교육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대학들의 수를 총합한 결과는 자연스럽게 조사대상 대학 수를 초과할 수밖에 없다.

목표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대극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기본능력, 기본역량, 기초, 기초교육’ 이 자주 보이는 것은 이처럼 대극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기초교육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인식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들은 전문대학이 최근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교양교육의 변화와 내실화를 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89> [전문대학] 교양교육 목표 키워드 빈도

순위	교양교육의 목표	빈도
1	직업기초능력, NCS, 현장실무능력, 실무적, 실용, 직무역량, 직무능력	24
	인격, 인성, 참사람	24
2	기본능력, 기본소양, 기본역량, 기초, 기초교육, 기초소양, 기초역량, 기초학업능력	18
3	창의, 창의성, 창의적, 창조	16
4	전문, 전문성, 전문인, 직업인, 전문직업인, 전문직업기술인	15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 글로벌 마인드, 세계시민	15
5	융합, 창의융합, 융복합, 통섭	13
6	소통, 의사소통, 의사소통능력, 문해력	12
7	문제해결, 문제해결능력, 창의적문제해결능력, 복합문제해결능력	10
8	4차산업혁명, 정보, 정보화, 지식정보화	9
9	인간관, 세계관, 가치관, 가치	6
	핵심역량	6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6
10	리더, 자기주도, 자기관리	5
	공동체, 공동체의식, 협동	5
	교양, 교양인	5
	전인, 전인적, 전인교육	5
	봉사, 봉사정신, 사회봉사	5
11	지성, 지성인	4
	기독교, 기독교 정신	4
	책임감, 성실	4
12	미래사회	3
	감성	3
13	직업관	2
	변화대응, 사회환경변화	2
	시민정신	2
14	국가관	1
	인문, 인문학적	1
	다문화	1
	진로	1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목적/목표 진술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는 아래 <표 II-92>와 같이 크게 8개의 대범주로 묶어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창의, 융합, 미래사회>와 <인격, 도덕, 리더십>, <진로, 직업, 전문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교양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전통적으로 교양교육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온 <기초교육, 소통능력>, <봉사, 공동체, 민주시민, 국가>, <국제화, 다문화>, <지성, 교양, 인문, 감성>이 자리한다. <국제화, 다문화> 역시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이나, 일반대학과 비교했을 때 전문대학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순위가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을 중심으로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역량>의 함양을 교양교육의 목표로 설정한 대학도 6개교가 있었다.

<표 II-90> [전문대학] 교양교육 목표의 범주와 빈도

번호	대범주	소범주	빈도
1	창의, 융합, 미래사회, 문제해결	융합, 창의융합, 융복합, 통섭	54
		4차산업혁명, 정보, 정보화, 지식정보화, 변화대응, 사회환경변화, 미래사회	
		창의, 창의성, 창의적, 창조	
		문제해결, 문제해결능력, 창의적문제해결능력, 복합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2	인격, 도덕, 리더십	인격, 인성, 참사람	44
		전인, 전인적, 전인교육	
		인간관, 세계관, 가치관, 가치	
		기독교, 기독교 정신	
		리더, 자기주도, 자기관리	
3	진로, 직업, 전문성	직업기초능력, NCS, 현장실무능력, 실무적, 실용, 직무역량, 직무능력	42
		전문, 전문성, 전문인, 직업인, 전문직업인, 전문직업기술인	
		직업관, 진로	
4	기초교육, 소통능력	기본능력, 기본소양, 기본역량, 기초, 기초교육, 기초소양, 기초역량, 기초학업능력	30
		소통, 의사소통, 의사소통능력, 문해력	
5	봉사, 공동체, 민주시민, 국가	봉사, 봉사정신, 사회봉사	17
		공동체, 공동체의식, 협동	
		책임감, 성실	
		시민정신 국가관	
6	국제화, 다문화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 글로벌 마인드, 세계시민	16
		다문화	
7	지성, 교양, 인문, 감성	교양, 교양인	13
		인문, 인문학적	
		지성, 지성인	

		감성	
8	핵심역량	핵심역량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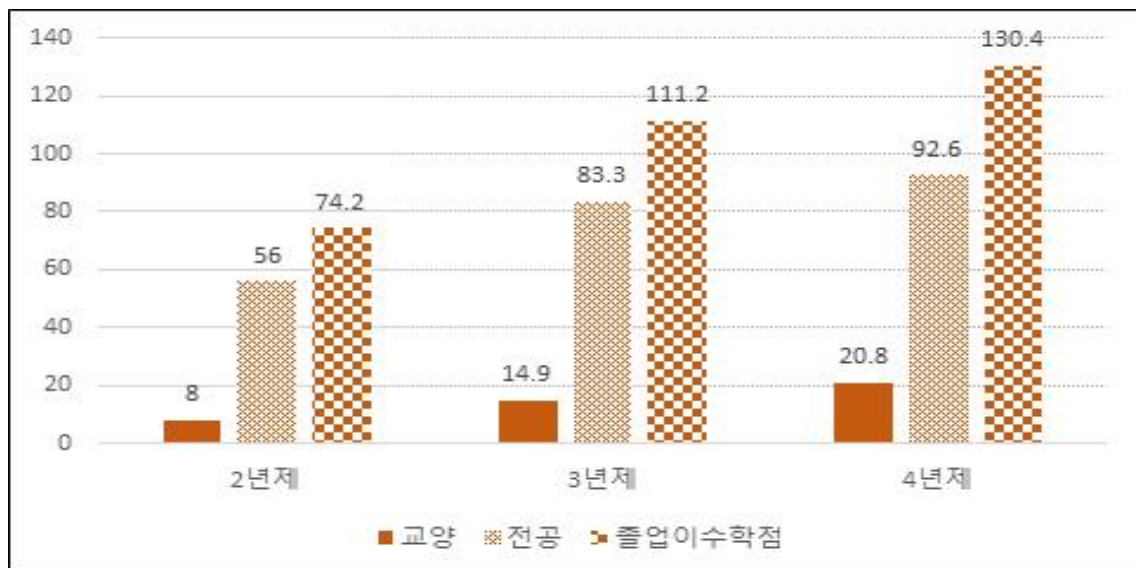
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내용

2.1 졸업이수학점 체계와 교양교육과정

전문대학의 졸업이수학점과 교양교육과정의 평균학점 및 비율은 75개 전문대학의 학칙 및 시행세칙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2019학년도 현재 전문대학의 졸업이수학점은 평균 2년제 74.2학점, 3년제 111.2학점, 4년제 130.4학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공 학점은 2년제 56.00학점(75.4%), 3년제 83.30학점(74.9%), 4년제 92.62학점(71.0%)이었으며, 교양 학점은 2년제 8.00학점(10.8%), 3년제 14.89학점(13.4%), 4년제 20.84학점(16.0%)이었다. 전문대학의 교양 학점은 수업 연한이 길어질수록 높아지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양교육과정은 전체 졸업이수학점에서 평균 13.8%를 차지한다.

<표 II -91> [전문대학] 졸업이수학점 체계(2019학년도)

학제	교양			전공			졸업이수학점	
	학점 평균	비율(%)	표본 학교 수	학점 평균	비율(%)	표본 학교 수	학점 평균	표본 학교 수
2년제	8.0	10.8	33	56.0	75.4	37	74.2	75
3년제	14.9	13.4	23	83.3	74.9	38	111.2	75
4년제	20.8	16.0	21	92.6	71.0	25	130.4	50



[그림 II -15] [전문대학] 졸업이수학점 체계(2019학년도)

2.2 교양필수 교과목 및 강좌 수

전문대학의 교양필수 및 강좌수에 대한 정보는 설문에 응답한 61개 전문대학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이들 대학의 교양필수 교과목 학점 수는 평균 21.67학점이었으며, 평균 44.59개의 교과목이 개설되었다. 교양필수 교과목의 강좌 수는 2019학년도 1학기에 평균 55.88개, 2학기에 평균 50.68개가 개설되어 학기별 편차는 크지 않았다.

<표 II-92> [전문대학] 교양필수 교과목 개설 현황(2019학년도)

구분	응답 대학 수	학점 수	과목 수	강좌 수		
				1학기	2학기	전 학기 종합
전체종합	61	1,300	2,720	3,353	3,041	6,394
평균	61	21.67	44.59	55.88	50.68	106.57

교양필수 교과목의 개설 학점 수의 표준편차는 34.74, 개설 과목 수의 표준편차는 92.62로 나타나서 개설 학점보다는 개설 과목 수의 대학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좌 수의 표준편차는 2019학년도 1학기 67.93, 2학기 65.32로 나타났다.

<표 II-93> [전문대학] 교양필수 교과목 표준편차(2019학년도)

응답 대학 수	학점 수	과목 수	강좌 수		
			1학기	2학기	전 학기 평균
61	34.74	92.62	67.93	65.32	66.63

교양필수 교과목의 권역별 개설 강좌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전문대학이 비수도권 전문대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학점 수와 과목 수를 보이고 있으며, 강좌 수는 비수도권 전문대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94> [전문대학] 권역별 교양필수 교과목 현황(2019학년도)

권역	학점 수	과목 수	강좌 수		
			1학기	2학기	전 학기 종합
수도권	25.22	17.18	155.71	143.01	298.72
비수도권	20.92	11.06	176.12	159.81	335.93

2.3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2018~2019학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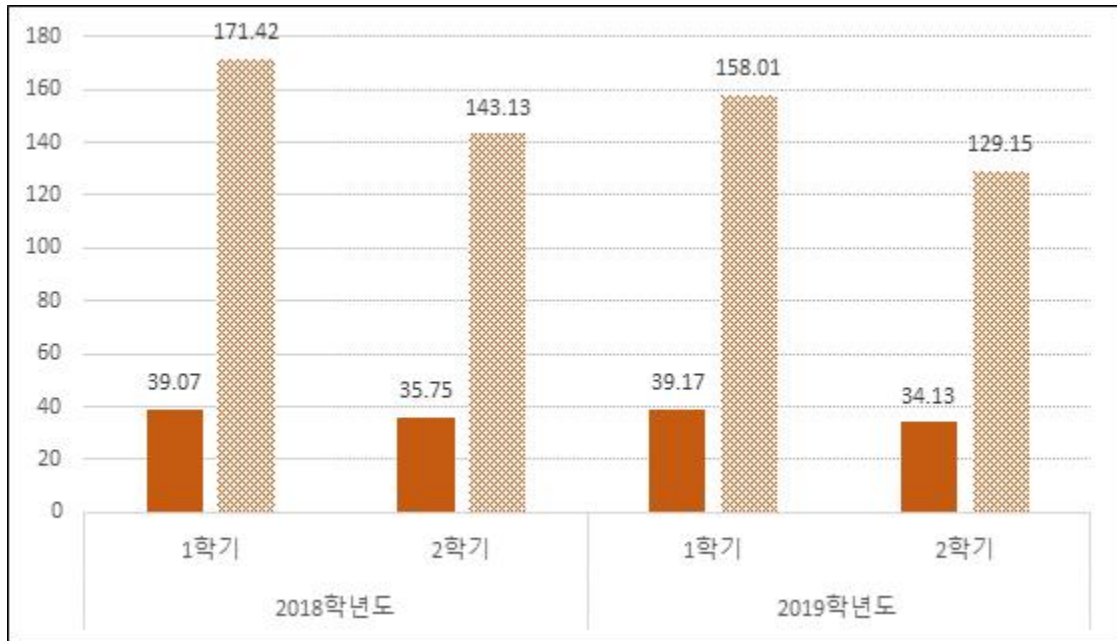
이 항목에 응답한 87개 전문대학(개설 강좌 수는 86개 전문대학)의 개설 과목 수 평균값은

2018학년도 평균 74.82개에서 2019학년도 평균 73.30개로 2.03% 감소하였으며, 개설 강좌 수의 경우에도 2018학년도 평균 314.55개에서 2019학년도 평균 287.16개로 8.71% 감소하였다

<표 II-95> [전문대학]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2018~2019학년도)

응답대학수	구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1학기	2학기	계	1학기	2학기	계
87	개설과목수	39.07	35.75	74.82	39.17	34.13	73.30
86	개설강좌수	171.42	143.13	314.55	158.01	129.15	287.16

교양 교과목 개설 과목 수를 권역별로 비교해 보면, 수도권 전문대학이 2018학년도에 평균 65.84개 교과목, 2019학년도에 평균 71.06개 교과목을 개설하였으며, 비수도권 전문대학이 2018학년도에 평균 64.98개 교과목, 2019학년도에 평균 61.85개 교과목을 개설하여 수도권 전문대학이 1.32%와 1.50% 더 많은 교양 교과목을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6] [전문대학]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2018~2019학년도)

<표 II-96> [전문대학] 권역별 교양 교과목 개설과목 수(2018~2019학년도)

구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1학기	2학기	계	1학기	2학기	계
수도권	32.70	33.15	65.84	36.20	34.86	71.06
비수도권	34.60	30.38	64.98	32.83	29.02	61.85

권역별 교양 교과목 개설 강좌 수는 수도권 전문대학이 2018학년도 378.58개, 2019학년도 332.21개로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2018학년도 243.55개, 2019학년도 224.29개에 비하여 각각 55.4%와 48.1% 더 많은 교양강좌를 개설하였다. 이렇게 수도권 전문대학의 개설 강좌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재학생 규모가 큰 전문대학이 대도시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97> [전문대학] 권역별 교양교과목 개설강좌 수(2018~2019학년도)

구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1학기	2학기	계	1학기	2학기	계
수도권	203.48	175.10	378.58	173.09	159.12	332.21
비수도권	135.10	108.45	243.55	124.38	99.91	224.29

2.4 신규 개설 교양 교과목

이 항목에 응답한 76개 전문대학의 신규 개설 교양 교과목 수는 2018학년도 1,015개, 2019학년도 1,187개였으며, 대학별 평균값은 2018학년도 17.00개, 2019학년도 18.29개로 나타났다.

<표 II-98> [전문대학] 신규 개설 교양 교과목 수(2018~2019학년도)

구분	응답 대학 수	2018학년도			2019학년도		
		1학기	2학기	계	1학기	2학기	계
총계	76	589	426	1,015	686	501	1,187
평균	76	9.66	7.34	17.00	9.8	8.49	18.29

권역별 신규 개설 교양 교과목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에 비하여 비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교양 교과목을 신규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99> [전문대학] 권역별 신규 개설 교양 교과목 수(2018~2019학년도)

구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1학기	2학기	계	1학기	2학기	계
수도권	5.11	4.25	9.36	8.05	4.94	13.00
비수도권	10.25	6.59	16.84	8.55	6.97	15.51

2.5 비교과 프로그램

이 항목에 응답한 72개 전문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중 기타 유형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개설된 프로그램 유형은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이었으며, 다음으로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 글쓰기 프로그램, 기초수학과학(BSM) 프로그램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00> [전문대학] 유형별 비교과 프로그램 수(2019학년도)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수	대학별 평균 값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180	3.05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	153	2.83
글쓰기 프로그램	88	1.83
기초수학과학(BSM) 프로그램	77	1.48
기타 프로그램	403	6.72
총계	901	15.91



[그림 II-17] [전문대학] 유형별 비교과 프로그램 수(2019학년도)

비교과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운영하는 전문대학은 56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프로그램별 최대값은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27개,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 23개, 글쓰기 프로그램 21개, 기초수학과학(BSM) 프로그램 6개였다.

<표 II-101> [전문대학]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수 최대값(2019학년도)

응답대학 수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글쓰기 프로그램	기초수학과학(BSM) 프로그램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총계
72	27	21	6	23	39	56

권역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비수도권 전문대학이 평균 18.86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균 13.45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유형별 특성에 있어서 특이 사항 가운데 하나는 비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이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에 비하여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과 기초수학과학(BSM)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많이 개설한다는 점이다.

<표 II-102> [전문대학] 권역별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수(2019학년도)

구분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글쓰기 프로그램	기초수학과학(BSM) 프로그램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총계
수도권	2.58	2.04	0.91	2.23	5.70	13.45
비수도권	4.63	2.38	1.93	2.53	7.40	18.86

3.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3.1 2018~2019학년도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설문에 응답한 86개 전문대학의 2018학년도 1,2학기 및 2019학년도 1,2학기의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담당 교원의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의 경우,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수는 감소한 반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수는 증가하였으며, 비전임교원의 경우 초빙, 겸임, 산학중점 교원의 수는 증가한 반면 강사의 수는 줄어들었다.

<표 II-103> [전문대학] 학기별 평균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현황(2018~2019학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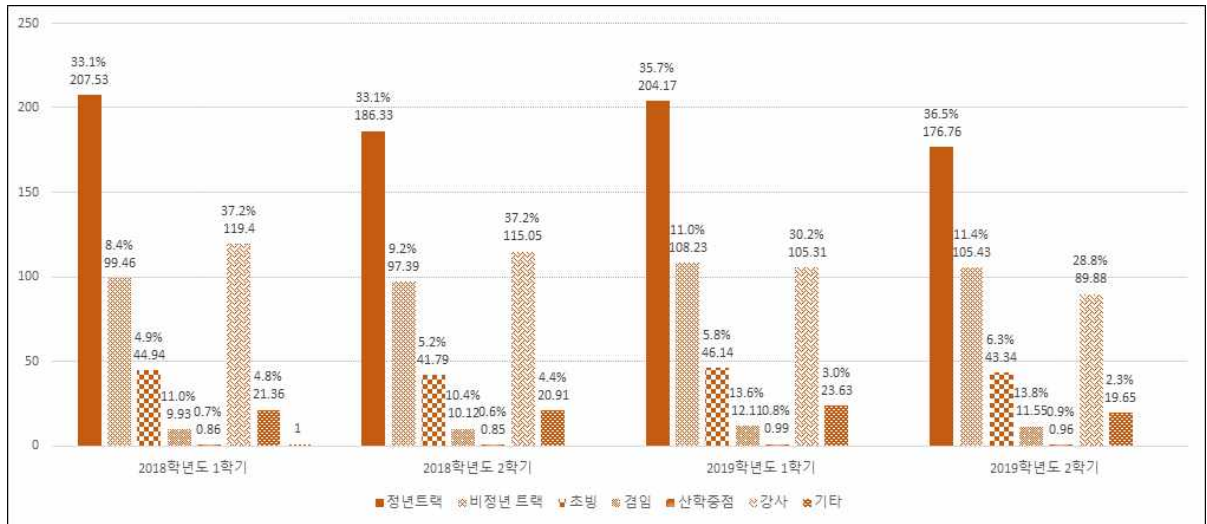
학기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총계(수)
	정년트랙	비정년트랙	초빙	겸임	산학중점	강사	기타	
2018-1	26.80	6.83	4.00	8.91	0.55	30.13	3.86	81.09
2018-2	24.22	6.78	3.80	7.61	0.42	27.25	3.19	73.26
2019-1	26.39	8.10	4.29	10.03	0.60	22.36	2.23	74.00
2019-2	23.57	7.33	4.05	8.91	0.61	18.59	1.47	64.54

학기별 평균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모두 2018학년도 대비 2019학년도에 구성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인원수는 감소했으나 전체 교과목 수가 감소됨에 따라 구성 비율은 증가하였다.

비전임교원의 경우 2018학년도 대비 2019학년도에 초빙, 겸임, 산학중점 교원은 인원수의 증가와 함께 구성 비율도 높아진 반면, 강사는 인원수의 감소와 함께 구성 비율도 감소하였다.

<표 II-104> [전문대학] 학기별 평균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비율(2018~2019학년도)

학기	전임교원		비전임					총계
	정년트랙	비정년트랙	초빙	겸임	산학중점	강사	기타	
2018-1	33.1	8.4	4.9	11.0	0.7	37.2	4.8	100.0
2018-2	33.1	9.2	5.2	10.4	0.6	37.2	4.4	100.0
2019-1	35.7	11.0	5.8	13.6	0.8	30.2	3.0	100.0
2019-2	36.5	11.4	6.3	13.8	0.9	28.8	2.3	100.0



[그림 II-18] [전문대학] 학기별 평균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현황(2018~2019학년도)

3.2 2018~2019학년도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수

이 항목에 응답한 86개 전문대학의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수를 분석한 결과 2018학년도 대비 2019학년도에 전체 교양 교과목의 강좌 수는 평균 353.72개에서 323.48개로 약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의 강좌 수는 2018학년도 대비 2019학년도에 156.94개에서 169.72개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비전임교원의 강좌 수는 196.78개에서 153.76개로 크게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감소한 결과를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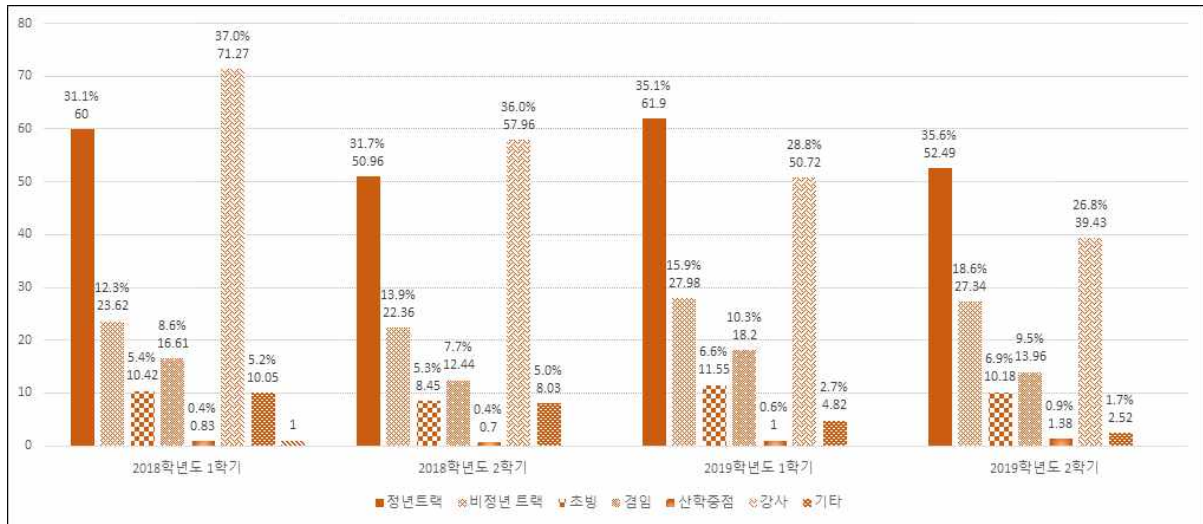
<표 II-105> [전문대학] 학기별 평균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수(2018~2019학년도)

학기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소계	총계
	정년트랙	비정년트랙	소계	초빙	겸임	산학중점	강사	기타		
2018-1	60.00	23.62	83.62	10.42	16.61	0.83	71.27	10.05	109.19	192.81
2018-2	50.96	22.36	73.32	8.45	12.44	0.70	57.96	8.03	87.59	160.91
2019-1	61.90	27.98	89.89	11.55	18.20	1.00	50.72	4.82	86.29	176.18
2019-2	52.49	27.34	79.83	10.18	13.96	1.38	39.43	2.52	67.47	147.30

전임교원의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비율은 2018학년도 평균 44.5%에서 2019학년도에는 52.6%로 증가한 반면, 비전임교원의 경우에는 55.5%에서 47.4%로 그 비율이 낮아졌다. 2019학년도에 비전임교원의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비율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전임 교원 가운데 초빙, 겸임, 산학중점 교원의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비율은 높아진 반면 강사의 경우에는 36.5%에서 27.8%로 낮아져 비전임교원의 담당 강좌 비율이 낮아진 주요 원인이 강사의 담당 강좌 비율이 낮아진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06> [전문대학] 학기별 평균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비율(2018~2019학년도)

학기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총계
	정년트랙	비정년트랙	소계	초빙	겸임	산학중점	강사	기타	소계	
2018-1	31.1	12.3	43.4	5.4	8.6	0.4	37.0	5.2	56.6	100.0
2018-2	31.7	13.9	45.6	5.3	7.7	0.4	36.0	5.	54.4	100.0
2019-1	35.1	15.9	51.0	6.6	10.3	0.6	28.8	2.7	49.0	100.0
2019-2	35.6	18.6	54.2	6.9	9.5	0.9	26.8	1.7	45.8	100.0



[그림 II-19] [전문대학] 학기별 평균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비율(2018~2019학년도)

3.3 2018~2019학년도 개설된 교양교육과정 강좌별 규모

2018학년도 1,2학기 2019학년도 1,2학기에 개설된 교양교육과정의 강좌별 규모를 실제 수강 인원 기준으로 분석하면 1학기 총 강좌 수는 2018년 400.14개에서 2019년 354.24개로, 2학기는 2018년 348.32개에서 2019년 312.79개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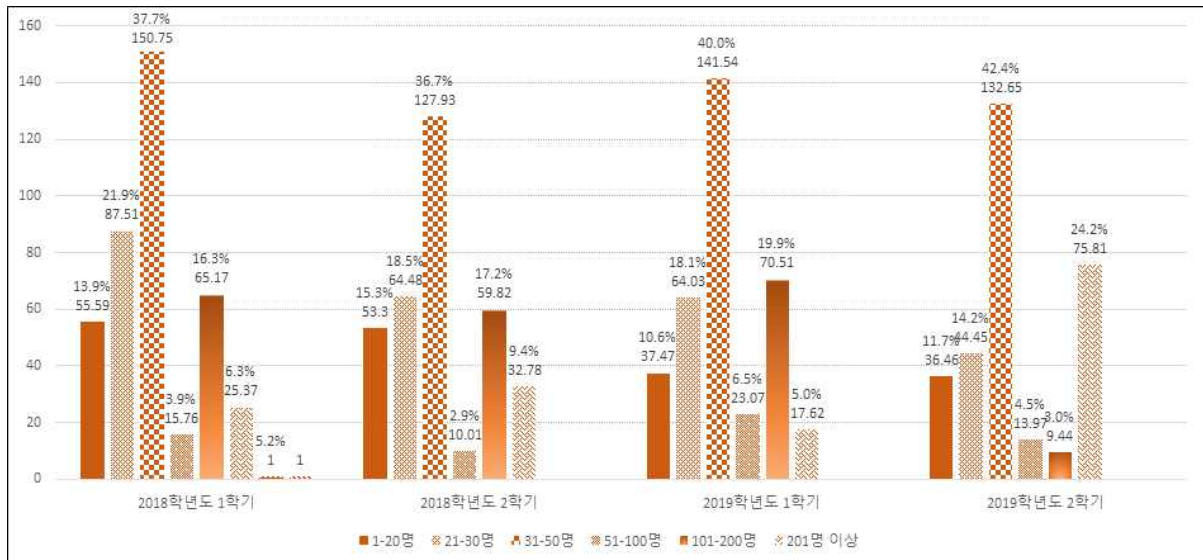
강좌 수의 축소로 모든 규모의 강좌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1-20명 규모의 소규모 강좌는 1학기는 2018학년도 55.59개(13.89%)에서 2019학년도 37.47개(10.58%), 2학기는 2018학년도 53.30개(15.30%)에서 2019학년도 36.46개(11.66%)로, 1,2학기 각각 32.60%와 31.59%가 감소하여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에 201명 이상의 대규모 강좌는 2018학년도 58.15개(7.77%)에서 2019학년도 93.43개(14.01%)로 강좌 수나 비율 면에서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19학년도 2학기 201명 이상의 대규모 강좌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은 강사법 시행의 결과라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18-2019학년도 4학기 동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강좌 규모는 모두 31-50명 단위의 강좌로서 총 552.87개 강좌가 개설되어 교양교육과정에 개설된 전체 강좌 중 39.20%를 차지하였다.

<표 II-107> [전문대학] 학기별 교양교육과정 규모 별 강좌 수(2018~2019학년도)

학기	1-20명	21-30명	31-50명	51-100명	101-200명	201명 이상	총계(수)
2018-1	55.59	87.51	150.75	15.76	65.17	25.37	400.14
2018-2	53.30	64.48	127.93	10.01	59.82	32.78	348.32
2019-1	37.47	64.03	141.54	23.07	70.51	17.62	354.24
2019-2	36.46	44.45	132.65	13.97	9.44	75.81	312.79
계	182.82	260.47	552.87	62.81	204.94	151.58	1,415.49

<표 II-108> [전문대학] 학기별 교양교육과정 규모 별 강좌 비율(2018~2019학년도)

학기	1-20명	21-30명	31-50명	51-100명	101-200명	201명 이상	총계
2018-1	13.9	21.9	37.7	3.9	16.3	6.3	100.0
2018-2	15.3	18.5	36.7	2.9	17.2	9.4	100.0
2019-1	10.6	18.1	40.0	6.5	19.9	5.0	100.0
2019-2	11.7	14.2	42.4	4.5	3.0	24.2	100.0
평균	12.88	18.18	39.20	4.45	14.10	11.23	100.0



[그림 II-20] [전문대학] 학기별 교양교육과정 규모 별 강좌 비율

3.4 2018~2019학년도 온라인 교과목 개설 현황

설문에 응답한 88개 전문대학에서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에 개설한 교양 교과목 가운데 온라인 교과목(일반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 교육부 2018.12)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II-111>과 같다. 온라인 교과목을 설강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전문대학은 평균

51.43%였으며, 온라인 교과목을 설강한 전문대학 중에서는 온라인 교양 교과목이 전체 교양 교과목의 0.1-5.0%를 차지하는 대학이 23.58%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9> [전문대학] 학기별 온라인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2018~2019학년도)

구분	온라인 교과목 비율						무응답	계
	없음	0.1~5.0%	5.1~10.0%	10.1~15.0%	15.1~20.0%	20.1% 이상		
2018-1	49	20	3	6	1	4	5	88
비율	55.68	22.73	3.41	6.82	1.14	4.55	5.68	100.00
2018-2	47	20	3	7	1	4	6	88
비율	53.41	22.73	3.41	7.95	1.14	4.55	6.82	100.00
2019-1	43	21	4	7	2	4	7	88
비율	48.86	23.86	4.55	7.95	2.27	4.55	7.95	100.00
2019-2	42	22	6	5	2	5	6	88
비율	47.73	25.00	6.82	5.68	2.27	5.68	6.82	100.00
총계	183	84	16	25	6	17	24	355
비율	51.43	23.58	4.54	7.11	1.70	4.83	6.82	100.00

4.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

4.1 교양교육과정 개선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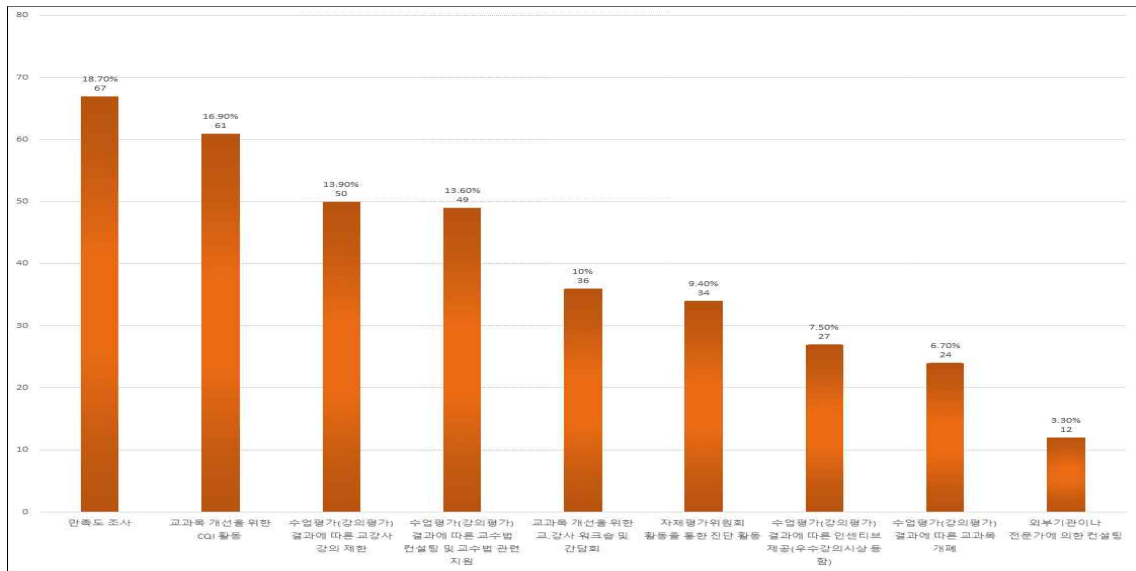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활동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각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양교육과정 개선 활동을 모두 기록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설문에 응답한 88개 전문대학은 9개 선택지 가운데 자기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활동을 개수에 관계없이 모두 선택 체크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양교육과정 개선 활동은 만족도 조사로 나타났다.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88개 대학 가운데 67개 대학, 76.14%의 대학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교과목 개선을 위한 CQI 활동으로 88개 대학 가운데 61개 대학, 69.32%의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한 대학에서 평균 4.09개의 교양교육과정 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88개 응답대학 중 50% 이상의 대학이 예시한 활동 중 외부기관이나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을 중복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0>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개선 활동 현황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 프로그램	합계	순위	비율(%)
만족도 조사	67	1	18.7
교과목 개선을 위한 CQI 활동	61	2	16.9
수업평가(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교강사 강의 제한	50	3	13.9
수업평가(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교수법 컨설팅 및 교수법 관련 지원	49	4	13.6
교과목 개선을 위한 교강사 워크숍 및 간담회	36	5	10.0
자체평가위원회 활동을 통한 진단 활동	34	6	9.4
수업평가(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우수강의시상 등 함)	27	7	7.5
수업평가(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교과목 개폐	24	8	6.7
외부기관이나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	12	9	3.3
총계	360	-	100.0
평균	4.09	-	-



[그림 II-21]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개선 활동

5.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

5.1 교양교육 전담조직 설치 현황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설치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86개 전문대학이 응답하였다. 이 가운데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대학은 51개교로, 응답대학의 59.30%가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아직까지 교양교육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은 35개교, 40.70%에 이르렀다.

<표 II-111> [전문대학] 교양교육 담당하는 전담조직 설치 현황

구분	설치 대학	미설치 대학	계
대학 수	51	35	86
비율(%)	59.30	40.70	100.00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설치 현황을 대학 설립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대학은 60.49%의 대학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있는 반면, 국공립대학은 40%에 머물고 있어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의 차이가 20% 이상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2> [전문대학] 설립 유형별 교양교육 전담조직 설치 현황

유형	국공립	사립
설치 대학	2	49
미설치 대학	3	32
설치 비율(%)	40.0	60.49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설치 현황을 대학 규모별로 살펴보면, 재학생 3천명 이상의 대학은 69.76%의 대학이 전담조직을 설치한 반면, 1천명 미만 대학은 57.14%의 대학이 전담조직을 설치하였고, 1천명 이상-3천명 미만의 대학은 44.83%의 대학만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3> [전문대학] 규모별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

규모	1천명 미만	1천명 이상 ~ 3천명 미만	3천명 이상
설치 대학	설치 대학	8	13
미설치 대학	미설치 대학	6	16
설치 비율(%)	설치 비율(%)	57.14	44.83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의 설치 상황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전문대학은 응답대학의 85.71%가 설치하였고 인천·경기 지역의 전문대학은 72.00%가 설치한 반면, 영남권 전

문대학은 응답대학의 40.74%만이 전담조직을 설치했다고 응답하여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II-114> [전문대학] 권역별 교양교육 전담조직 설치 현황

소재지	서울	인천·경기	영남권	호남제주권	강원충청권
설치 대학	6	18	11	8	8
미설치 대학	1	7	16	5	6
설치 비율(%)	85.71%	72.00%	40.74%	61.53%	51.74%

교양교육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나 교양과정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위원회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 관련 위원회를 통해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대학이 16개교 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교양 관련 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대학이 15개교 31%로 나타났다. 3순위로는 교무처 또는 교무 관련 기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대학이 10개교 20%를 차지했으며, 그밖에 NCS지원센터나 직업교육역량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등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대학들도 있었다.

<표 II-115> [전문대학] 교양교육 관련 주요 의사결정 조직 현황

순위	교양교육 관련 주요 의사결정 조직	빈도	비율(%)
1	교육과정개발위원회, 교육과정심의운영위원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교육과정조정위원회, 교육운영위원회	16	33
2	교양과목심의위원회, 교양과정운영위원회, 교양교과교육과정운영위원회, 교양교과운영위원회, 교양교육과정개발소위원회, 교양교육과정심의위원회,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교양교육심의위원회, 교양교육운영위원회, 교양교육평가위원회, 교양인성연구위원회	15	31
3	교무처, 교무팀, 교무위원회, 교무학생처, 교학처	10	20
4	NCS지원센터, 직업교육역량지원센터, 직업기초교양인성교육심의위원회	4	8
5	교수학습지원센터	1	2
	교육품질관리위원회	1	2
	대학평의회	1	2
	기타	1	2

5.2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구성원

교양교육 전담조직이 있는 전문대학의 경우, 전담조직 소속 교원(정년전임, 정년비전임, 비전임, 정규직, 계약직)은 평균 6.74명, 직원은 평균 1.78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II-116> [전문대학]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직원 현황

구분	정년 전임	비정년 전임	비전임	교원 계	정규직	계약직	직원 계	계
인원수	2.04	1.2	3.5	6.74	0.96	0.82	1.78	8.52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 가운데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평균 2.04명(30.27%)이었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평균 1.2명(17.80%)이었다. 한편 비전임교원은 3.5명(51.93%)이어서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은 절반 이상을 비전임 교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17> [전문대학] 교양교육 전담조직 교원의 직군별 비율

전체	정년 전임	비정년 전임	비전임	계
평균 명	2.04	1.2	3.5	6.74
비율	30.27	17.80	51.93	100.00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직원은 정규직과 계약직 비율이 각각 53.93%, 46.07%로, 정규직 직원이 조금 많았다.

<표 II-118> [전문대학] 교양교육 전담조직 직원의 직군별 비율

전체	정규직 직원	계약직 직원	계
평균 인원수	0.96	0.82	1.78
비율(%)	53.93	46.07	100.00

5.3 교양교육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 부서장의 위상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부서장의 위상과 관련한 설문에 응답한 50개교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교양교육 전담조직 부서장은 부처장(센터장)급인 경우가 50개교 가운데 32개교(64%)로 가장 많았다. 물론 교무위원급인 경우도 15개교(30%)에 이르렀다. 그밖에 팀장급이 맡는 경우도 있었으며, 기타라고 응답한 대학이 2곳 있었다.

<표 II-119> [전문대학] 교양교육 전담조직 부서장의 위상

전체	대학의 수	비율
교무위원급	15	30
부처장(센터장)	32	64
팀장급	1	2
기타	2	4
계	50	100

부서장의 위상을 대학 설립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응답대학 중 국공립대학은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부서장이 모두 교무위원급이었던 반면, 사립대학은 교무위원급이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부서장을 맡는 경우가 27.08%(13개교)에 불과하였다.

<표 II-120> [전문대학] 설립 유형별 교양교육 전담조직 부서장의 위상

구분	사립		국공립	
	대학 수	비율(%)	대학 수	비율(%)
교무위원급	13	27.08	2	100.00

부서장의 위상을 대학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천명 미만의 전문대학에서는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부서장을 교무위원급으로 보임하는 경우가 50%로 가장 많았으며,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전문대학과 3천명 이상 8천명 미만의 전문대학에서는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부서장을 부처장(센터장)으로 보임하는 경우가 각각 58.33%와 72.41%로 가장 많았다. 8천명 이상의 대학은 1개교가 답하였는데, 역시 부처장(센터장)으로 보임하였다.

<표 II-121> [전문대학] 규모별 교양교육 전담조직 부서장의 위상

규모	1천명 미만		1천명 이상~3천명 미만		3천명 이상~8천명 미만		8천명 이상	
	대학 수	비율	대학 수	비율	대학 수	비율	대학 수	비율
교무위원급	4	50.00	4	33.33	7	24.13		
부처장(센터장)	3	37.50	7	58.33	21	72.41	1	100.00
팀장급					1			
기타	1	12.50	1	8.33		3.46		
계	8	100.00	12	100.00	29	100.00	1	100.00

5.4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주요 활동

응답대학 84개교 가운데 교양교육과정위원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은 75개교로 전체의 89.29%로 나타났다.

<표 II-122>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설치 현황

구분	위원회 설치	위원회 미설치
대학 수	75	9
비율(%)	89.29	10.71

교양교육과정위원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대학 설립 유형별로 분석하

면 사립대학은 88.61%가 설치하고 있고, 국공립대학은 100%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공립대학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

<표 II-123> [전문대학] 설립 유형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설치 현황

유형	사립	국공립
위원회 설치 대학 수	70	5
위원회 설치 비율(%)	88.61%	100%

교양교육과정위원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 설치 여부를 대학 규모별로 분석하면 재학생 3천명 미만의 규모를 가진 대학의 90.69%, 3천명 이상의 규모를 가진 대학의 87.80%가 교양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24> [전문대학] 규모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설치 현황

규모	3천명 미만	3천명 이상
위원회 설치 대학 수	39	36
위원회 설치 비율(%)	90.69	87.80

교양교육과정 위원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 설치 여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호남제주권은 응답한 모든 대학에서 설치하였고, 서울 및 강원충청권에서는 85.71% 설치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125> [전문대학] 권역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설치 현황

소재지	서울	인천·경기	영남권	호남제주권	강원충청권
설치 수	6	21	25	11	12
비율(%)	85.71	87.5	89.28	100	85.71

5.5 교양교육과정 위원회 구성 현황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 교양교육 전담조직 소속 교원이 50%이상 참여한다고 응답한 대학은 전체 응답대학 74개교 중 32개교로 43.24%로 나타났다.

<표 II-126>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위원회 구성 현황(1)

위원회 구성	교양 전담조직 교원 50% 이상	교양 전담조직 교원 50% 미만
빈도	32	42
비율(%)	43.24	56.76

교양교육과정 위원회의 외부기관 참여 여부에 관한 문항에는 전체 응답대학 60개교 중 17개교(28.33)가 위원회에 외부기관의 위원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127>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위원회 구성 현황(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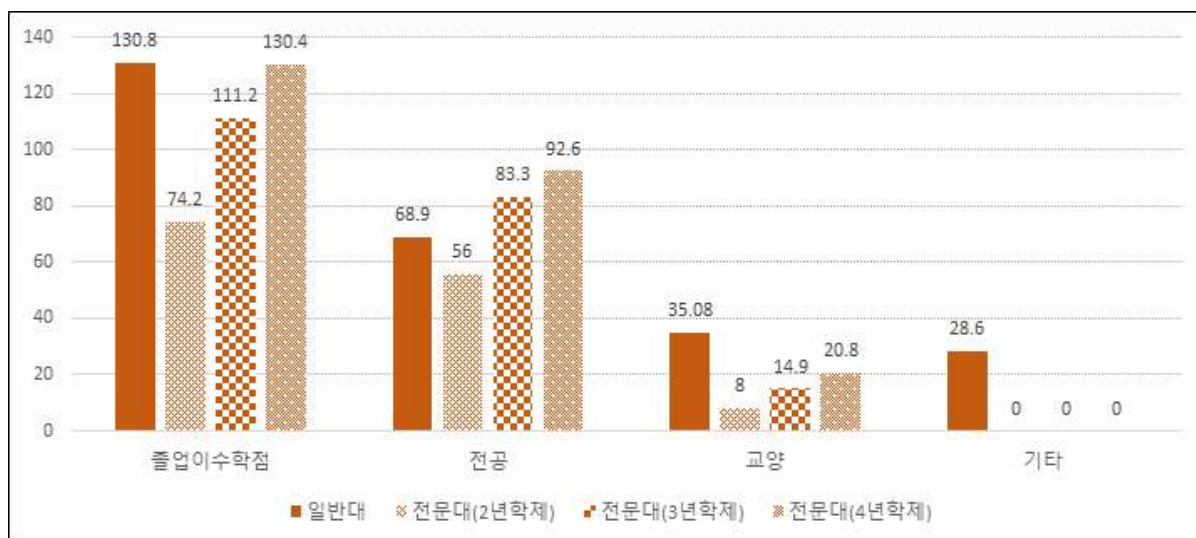
위원회 구성	외부기관 위원 참여	외부기관 위원 미 참여
빈도	17	43
비율(%)	28.33	71.67

2018학년도 기준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평균 2.347회였다.

Ⅲ.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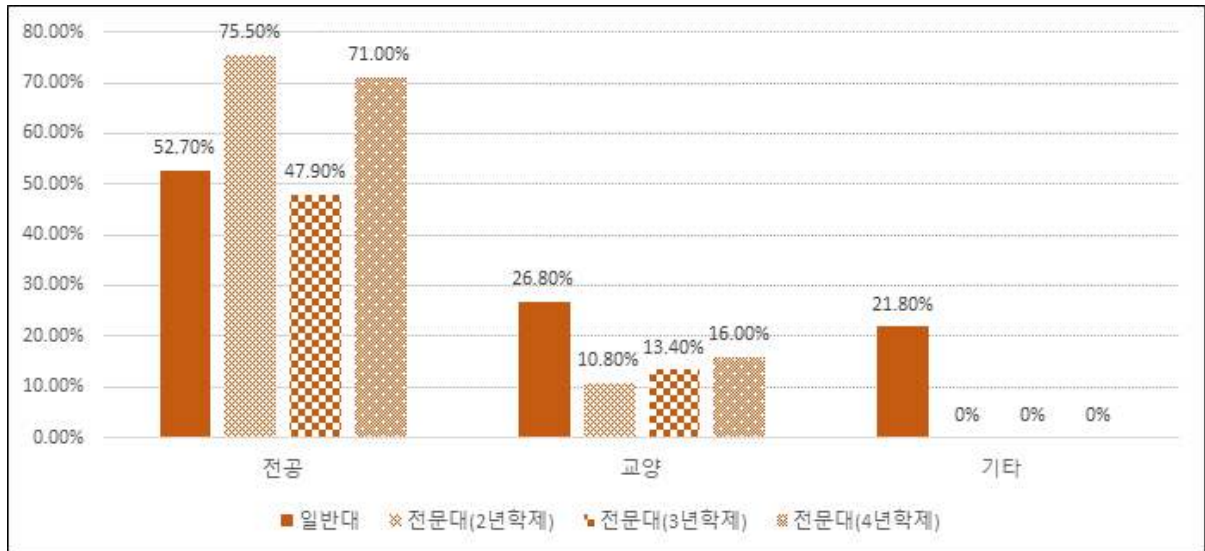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함께 공유하는 많은 부분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설립목적과 지향하는 교육목표에 있어서 각각 차별화되어 있어 그것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2019학년도 졸업이수학점 체계를 분석한 결과, 일반대학의 졸업이수학점은 평균 130.81학점, 전문대학의 졸업이수학점은 2년제 74.2학점, 3년제 111.2학점, 4년제 130.4학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공 학점은 일반대학의 경우 평균 68.9학점이었으며, 전문대학의 전공 학점은 학제에 따라 2년제 평균 56.0학점, 3년제 평균 83.3학점, 4년제 평균 92.6학점이었다. 교양 학점은 일반대학의 경우 평균 35.08학점이었으며, 전문대학의 교양 학점은 학제에 따라 2년제 평균 8학점, 3년제 평균 14.9학점, 4년제 평균 20.8학점이었다. 전체 졸업이수학점에서 교양 학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대학 26.82%, 전문대학 13.8%를 차지하여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에 비하여 교양교육과정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⁴⁾



[그림 III-01]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졸업이수학점 체계(2019학년도)

34) 전문대학의 4년제 과정의 경우 교양 졸업기준학점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4년제 학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학과의 간호교육인증평가제도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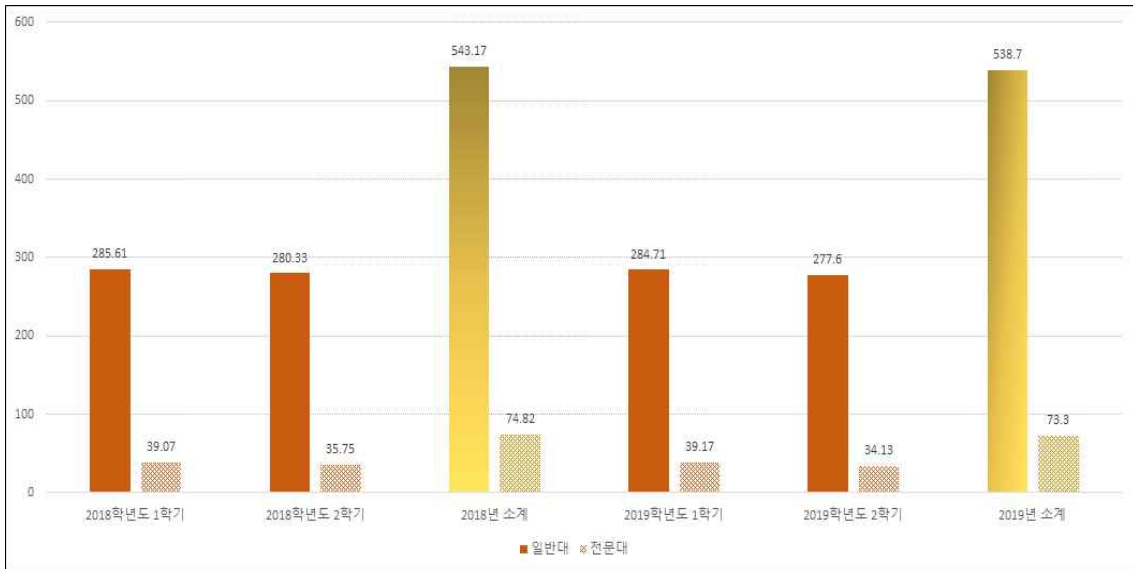


[그림 III-02]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전공 학점과 교양 학점 비율(2019학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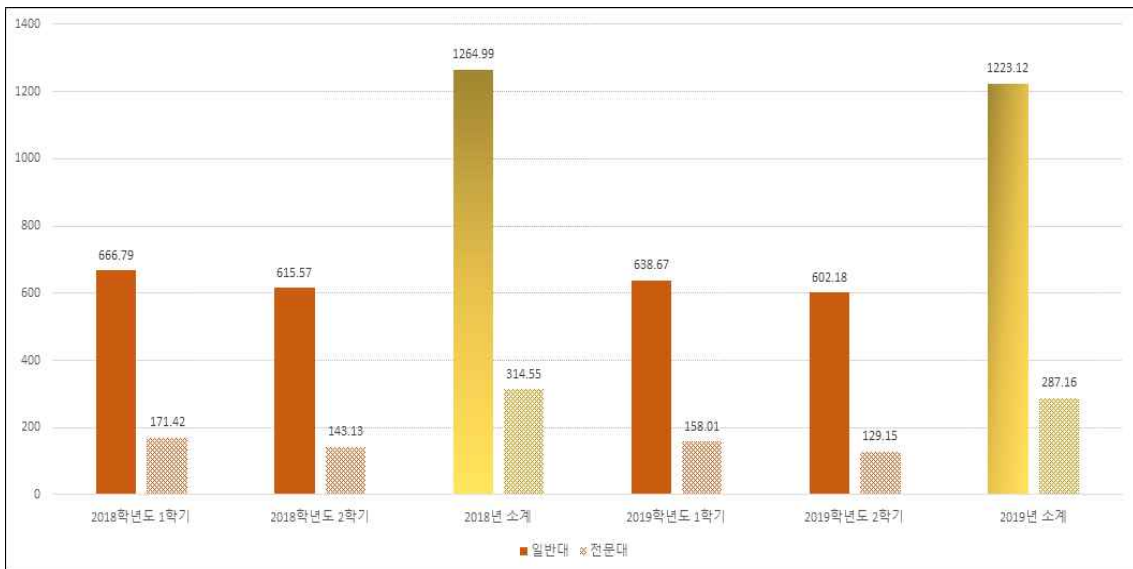
교양필수 교과목의 경우 일반대학은 평균 10.82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은 평균 44.59개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2019학년도 교양 교과목 수와 강좌 수가 2018학년도 대비 감소하였다. 교과목 수는 일반대학이 543.17개에서 538.70개로, 전문대학은 74.82개에서 73.30개로 감소하였으며, 강좌 수는 일반대학이 1,264.99개에서 1,223.12개로, 전문대학은 314.55개에서 287.16개로 감소하였다.

일반대학에 비하여 전문대학의 교양 교과목 수가 평균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은 대학의 규모 차이와 함께 전체 졸업이수학점에서 교양 학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대학(26.82%)에 비하여 전문대학(13.8%)이 낮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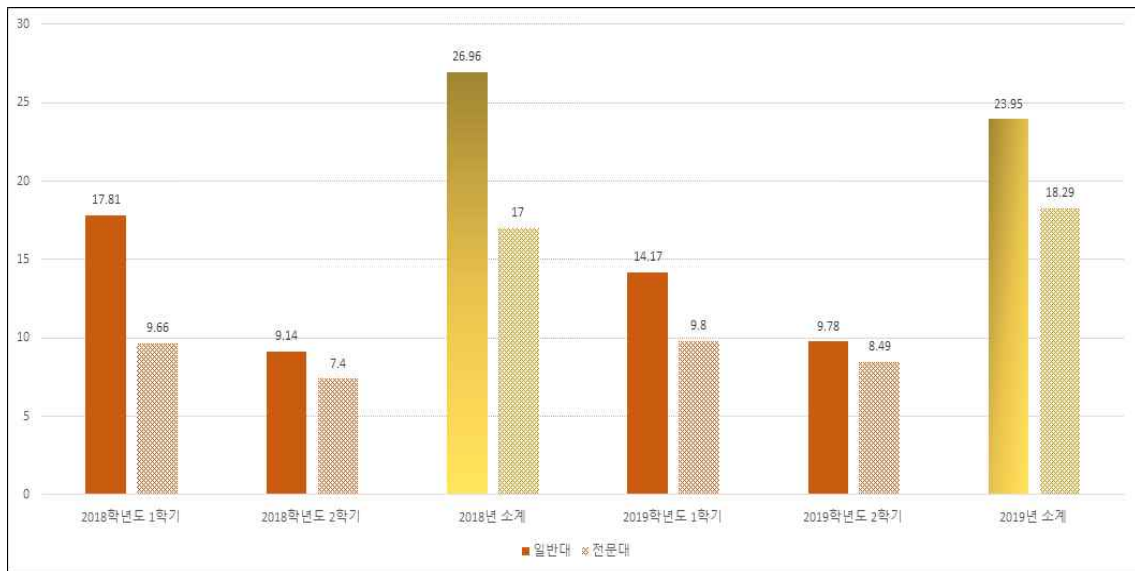


[그림 III-03]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양 교과목 수(2018~2019학년도)



[그림 III-04]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양 강좌 수(2018~2019학년도)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에 신규로 개설한 교양 교과목 수를 살펴보면, 일반대학의 경우 2018학년도 평균 26.96개 교과목, 2019학년도 평균 23.95개 교과목을 신규 개설하였으며, 전문대학은 2018학년도 평균 17.00개 교과목, 2019학년도 평균 18.29개 교과목을 신규 개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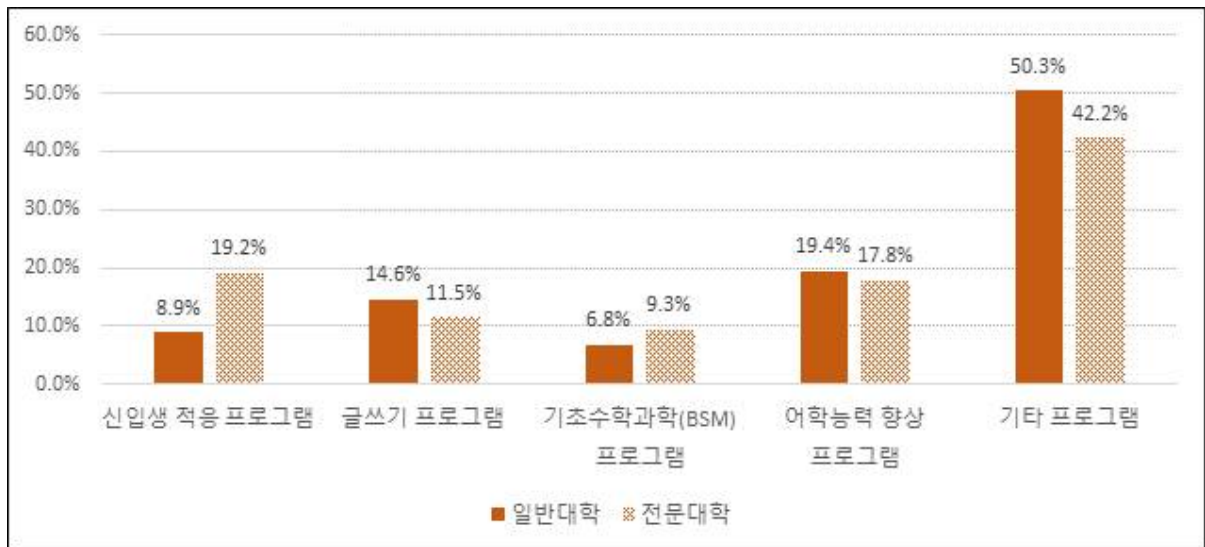
[그림 III-05]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신규 교양 교과목 수(2018~2019학년도)

교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9학년도에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서 개설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비교하면, 설문에 응답한 79개 일반대학에서 개설한 비교과 프로그램은 1,502개로, 대학 당 평균 19.1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 반면, 전문대학은 72개 대학에서 901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대학 당 평균 15.91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가장 많이 개설된 비교과 프로그램은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 모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법 관련 프로그램 등의 기타 프로그램(일반대학 50.34%, 전문대학 42.24%)이었다. 기타 프로그램 이외 비교과 프로그램으로는 일반대학의 경우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19.36%), 글쓰기 프로그램(14.57%),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8.94%)이 많이 개설되었고, 전문대학에서는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19.17%),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17.79%), 글쓰기 프로그램(11.50%)이 많이 개설되었다. 전문대학의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이 일반대학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은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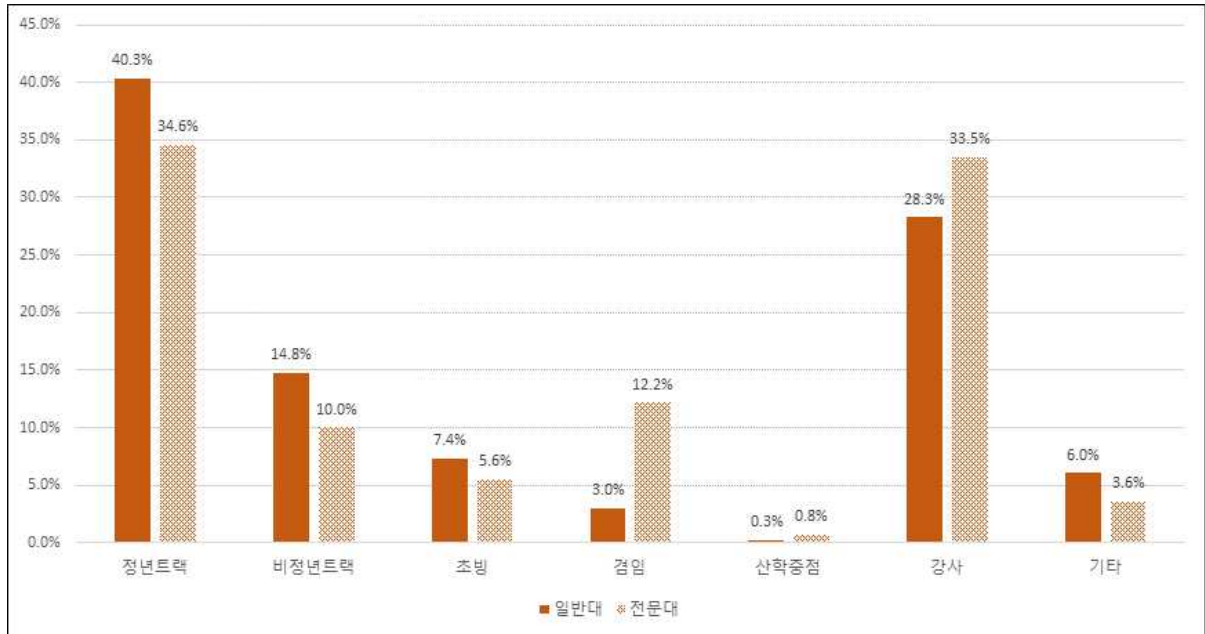
<표 III-01>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현황(2019학년도)

프로그램 유형	구분	총계	평균	유형별 빈도율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일반대학	134	1.7	8.94
	전문대학	180	3.05	19.17
글쓰기 프로그램	일반대학	219	2.77	14.57
	전문대학	88	1.83	11.50
기초수학과학(BSM) 프로그램	일반대학	102	1.29	6.79
	전문대학	77	1.48	9.30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	일반대학	291	3.68	19.36
	전문대학	153	2.83	17.79
기타 프로그램	일반대학	756	9.57	50.34
	전문대학	403	6.72	42.24
총계	일반대학	1,502	19.01	100.00
	전문대학	901	15.91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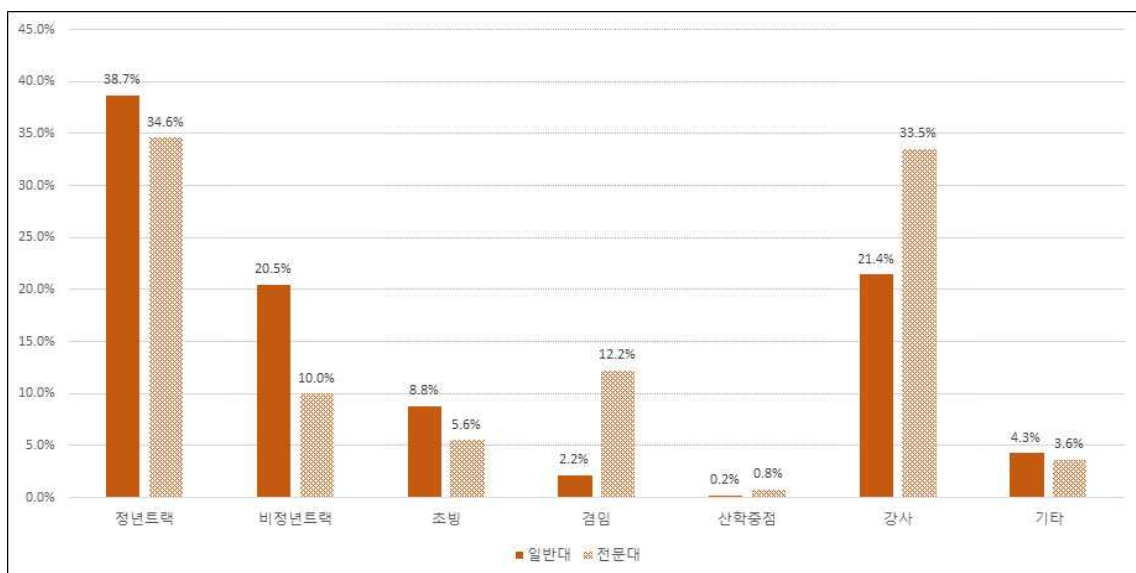
[그림 III-06]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현황(2019학년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 현황을 비교해 보면, 일반대학의 경우 전임 교원 비율이 55.13%로 비전임교원 비율 44.87%에 비해 높은 반면, 전문대학은 전임교원 비율이 44.6%, 비전임교원 비율이 55.48%로 비전임교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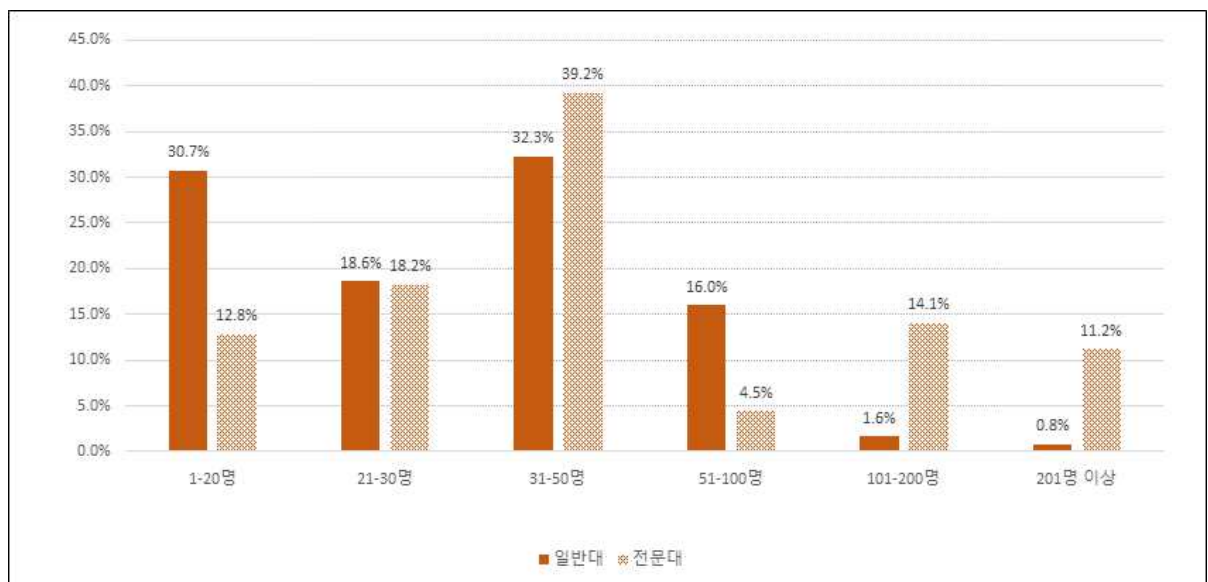
[그림 III-07]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 현황(2018~2019학년도)

2018~2019학년도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비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대학은 전임교원이 59.13%, 비전임교원이 40.87%의 교양 강좌를 담당하여 전임교원의 교양 강좌 담당 비율이 높은 반면, 전문대학은 전임교원이 48.55%, 비전임교원이 51.45%의 교양 강좌를 담당하여 비전임교원의 교양 강좌 담당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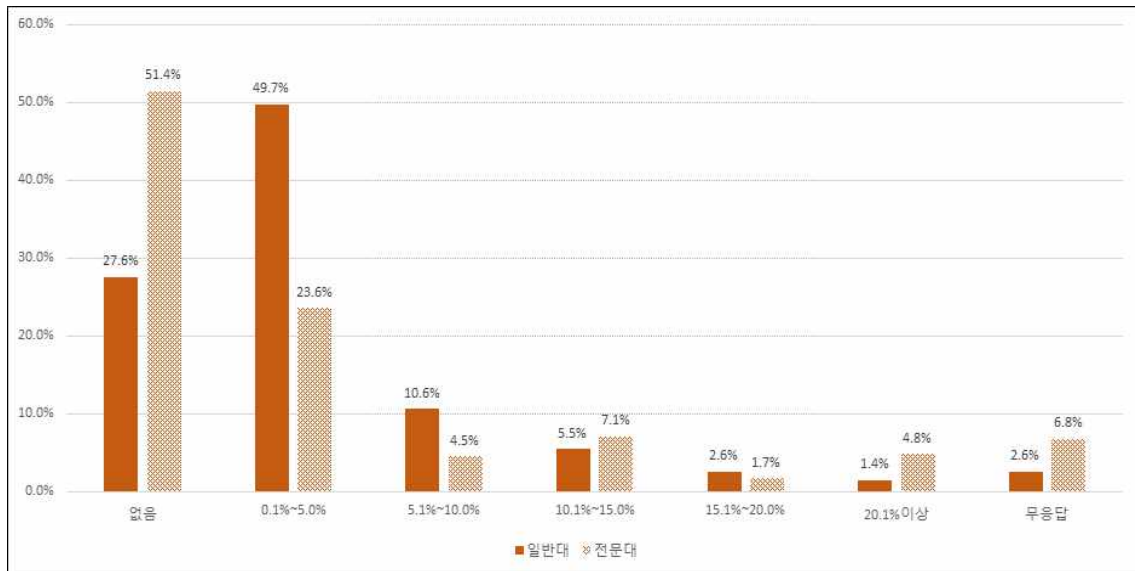
[그림 III-08]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원 유형별 교양 강좌 담당 비율(2018~2019학년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2018~2019학년도 교양 교과목의 강좌 규모를 비교하면, 일반대학의 경우 1-20명 규모의 소규모 강좌가 30.71%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문대학에서는 12.88%에 그쳐 일반대학이 소규모 강좌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대규모 강좌인 101-200명 규모의 강좌와 201명 이상의 강좌는 일반대학이 각각 1.62%와 0.7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에서는 각각 14.10%와 11.23%를 차지하고 있어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에 비하여 대규모 강좌를 훨씬 많이 개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09]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양 교과목 강좌 규모 현황(2018~2019학년도)

2018~2019학년도 온라인 교과목이 전체 교양 교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검토한 결과, 온라인으로 교양 교과목을 단 한 과목도 개설하지 않은 대학의 비율이 일반대학 27.59%, 전문대학 5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 교과목의 비율이 20.1% 이상인 대학은 일반대학(1.44%)에 비해 전문대학(4.83%)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교과목 비율은 그 변화가 미미하나,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019학년도 전후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 III-10]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온라인 교양 교과목 현황(2018~2019학년도)

IV. 대학 교양교육의 문제점

① 일반대학 교양교육의 문제점

1. 교양교육의 목적/목표

1.1. 교양교육의 목적 및 목표 설정 문제

일반대학은 설문에 응답한 대학 가운데 96.55%의 대학이 교양교육의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대학이 교양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대학 전체의 교육 목표와 부합하면서도 교양교육만의 고유성을 지닌 교육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널리 인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사립대학은 대학의 규모와 관계없이 교육목표를 모두 설정하고 있었으며 국립대학 역시 2,000명 미만의 3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대학의 교양교육이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학의 규모나 설립 유형에 관계없이 대학의 설립이념을 구현하고 교양교육의 보편적인 목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학별 교육목적과 목표를 설정해 두어야 한다. 교양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교양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기는 했으나, 교육 목적과 목표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결과 목표를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목적과 목표에 같은 내용을 담아놓은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양교육의 목적이나 목표를 일단 설정해 놓은 것 자체만으로도 교양교육에 대한 의지를 읽어낼 수 있어 긍정적이었다. 다만 좀 더 명확하고 정교하게 가다듬어 교양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 나가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1.2. 교양교육의 목적 및 목표 내용 문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는 「교양교육표준안」에서 교양교육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교양기초교육이란 대학 교육 전반에 요구되는 기본적 지식 및 자율적 학구능력의 함양을 포함하여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으로, 학업분야의 다양한 전문성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교육이다.”³⁵⁾ 특히 글로벌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상을 맞아 교양교육은 비판적·창의적 사고와 원활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적 삶을 자

35)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http://konige.kr/sub02_08.php

울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교양교육의 목적과 목표는 각 대학의 설립이념을 구현하면서도 교양교육의 이와 같은 보편적 이념과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84개 대학의 교양교육목적 키워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교양교육의 목적은 아래 <표 IV-01>에서 보는 바와 같은 7개의 대범주로 구분된다. 일반대학이 교양교육 목적 또는 목표로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가치는 <인격, 도덕, 리더십>과 <창의, 융합, 미래사회, 문제해결>이었다. 그 다음이 <봉사, 공동체, 민주시민, 국가>와 <기본, 소통능력, 핵심역량>, <지성, 교양, 인문, 감수성>, <국제화, 다문화>였으며, <진로, 직업,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고 있었다.

<인격, 도덕, 리더십>과 <창의, 융합, 미래사회, 문제해결>은 인격 형성이라는 교양교육의 보편적 이념과 함께 교양교육이 시대 변화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많은 대학에서 다양한 변주를 이루며 교양교육의 목적 및 목표로 활용되고 있다.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양교육과정에서도 핵심역량이 강조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기본, 소통능력, 핵심역량>이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로 제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와 함께 <봉사, 공동체, 민주시민, 국가>와 <지성, 교양, 인문, 감수성>이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로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는 점은 고등교육의 본질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자각이 교양교육의 목적 및 목표에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밖에 <국제화, 다문화>를 교양교육의 목적 및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대학이 적지 않은 것은 오늘날의 사회 및 고등교육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의 마지막 대범주로 묶을 수 있는 <진로, 직업, 전문성>은 16개 대학에서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교양교육의 보편적 이념이나 목적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교양교육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진로와 직업에 대한 교육, 전문성 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는 전공교육에서 추구할 지표라는 점에서 교양교육의 목적이나 목표로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01> 교양교육의 목표 키워드

순위	대범주	소범주 수	키워드 수	빈도 수	빈도비율(%)
1	인격, 도덕, 리더십	6	27	122	24.5
2	창의 융합, 미래사회, 문제 해결	6	30	118	23.7
3	봉사, 공동체, 민주시민, 국가	4	16	70	14.1
4	기본, 소통능력, 핵심역량	3	16	65	13.1
5	지성, 교양, 인문, 감수성	5	21	62	12.5
6	국제화, 다문화	2	9	46	9.3
7	진로, 직업, 전문성	3	13	16	3.2
	계	29	132	499	100.0

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내용

2.1 졸업이수학점 대비 교양 학점의 문제

설문에 응답한 84개 대학의 졸업이수학점은 평균 130.81학점이었다. 교양 학점은 평균 35.08학점으로 졸업이수학점의 26.8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과 전공, 자유선택의 학점 비율은 이번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할 때 대체적으로 ‘2.6 : 5.2 : 2.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³⁶⁾ 이를 ‘3 : 4 : 3’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고등교육 현실과 견주어 보면,³⁷⁾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전공교육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교양교육과 자유선택교육은 위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졸업이수학점 체계는 우리나라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공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조해 온 결과, 아직도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³⁸⁾ 지식정보화사회에 진입한 오늘날 과거 산업화 시대의 교육과정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점에서 전공 중심의 이와 같은 졸업이수학점 체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교양교육과정의 이수학점과 자유선택학점의 비중을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2 계열별 교양 이수학점의 편차와 이수 교과목의 문제

교양교육은 보편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전공 계열에 따라 교양 이수학점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 현실이다.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의학계열은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교양 이수학점이 약 10학점 정도 적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계열 학생들로 하여금 인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양교육을 등한히 하도록 제도화한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과정이 과연 의학 분야의 바람직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비단 의학계열의 문제만은 아니다. 교양교육은 보편교육이라는 점에서 전공계열을 불문하고 말 그대로 보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학계열과 함께 문제가 심각한 것은 공학계열 학생들의 교양 이수학점이다. 공학계열은 의견 상 가장 많은 교양 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전공기초에 해당하는 과목들이 교양필수 및 선택 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⁹⁾ 따라서 공학계열은 명목상 교양학점의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실제 전공 기초 성격의 STEM 계열(수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환경) 과목을 제외하면 다른 학문에 접할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공학계열 학생을 위한 대학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STEM계열 교육과정이 건실하게 운영

36) 교양교육과정에 평균 6.57학점 이상의 전공기초/전공예비 교과목을 편성해 놓은 대학이 53.33%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교양 학점은 28.51학점으로 졸업이수학점 130.81학점의 21.79%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면 교양 : 전공 : 자유선택의 비율은 ‘2.0 : 5.8 : 2.2’로 현재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전공 편향성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37) 김지현·신의향, 『대학의 학부교육: 세계 대학의 우수 사례』, 교육과학사, 2017, 19~93쪽.

38) 대학 교육의 자율화를 명분으로 1995년 2월 28일 “일반교양과목의 학점 배정 기준은 전체 과목의 30%로 한다.”는 「교육법시행령」 제119조 3항이 삭제되면서 교양 학점은 더욱 축소되었다.

39) II장 ㉠의 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내용에서 제시한 <표 II-18>, <표 II-20>, <표 II-21> 참조.

될 필요가 있으며, STEM 계열 이외 학문 분야의 교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해야 한다.

2.3 교양필수 교과목의 편향성 문제

75개 대학의 교양필수 교과목을 분석한 결과, 교양필수 교과목은 외국어, 의사소통, 인성 및 리더십, 역사·철학·종교, IT·컴퓨터, 진로·취창업, 수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환경, 기타 8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 대학은 평균 3.28개 영역으로 교양필수 교과목을 범주화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가장 많이 개설되는 영역은 외국어와 의사소통 영역의 교과목이었으며, 인성 및 리더십 영역의 교과목이 그 뒤를 이었다. 역사·철학·종교 영역이 4순위에 오른 것은 조사대상 대학 가운데 특정 종교 계열의 대학이 일정 부분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⁰⁾ 이를 논외로 한다면 최근 SW 교육이 중요시되면서 IT·컴퓨터 영역의 교과목이 교양필수로 중시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교양필수 교과목은 대학의 설립이념 구현을 위하여 개설하거나 교양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편성할 수 있고, 실제로 <표 IV-0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와 연결할 수도 있다.⁴¹⁾ 그러나 이와 같은 교양필수 교과목이 교양교육의 보편적 이념과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숙고를 요한다. 교양필수 교과목이 기초교육을 위한 교과목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양필수 교과목과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를 연계한 <표 IV-02>에서 보듯 교양필수 교과목이 교양교육의 목적이나 목표의 상위 순위를 충족하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점과도 연계되어 있다. 특히 교양 이수학점의 절반을 필수로 이수하게 되어 있는 현실에서 보면, 이 문제는 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교양교육의 본령은 기초교육이나 소양교육이 아니라 교양교육이고, 학점 배분도 그에 상응하도록 안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⁴²⁾

40) 가톨릭대학교와 신학대학교 등 특정 종교 계열의 대학이 조사대상 87개교 가운데 15개(17.24%)에 이르고 있어 교양필수 교과목의 우선 순위를 해석할 때에는 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41) 교양필수 교과목 가운데 기타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들은 신입생 세미나 성격의 교과목이 많은데, 구체적인 교과목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통일과복합, 기업가정신, 새내기세미나I, 새내기세미나II, 인간의가치탐색, 세계와시민, 빅뱅에서문명까지, 광운인되기, 전문·실무·인문·창의, 창의적사고와문제해결, 대학생활설계, 문제해결과 대인관계, D-MAP동기부여1, D-MAP동기부여2, 디자인과창의적발상, 창의적대학설계, 대학생활의설계, 노작(그린)교육, 다른곳의세계와나, 상상속의아이디어, 디자인프레젠테이션, 21세기인간학, 상상력에의초대, 문제해결의힘, 내인생의성공학·실패학, 대학생활길라잡이, 사회봉사실천, 비전멘토링, 드림프로젝트, 인권과평화, 대학생활세미나, 도전과창조, 한반도평화와통일, 대학생활과자기혁신, 졸업논문, 대학생활1, 대학생활2, 앙트레프레너십시대의회계, 디자인적사고와문제해결, ACT, 대학생활의설계, 대학생활과미래설계I, 대학생활과미래설계II, [삶의질문]삶의큰질문:사랑, [삶의질문]삶의큰질문:인생, 디자인Thinking, 상상력이노베이터(라이프스타일을바꾸는아이디어), 상상력이노베이터(문화적차이를이해하는공감력), 상상력이노베이터(미래를바꾸는과학기술), 상상력이노베이터(사회를바꾸는생각), 대학생활설계와비전, 통일문제연구, 다문화주의연구, 인간과환경, 양성평등과가족

42)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http://konige.kr/sub02_08.php

〈표 IV-02〉 교양필수 교과목 영역과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의 상관관계

순위	필수교양 교과목 영역	순위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 키워드
1	외국어	4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 세계시민, 국제경쟁력
2	의사소통	8	소통, 소통능력, 의사소통, 의사소통능력, 문해력
3	인성 및 리더십	1	인격, 인성, 인간성
		11	리더, 리더십, 지도자, 사회지도자, 자기주도, 자기관리
		12	봉사, 봉사정신, 봉사활동, 봉사능력, 사회봉사
4	역사·철학·종교	13	기독교, 기독교적, 기독교 정신
		25	인문, 인문학적
5	IT, 컴퓨터	23	4차 산업혁명, 소프트웨어, SW, 디지털, 정보, 정보화, 지식정보화, 정보통신, 기술, 과학기술
6	진로·취창업	28	진로, 취업, 창업, 취창업
		28	직업기초능력, NCS, 현장실무능력, 실무적, 실용
7	기타		해당 없음
8	수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환경	5	기본기, 기본능력, 기본소양, 기본역량, 기초, 기초교육, 기초소양, 기초역량, 기초지식, 기초학업능력

2.4 전공기초/전공예비 교과목의 문제

전공기초/전공예비 교과목을 교양교육과정에 편성한 대학은 조사대상의 53.3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대학은 최소 2학점에서 24학점까지, 최대 4학점에서 44학점까지의 학점을 교양교육과정에 전공기초 교육을 위한 교과목으로 편성하고 있었다. 전공기초 교과목을 교양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비율은 공학계열이 가장 높았고, 인문학 계열이 가장 낮았다. 그 비율이 높을수록 학생들은 전공교육의 틀 안에 갇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른 학문분야에 대한 지적 도전, 융합 및 통섭을 위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교양교육이 궁극적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폭넓은 안목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실상 전공기초/전공예비 교과목은 전공교육을 위한 교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양교육과정에 편성함으로써 교양 학점을 전공교육을 위해 도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공교육이 교양 학점을 부당하게 잠식하고 있는 대학이 아직도 53.33%에 이르는 것은 우리나라 교양교육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전공기초/전공예비 교과목의 교양교육과정 편성은 양적 실적을 중시하는 대학 평가 등에서 대학의 교육과정 평가에 왜곡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

2.5 교양 교과목 및 강좌수의 축소 문제

일반대학의 2018-2019학년도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 당 평균 개설 교과목 수는 2018학년도 296.87개에서 2019학년도 293.93개로, 평균 개설 강좌 수는 2018학년도

956.76개에서 2019학년도 924.93개로 교과목 수와 강좌 수가 모두 감소하였다. 특히 강좌 수의 감소 폭이 컸다. 이는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강사법으로 인하여 대학들이 강사 수를 줄이기 위해 교양 교과목의 수와 강좌 수를 모두 감소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⁴³⁾ 강사법은 강사의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나, 이에 대한 대학의 대응은 교육적 차원보다는 대학 경영 차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킨 결과를 낳았다. 그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상태에 놓여 있었던 대학의 교양교육은 강사법의 시행과 함께 더욱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2.6 국제학생 대상 교양 교과목의 편향성 문제

국제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교양 교과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 의사소통(글쓰기, 사고와 표현, 의사소통 등) 교과목이 전체 교양 교과목의 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한국문화 교과목이 1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생활에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한 기초 어학 교육이지 엄밀한 의미의 교양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유학생들의 어학 능력을 감안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유학생들도 대학생으로서 보편적인 교양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정이 필요해 보인다. 외국의 대학과 같이 별도의 어학 코스를 일정 수준 이상 이수한 뒤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은 국제학생들도 동일하게 이수하도록 하여 교양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구별 없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2.7 교양교육과정의 영역 편성 문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대학 교양기초교육 표준 모델」에서 제시하는 대학의 교양기초교육 영역 구분에 의거하여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을 엄정하게 편성하고 있는 대학은 조사대상 74개교 가운데 14개교(18.92%)에 불과하였다. 기초교육과 교양교육, 소양교육 3개 영역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그 개념과 범주를 가장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는 영역은 소양교육 영역(23.38%)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각 대학마다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취·창업 교육을 비롯한 실용 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교양교육과정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구성원들의 요구가 크다보니, 소양교육 분야의 교양 교과목 편성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운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분야의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연구 성과를 전공에 관계없이 폭넓게 학습하도록 하는 교양교육 영역의 학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들 기초학문분야의 교과목은 교양교육과정에서 1과목 정도씩만 이수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보편지성교육으로서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본령은 교양교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학

43) 변기용, 「강사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과 해결방안」, 『대학교육』 20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9.

문헌단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 전공 분야 이외의 다양한 학문 영역에 대한 학습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위한 학점이 충분히 배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대학 구성원들이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을 위한 기초교육이나 전공교육보다 열등한 소양교육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교양교육의 의의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양교육 각 영역에 대한 개념과 범주의 명확한 설정과 교양교육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3.1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문제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총원은 감소하였으나 전임교원 비율은 증가하였다. 2018학년도에 비해 2019학년도에는 담당 교원의 수가 학기별로 6.72명과 9.14명이 감소하였고, 전임교원의 비율은 학기별로 정년트랙이 2.84% 포인트와 3.47% 포인트, 비정년트랙이 1.23% 포인트와 0.90%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03〉 학기별 평균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현황(인원수: 명)

학기	전임교원			비전임						총계
	정년 트랙	비정년 트랙	소계	초빙	겸임	산학 중점	강사	기타	소계	
2018-1	92.53	32.12	124.65	17.32	5.67	0.51	69.64	13.88	107.01	231.67
2018-2	79.32	30.97	110.30	15.09	5.27	0.55	66.65	13.28	100.85	211.15
2019-1	96.33	33.99	130.32	16.65	7.35	0.57	57.04	13.24	94.63	224.95
2019-2	82.91	31.46	114.37	14.86	7.35	0.51	52.85	12.07	87.64	202.01

〈표 IV-04〉 학기별 평균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비율(%)

학기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총계
	정년 트랙	비정년 트랙	소계	초빙	겸임	산학 중점	강사	기타	소계	
2018-1	39.94	13.86	53.80	7.48	2.45	0.22	30.06	5.99	46.20	100.00
2018-2	37.57	14.67	52.24	7.15	2.50	0.26	31.56	6.29	47.76	100.00
2019-1	42.78	15.09	57.87	7.39	3.26	0.25	25.33	5.88	42.11	100.00
2019-2	41.04	15.57	56.61	7.36	3.64	0.25	26.16	5.97	43.39	100.00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수와 구성비 변화는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강사법의 영향으로 이해된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동결이라는 여건 속에서 대학은 재정난을 심화

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강사법의 시행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대학 교육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교양 교과목을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비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이 악화되었다고 하는 이유는 교원, 교과목 수, 강좌 규모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문제만 거론하기로 한다. 무엇보다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원 가운데 교양교육 전담조직 소속 교원의 비율이 높지 않다. 2019학년도 2학기 기준,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82.91명이라고 하나, 교양교육 전담조직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9.42명에 불과하다. 교양교육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몰이해가 심각한 현실에서 교양 교과목의 90% 이상을 교양교육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전공 학과 교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단순히 교양 교과목을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담당한다고 해서 교양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교양교육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교원이 담당하는 교양 교과목은 교양교육의 본래 목적이나 취지와는 달리 기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지표 관리에만 신경을 쓰는 현실에서 강사법의 시행은 대학으로 하여금 이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도록 추동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편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1.46명 가운데 교양교육 전담조직 소속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14.87명이라는 사실은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2019년 9월 29일 기준, 대학 전체 교원 현황과 2019년 2학기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 현황을 비교하면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비 문제를 읽어낼 수 있다. 아래 <표 V-05>는 대학 전체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율에 비해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 가운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교양교육을 비전임교원의 영역으로 만들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⁴⁴⁾(<표 II-10>, <표 II-33> 참고)

<표 IV-05> 대학 전체 교원과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비율(2019-2학기 기준)

구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정년트랙	비정년트랙	
대학 전체 교원	비율(%)	39.89	7.67	52.44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	비율(%)	41.04	15.57	43.39

이번 조사에 응답한 87개 대학의 졸업이수학점 체계를 기준으로 할 때, 교양교육이 대학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26.82% 이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대학 교육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교양교육을 지금처럼 방임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구성 역시 그에 상응하도록 개선해야 마땅할 것이다.

44)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는 비전임교원의 비율은 대학 전체에 비해 낮으나, 이는 강사 한 명이 한 교과목에 개설된 다수의 강좌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산된다.

3.2 강좌 수와 강좌 규모의 문제

2018학년도 1,2학기과 2019학년도 1,2학기에 개설된 교양교육과정의 총 강좌 수를 분석한 결과, 1학기에 평균 546.58개 강좌에서 511.84개 강좌로, 2학기에는 평균 504.84개 강좌에서 474.52개 강좌로 학기당 약 30여 강좌씩이 줄어들었다. 그에 따른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⁴⁵⁾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담당 강좌 수는 감소한 반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담당 강좌 수는 증가하였고, 초빙·겸임·산학중점·기타 등 대부분의 비전임 교원 강좌 수가 증가하였으나 강사의 강좌 수는 감소하였다. 특히 2018년 2학기에 비하여 2019년 2학기 강사의 강좌 수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원 유형별 담당 강좌 비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임교원의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비율은 학기별로 비교할 때 약 3%가량 감소한 반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담당 강좌 비율은 0.6-1%가량 증가하였다. 대학 설립 유형별로 보면,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에서 교양 교과목을 전임교원이 강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에서는 국립대학에 비해 더 많은 비율의 전임교원이 교양 교과목 강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담당 강좌 수도 더 많았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양 교과목 담당 비율 또한 사립대학이 국립대학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원 유형별 강좌 수와 담당 비율의 문제는 강좌 규모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강좌 규모를 비교한 결과,⁴⁶⁾ 1~20명, 21~30명 규모의 소규모 강좌는 10% 이상 감소한 반면, 201명 이상의 대규모 강좌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같은 결과는 소규모 강좌를 중심으로 교양 교과목의 강좌가 축소되었음을 말해 준다. 교양 교과목의 총 강좌 수가 줄어들고 소규모 강좌가 축소되었다는 사실은 대학의 교양교육 환경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지식정보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교양교육 환경이 후퇴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

87개 대학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전국의 모든 대학은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유사한 형태의 개선 활동을 복수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80% 이상의 대학이 만족도 조사와 교과목 개선을 위한 교강사 워크숍 또는 간담회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수업평가(강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컨설팅을 비롯한 교수법 지원이나 인센티브 제공, 강의 제한, 교과목 개선을 위한 CQI 활동 등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교과목 개폐와 같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질 관리 활동과 외부기관 또는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 같은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질 관리에는 소극적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가 다소 형식적인 측면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

45) 3장의 <표 II-49>, <표 II-50>, <표 II-51>, <표 II-52>, <표 II-53> 참조.

46) 3장의 <표 II-54>, <표 II-55>, <표 II-56>, <표 II-57>, <표 II-58>, <표 II-59> 참조.

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은 질 관리 활동은 대학기관평가인증이나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같은 각종 대학 평가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질 관리 요소로, 대학이 평가에 대비한 교육과정의 질 관리 활동은 하되 실질적이면서도 자발적인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노력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향후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해서는 개선 활동의 실시 여부 혹은 양적 측면에서의 검토보다 개선 활동의 질적 충실성과 개선의 성과 점점에 초점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

5.1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설치 문제

일반대학의 교양교육 전담조직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87개 응답대학 가운데 89.66%의 대학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대학에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대학의 설립 유형에 따른 차이는 있어서 국립대학이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설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⁴⁷⁾ 그러나 더 많은 차별성이 나타난 것은 대학의 규모였다. 재학생 5천명 이상의 대학은 모두 교양교육 전담조직을 설치한 반면, 2천명 미만의 대학은 62.50%의 대학만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⁴⁸⁾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유무는 교양교육의 목표 설정,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 교양교육 운영의 안정성 등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작은 규모로라도 교양교육 전담조직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양교육의 방향성 상실, 운영 주체의 불분명성 등으로 인한 질적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2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 문제

2019학년도 2학기 기준,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 규모는 아래 보이는 <표 V-06>과 같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 규모는 대학 전체 교원의 6.43%에 불과하며,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는 전체 교원의 25.68%에 머물고 있다.

47) 국립대학은 조사대상 21개교 가운데 15개교(71.43%)가 교양교육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있었다.

48)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부서장은 82.06%가 교무위원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처장급인 경우가 12.82%였다. 재학생 5천명 이하의 중소규모 대학에서는 교무위원급이나 부처장급이 아닌 위상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

<표 V-06>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 현황(2019년 2학기 기준)

구분		정년 전임	비정년 전임	소계	비전임	총계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	인원수	82.91	31.46	114.37	87.64	202.01
	비율(%)	41.04	15.57	56.61	43.39	100.00
교양교육 전담조직 교원	인원수	9.42	14.87	24.29	27.58	51.87
	비율(%)	18.16	28.67	46.83	53.17	100.00
대학 전체 교원	인원수	321.72	61.84	383.56	422.89	806.45
	비율(%)	39.89	7.67	47.56	52.44	100.00

교양교육이 대학 교육 전체에서 최소 26.82%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 규모는 대학 전체 교원의 6.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대학의 교양교육은 외풍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 문제는 수적 문제만이 아니다. 교원의 구성 비율을 보더라도 교양교육 전담조직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비율이 대학 전체 평균 39.89%인데 비해 교양교육 전담조직은 18.16%에 불과하다. 반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비율은 대학 전체 평균 7.67%임에 비해 교양교육 전담조직은 무려 28.67%에 이른다.⁴⁹⁾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비전임교원 비율은 대학 전체보다 높은 53.17%에 이른다. 교양교육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나 비전임교원이 담당해도 무방하다는 부당한 인식이 우리나라 대학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교양교육 전담조직이 대학 교양교육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기획과 관리를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이 명실상부한 교양교육 전문조직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전임교원의 수를 늘리고 교원의 구성 비율을 정상화해야 하며, 전담조직에 속하지 않은 교원들과 소통하고 함께 기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5.3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문제

이번 설문에 응답한 87개교 가운데 94.25%에 이르는 82개교가 교양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교육과정위원회는 연간 평균 4.45회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활동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교양교육과정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우선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교양교육 전담조직 소속 교원이 50% 미만인 대학의 비율이 55.56%로 높아서 교양교육 담당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또 하나는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 외부기관 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대학이 29.85%에

49)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율은 국립대학이 3.92%인 데 비해 사립대학은 30.52%로 나타나 사립대학의 비정년 전임교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과하였다는 점이다. 교양교육과정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성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려면 외부기관의 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 위원의 참여 문제는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에서 더욱 유념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②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문제점

1. 교양교육의 목적/목표

1.1. 교양교육의 목적 및 목표 설정 문제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일반대학과는 교육체제가 상이하고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서도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목적이나 목표는 일반대학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88개 전문대학 가운데 71개교(80.68%)가 교양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96.55%의 대학이 교양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일반대학과 비교하면, 전문대학은 교양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은 대학의 비율이 15.87% 포인트 높다. 교양교육의 중요성이나 의의에 대한 인식이 전문대학에서는 그만큼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경우, 대학 규모에 따라서 교양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낮은 비율은 아니었다.⁵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 또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교양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을 통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동시에 한 사람의 인간을 길러내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 역시 대학의 규모나 설립 유형에 관계없이 대학의 설립 이념에 적합하고 교양교육의 보편적인 목적과 목표를 반영한 교양교육의 목적과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할 필요가 있다.

1.2. 교양교육의 목적 및 목표의 내용 문제

71개 전문대학이 설정하고 있는 교양교육의 목적 및 목표에 대한 진술을 키워드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목적 및 목표 키워드는 <표 IV-07>에서 보는 바와 같은 8개의 대범주로 구분된다. 전문대학이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로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가

50) 재학생 수 3,000명 이상의 전문대학에서는 88.63%의 대학이 교양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비해 재학생 수 3,000명 미만의 대학에서는 72.72%의 대학이 교양교육의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같은 전문대학의 현실적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치는 <창의, 융합, 미래사회, 문제해결>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인격, 도덕, 리더십>과 <진로, 직업, 전문성>이었으며, <기초교육, 소통능력>이 그 뒤를 이었다. <봉사, 공동체, 민주시민, 국가>, <국제화, 다문화>, <지성, 교양, 인문, 감수성>은 일반대학 달리 전문대학에서는 교양교육의 목표로 높은 순위를 점하지는 못하였으며, 최근 전문대학에서 급속히 주목하고 있는 <핵심역량>이 최하위에 자리하였다.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목적 및 목표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에서 주목할 점은 교양교육의 보편적 목적이나 목표보다는 전문대학의 특성이 강하게 투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창의, 융합, 미래사회, 문제해결>이 교양교육의 목적 및 목표로 가장 자주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진로, 직업, 전문성>과 <기초교육, 소통능력>이 교양교육의 목표로 강조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 도덕, 리더십>과 같이 교양교육의 보편적 목적과 목표를 반영한 가치가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목표로 중시되고 있음은 전문대학이 고등 직업인 양성만으로 그 기능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징표여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목적 및 목표는 이처럼 두 가지 서로 다른 목적 내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작금의 상황은 교양교육의 본질적 지향보다 직업인 양성이라는 전문대학의 현실적 특성에 치우쳐 있기는 하나, 고등직업인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교육의 총체적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교양교육의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표 IV-07> 전문대학 교양교육 목표의 키워드 범주 분류

순위	범주	소범주 수	키워드 수	빈도 수	빈도비율(%)
1	창의 융합, 미래사회, 문제 해결	5	21	54	24.3
2	인격, 도덕, 리더십	5	15	44	19.8
3	진로, 직업, 전문성	3	15	42	18.9
4	기초교육, 소통능력	2	12	30	13.5
5	봉사, 공동체, 민주시민, 국가	5	10	17	7.7
6	국제화, 다문화	2	7	16	7.2
7	지성, 교양, 인문, 감수성	4	7	13	5.9
8	핵심역량	1	1	6	2.7
	계	26	87	222	100

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내용

2.1 졸업이수학점 대비 교양 학점의 문제

설문에 응답한 88개 전문대학의 졸업이수학점 대비 교양 학점의 비율은 평균 13.8%였다. 이러한 수치는 2년제, 3년제, 4년제별 교양 학점 이수 비율의 평균값으로, 일반대학의 26.8%

에 비해 전문대학의 교양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4년제 전문대학의 교양 학점은 20.8학점(졸업이수학점 130.4학점의 16.0%)이었고, 3년제는 14.9학점(졸업이수학점 111.2학점의 13.4%), 2년제는 8학점(졸업이수학점 74.2학점의 10.8%)이었다. 기간이 짧은 학년제일수록 교양 학점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⁵¹⁾ 그 결과 전문대학에서는 직업능력개발 관련 교과목과 취·창업 관련 교과목, 영어 교과목, 진로 교과목, 인성 교과목, 사회봉사 교과목, 교시(종교) 교과목, 기초과학 교과목⁵²⁾을 이수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분야의 교양교육을 통해 인간과 세계, 자연에 대한 성찰과 이해를 심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교양 학점을 졸업이수학점 대비 최소 2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2.2 교양 교과목의 다양성 확보 문제

설문에 응답한 87개 전문대학에서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에 개설한 교양 교과목은 평균 74.82개와 73.30개였다. 또한 86개 전문대학에서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에 개설한 교양 교과목 강좌 수는 314.55개와 287.16개였다.

전문대학은 학기별로 평균 35개 내외의 교양 교과목밖에 개설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양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반대학에서 연간 개설하는 교양 교과목이 2018학년도 평균 296.87개, 2019학년도 평균 293.93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전문대학의 교양 교과목은 일반대학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전문대학의 교양 교과목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양 교과목을 담당할 기초학문분야의 교원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전문대학이 그러한 의지와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렇다고 기초학문분야 전공 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전문대학 현실에서 개별 학과의 전임교원들로 하여금 기초학문분야의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게 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초학문분야에서 학위를 받은 신진 연구인력을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3.1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문제

전문대학의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임교원이 48.55%, 비전임교원이 5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교양 강좌는 그 절반 이상을 비전임교원에 의

51) 전문대학 4년제 과정의 경우, 졸업이수학점 대비 교양 학점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은 각 대학의 정책적 판단이라기보다 간호학과와 간호교육인증평가제도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52) 기초과학 교과목은 전공기초 교육을 위한 교과목이라는 점에서 전공 교과목으로서의 성격이 짙다.

존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대학의 경우 전임교원이 59.13%, 비전임교원이 40.87%의 교양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전문대학의 교양 강좌는 상대적으로 비전임교원의 담당 비율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대학의 교양 강좌가 비전임교원 의존율이 높은 이유는 전문대학의 학과 구성이 인문·사회 영역보다 공학, 보건 계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교양 강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강좌를 담당해 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전문대학 내에 교양과가 존재하는 경우도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대학은 일반대학에 비하여 교양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더욱 더 열악하다고 하겠다.

3.2 교양 교과목 이수방식의 문제

대다수 전문대학의 경우, 교양 교과목은 일반대학과 달리 학생들이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별로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수방식은 교양필수만이 아니라 교양선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은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학습자의 자발적인 동기 유발에 원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율적인 선택권이 없이 주어지는 대로 이수해야 하는 전문대학 1학년의 교양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교육의 연장이라는 인식까지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이면에는 다양한 교양 교과목을 제공하기 어려운 전문대학의 현실적인 한계, 충분한 교원 확보가 어려운 전문대학의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4.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개선 활동은 전국의 모든 대학이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양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하여 전문대학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활동은 만족도 조사로, 67개교(76.14%)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교과목 개선을 위한 CQI 활동으로 61개 대학(69.32%)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외부기관이나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은 12개교(3.3%)에서만 시행하여 가장 낮은 개선 활동 방법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한국교양기초교육원과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 컨설팅은 교양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체계화와 질적 개선을 위한 전향적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확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양교육과정의 개선 활동 시행 여부 또는 양적 측면에서의 점검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개선 활동의 질적 충실성, 개선의 성과 점검 등에 초점을 맞추어 교양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5. 교양교육 전담조직

5.1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설치 문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전담조직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86개 응답대학 가운데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대학은 51개교로 응답대학의 59.30%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국공립대학은 40%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설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의 규모에 따라 재학생 3천명 이상의 대학에서는 69.76%가 전담조직을 설치한 반면,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대학에서는 44.83%의 대학만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에서는 교양교육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대학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나 NCS지원센터 등에서 교양교육까지 맡아 운영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규모나 교원 현황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롭게 설치 운영하라는 요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설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학점 배분, 교원의 확보,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설치 문제는 전문대학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교양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학문분야의 교원을 소속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교양교육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는 있다.

5.2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구성원 문제

교양교육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소속 교원은 평균 6.74명이었으며 직원은 평균 1.78명이었다. 교양교육 담당 교원의 수에 비해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교원 수는 상당히 적었다. 또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합친 전임교원은 3.24명인데 반해, 비전임교원이 3.5명으로 교양교육 전담조직 교원의 51.93%를 차지하고 있었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직원은 평균 1.78명으로 정규직과 계약직의 비율이 각각 53.93%, 46.07%로서 정규직 직원이 과반을 조금 넘는 비율을 보였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구성원은 교원과 직원 모두 절대 인원이 부족하고, 현재 편재되어 있는 교원과 직원 역시 비전임 교원과 계약직 직원의 비율이 높다. 때문에 교양교육 전담조직이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전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운영과 관리를 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교양교육 전담조직에 인력이 충원되고 재정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인문학과 사회과학 등 기초학문분야 교원의 충원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08>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평균 교원 및 직원 수

전체	정년 전임	비정년 전임	비전임	교원 계	정규직	계약직	직원 계
인원수	2.04	1.20	3.50	6.74	0.96	0.82	1.78
비율(%)	30.27	17.8	51.93	100.00	53.93	46.07	100.00

5.3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 구성 문제

전체 응답대학 84개교 가운데 교양교육과정위원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응답한 대학은 75개교로 전체의 89.29%로 나타났다. 교양교육과정위원회가 현재 없는 것으로 조사된 대학도 10%가 넘기 때문에 교양교육과정의 체계적인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회 설치를 권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 교양교육 전담조직 소속 교원이 50% 이상 참여하는 경우는 43.24%로 그렇지 않은 대학이 더 많았다. 교양교육과정 운영의 자발성과 독립성 확보,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 교양교육 전담조직 소속 교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경우는 28.33%에 그쳐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운영 측면에서 개선의 과제를 적지 않게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⁵³⁾

53)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정위원회 현황에 대해서는 <표 II-126>, <표 II-127> 참조.

V. 대학 교양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제언

고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공교육과 함께 교양교육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양교육의 인적·물적 토대가 충실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대학은 교양교육의 인적·물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대학의 자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해 왔다고 할 수 없다. 대학의 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 결정 순위에서 교양교육은 언제나 전공교육에 비하여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 졸업이수학점의 일정 부분 이상을 교양학점으로 이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양교육의 의의와 가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않고, 그것을 옹호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⁵⁴⁾ 교양교육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만연한 현실에서 현재의 대학 의사결정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도 없다. 대학 교양교육의 정상화와 진흥을 위한 법제 마련과 정책의 시행이 필요한 이유이다.⁵⁵⁾ 여기에서는 고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대학 교양교육의 개선 방안을 대학 교양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대학 교양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 제언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 교양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은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의 교양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을 제시하였고, 대학 교양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교양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중장기인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1] 대학 교양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교양교육의 인적 토대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정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교원)를 근거로 대학기관평가인증이나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 대학에 대한 각종 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을 정량지표 가운데 하나로 빠짐없이 요구하고 있으며, 매년 정보공시에도 전임교원 확보율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54) 윤우섭·홍석민·홍성기,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2019년도 국회 의원연구단체 소규모용역보고서.

55) 법령이나 제도의 마련과 시행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횡행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비정상화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한다면, 대학의 의사결정구조가 교양교육의 진흥을 유도할 수 없으며 개선될 가능성도 없음을 인정한다면, 법령이나 제도의 마련과 시행을 통한 고등교육 정상화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인정해 온 대학 자율성 존중의 결과가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을 '재난 지역(disaster area)'으로 떨어뜨렸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임교원을 확보하는 일은 무엇보다 선결해야 하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번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는 대학에서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신분이 얼마나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표 IV-06>에서 보았던 것처럼 교양교육 담당 전임교원의 비율은 56.61%로 대학 전체의 전임교원 비율 47.56%보다 높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태는 심각하다. 교양교육과정의 운영은 실제로 일반 학과의 전임교원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같은 수치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표 IV-03>에서 보듯이, 2019학년도 2학기를 기준으로 할 때,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전임교원은 평균 114.37명이나, 그 가운데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전임교원은 평균 24.29명으로 21.24%에 불과하다. 21.24%에 불과한 교양교육 전담조직 전임교원의 구성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그 가운데 또 61.22%를 차지하고 있어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전체 교원의 8.24%에 불과한 형편이다. 대학에서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는 전체 교원 가운데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13.00%를 차지하며, 나머지 78.76%는 교양교육 전담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일반 학과의 전임교원이나 비전임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에서 교양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원 가운데 80%에 가까운 교원이 일반 학과의 전임교원이나 비전임교원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교양교육 자체의 연구나 교육에서 의의나 보람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교양교육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는 나그네들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전임교원 확보는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1 교양교육 전담조직 소속 전임교원 확보율의 법제화

연구진은 대학 교양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양교육 전담조직 소속 전임교원의 확보율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에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명시하고 있듯이, 교양교육 전담조직 소속 전임교원의 일정 수준 이상 확보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 교양교육은 특정 전공을 불문하고 대학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전공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교육보다 더욱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와 같이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확보는 고등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일정 정도 이상이 되도록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대학의 교양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교양교육 전담조직 소속 전임교원 확보율을 법제화하고자 할 경우,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전임교원을 대학 전체 전임교원 확보율의 70% 이상과 같이 대학 전체 전임교원 확보율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생

25명 당 1명의 전임교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전임교원 확보율의 기준을 고려하고, 교양 교육 전담조직에 소속된 학생이 없는 대학이 대부분인 한국 대학의 상황을 감안하여, 대학 전체의 재학생 수 100명 당 1명씩의 교양교육 전담조직 전임교원을 두도록 하는 방안이다. 실질적인 정책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1.2 전문대학 교양교육 전담 교원의 전임교원 확보율 인정

전문대학 교양 전담 교원의 전임교원 확보율 인정 문제는 교양교육의 정체성 제고와 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2018~2019학년도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의 경우 전임교원은 54.31%로 비전임교원 45.69%에 비해 8.62% 포인트 높은 반면, 전문대학은 전임교원 44.6%, 비전임교원 55.48%로 비전임교원의 비율이 10.88% 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대학의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비율에서 전임교원의 비율이 일반대학에 9.71% 포인트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나, 결정적으로는 전문대학 교양 전담 전임교원의 전임교원 확보율 미인정 원칙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대학의 경우는 교양교육 전담조직 교원을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 시 인정하고 있다. 즉 교육부가 일반대학의 경우에는 교양학부(계열)에 소속된 교양교육 전담 교원을 전임교원 확보율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전공 학과에 배치되지 않은 교양교육 전담 교원을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 시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이와 같은 불균형 정책은 전문대학 교양교육 진흥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된다. 이것이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이 일반대학의 교양교육보다 열악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이다.

정부는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과 전문대학 기본역량진단 등의 평가 지표로 전임교원 확보율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대학 기본역량진단의 지표를 살펴보면,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측면에서 교원 확보율(전임교원 확보율 + 교원 확보율)은 2018년 진단 시 평가지표 배점(7/100점)보다 2021년 진단에서 배점을 15점으로 2배 이상 높여 제시하고 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경우 일반대학은 전임교원 확보율이 평가지표인 반면, 전문대학은 직업교육 기관의 특성을 인정하여 겸임·초빙교원 등 비전임 교원 확보율을 포함하여 교원 확보율을 평가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전문대학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을 인정받기 위하여 교양 전담 전임교원을 인위적으로 학과에 배치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일선 대학에서는 교양 전담 전임교원을 학과 소속으로 배치하고 있으나 학과 내에서 전공 교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교원을 운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전문대학 교양 전담 교원을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 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전문대학 교학처장 및 교학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⁵⁶⁾ ‘전문대학

56) 김수연,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황과 인식 연구」, 『변화의 시대, 지속가능한 교양교육(II)』,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019.

교양교육 전담 교수를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 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는 데에 91%(164/181명)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 수행과 질 확보를 위해 전문대학의 특성 상 교양학부(학과)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대학이 전임교원으로 확보한 교양교육 전담 교원이라면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 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2. 교양교육의 물적 토대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인적 토대만이 아니라 물적 토대도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교양교육의 물적 토대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전담조직과 교양교육에 대한 재정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대학은 이 두 가지 토대가 모두 부실하기 짝이 없다. 때문에 본 연구진은 교양교육의 물적 토대 구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마련 및 시행을 제언하고자 한다.

2.1 교양교육 전담조직을 교육지원기구에서 교육기구로 전환

연구진은 교양교육 전담조직, 특히 국립대학의 교양교육 전담조직을 교육지원기구에서 교육기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번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결과는 국립대학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 고등교육의 변화에 대하여 얼마나 무디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같은 사실은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대상 87개 대학을 기준으로 할 때, 사립대학 대 국립대학의 교양교육 전담조직 설치 비율은 95.45% : 71.43%로, 사립대학은 대부분의 대학이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국립대학은 여전히 전담조직을 두지 않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⁵⁷⁾

교양교육 전담조직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할지라도, 국립대학은 순천대학교와 한경대학교를 제외하면 모든 대학이 ‘교양교육원’이나 ‘기초교육원’, ‘기초교양교육원’, ‘교육혁신본부’와 같이 교육지원기구로 운영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교양교육 전담조직을 교무처 산하의 교양학부 체제에서 교양대학이나 학부대학과 같은 단과대학 형태의 교육기구로 전환, 운영하고 있는데 비하여, 국립대학은 2002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의 출범을 필두로 교양교육원이나 기초교육원, 기초교양교육원 등 교양교육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15년 넘게 운영해 오고 있다.⁵⁸⁾ 사립대학은 1학년 학생 전체를 학부대학에 소속시켜 교양기

57) 국립대학 가운데 특히 교육대학의 경우에는 교양교육 전담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채 교원양성위원회를 통하여 교양교육의 운영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2019년 10월 14일 기준 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 회원교 122개교의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학부대학’ 또는 ‘교양대학’과 같이 단과대학 수준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69개교(56.56%), ‘기초교육원’이나 ‘교양교육원’과 같이 교육지원 조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35개교(28.69%), ‘교양학부’와 같이 학부 수준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18개교(14.75%)였다.(교육혁신본부나 창의융합교육본부와 같이 ‘본부’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는 대학 2개교와 교양교육개발센터나 교양교육연구센터와 같이 ‘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는 대학 2개교는 학부 수준으로 운영하는 대학에 포함시켰다.)

58)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기관장이 교무위원(급)으로 보임되어 있는 비율도 85.72% : 66.67%로 사립대학이 월등히 우위를 보이고 있다.

초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Liberal Arts College 안에 기초학문분야 학과를 설치하고 교수와 학생을 소속시켜 교양교육과 기초학문분야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과 혁신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은 교양교육 전담조직을 교육지원기구로 묶어둠으로써 교양교육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지 못한 채, 교양교육과정의 운영이라는 현상 유지에 머물고 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미래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는 국립대학이 그 본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대학의 교육과정이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이라는 양대 축을 근간으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국립대학의 교양교육이 단순한 현상 유지에 머물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연구진은 국립대학의 교육 혁신을 유도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립대학의 교양교육 전담조직을 단과대학 수준으로 분리·독립시켜 교수와 학생을 소속할 수 있도록 하여 보편교육과 기초교육이 안정적으로 기획·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2.2 대학의 교양교육 예산 편성 원칙과 기준 제정

연구진은 각 대학마다 교양교육 예산 편성의 원칙과 기준을 제정하여 명문화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동결로 인하여 대학마다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보니 교양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과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이 종료되면서 교양교육에 대한 예산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수도권 A대학의 경우, 2018학년도에 집행된 교양교육 예산(인건비 제외)은 1억 5,569만원으로 대학 전체 예산의 0.49%였다. 물론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교양교육 예산이 대학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⁵⁹⁾ 이같은 사정은 A대학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교양교육 예산으로 투입하는 예산은 대학 전체 예산의 1%를 넘지 않는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에 소속된 학생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실험실습비는 교양교육 전담조직으로 한 푼도 배정되지 않는다.

물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대학의 고유한 권한으로 각 대학이 처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획 운영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예산의 많고 적음을 차치하고, 대학이 교양교육에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예측가능하게 마련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 집행하느냐의 여부는 고등교육의 정상화, 교양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주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예컨대, 교양교육과정에 개설된 교과목 수강생 수에 따라서 또는 교양교육과정에 개설된 교과목 수에 따라서, 아니면 교양교육과정에서 이수한 학생들의 학점 수에 비례하여

59) 이 대학의 교양교육 예산은 신입생 레벨테스트, 공인토익 응시료 지원, e-clinic 수당,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비, 대단위 강좌 시험 감독 수당, 교양교육 전담조직 워크숍 비용, 교양교육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교양교육 예산을 배정한다거나 하는 등의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이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지켜나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양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 원칙이나 기준은 전공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 원칙이나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에 연구진은 대학의 교양교육 예산 편성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정책으로 입안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3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사업시행지침 개정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시행 시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교양교육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하여 교양교육 정상화를 위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과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을 한 단계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으로 평가받았다.⁶⁰⁾ 이 사업은 특히 교양교육과 비교과교육의 체질 개선 및 기반 구축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사업 종료와 함께 애써 쌓아올렸던 학부교육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2019학년도부터 시행된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재정 지원의 방식을 포괄적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 수행하도록 하면서 이전의 ACE 사업이나 「대학특성화사업」(CK), 「인문역량강화사업」(CORE) 등을 통해 이루어졌던 교양교육이나 비교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그동안 각 대학이 어렵게 구축한 교양교육의 인프라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진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예;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양교육에 투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사업시행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3. 고등직업교육 교양교육모델 개발

전문대학 교양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제언은 크게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이 일반대학의 그것과 달라야 하는가라는 논의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대학 교양교육의 역사는 자유교육의 이상적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양교육은 인간 중심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본질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정직한 지식과 자유, 평등, 인권, 정의, 행복 등 올바른 가치를 알려주고 이를 습득해 체화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교양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서로에게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성의 계발을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적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 및 사회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교양교육 내용의 핵심이다.⁶¹⁾ 교양교육의 핵심이 인간성의 계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적 태도와

60) 변기용 외, 『잘 가르치는 대학의 특징과 성공 요인』, 학지사, 2015. ; 변기용 외, 『잘 가르치는 대학의 특징과 성공 요인 2』, 학지사, 2016.

다른 사람들 및 사회세계와 관계 맺기, 창의성 함양과 자유시민의 양성 등에 가치를 둔다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이 달라야 할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 즉 일반대학이든 전문대학이든 동일한 교양교육의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1979년 전문대학이 도입된 이후, 전문대학은 산업현장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 왔다. 「고등교육법」 제47조에 따르면,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대학은 고급인력의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⁶²⁾ 반면,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르면,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은 교육목적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전통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은 학문지향적(academically oriented) 유형과 직업교육적 professionally oriented) 유형으로 구분된다. 고등교육기관은 학문중심 교육기관과 직업중심 교육기관으로 대별된 이원적 체제 속에서 성장해 왔다. 최근에는 고등교육이 널리 보급되는 가운데 대다수의 대학 진학자들이 전통적인 학문의 수련보다는 장래의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가급적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익힐 것을 기대하고 있다.⁶³⁾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일반대학과 교육체제가 상이하고 교육목적에 따라 교육환경과 교육운영 등의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점들을 갖고 있다. 이 차이점들은 두 유형의 기관이 공동의 교양교육 목적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각 기관의 성격 유형에 따라 교양교육 내용과 교수법, 운영방법을 달리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최근 학문지향적 유형의 고등교육기관과 직업지향적 유형의 고등교육기관 간 경계가 차츰 모호해지고 있다.⁶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기관 간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고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차별성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전문대학의 인재상은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면서 창의융합 실무인재로 변화해가고 있다.⁶⁵⁾

전문대학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면서도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의 특성상 교양교육의 내용과 교수법, 운영 방법 그리고 학생 특성에서 일반대학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면, 전문대학에 차별화된 교양교육의 확장 모델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전문대학만의 특성을 반영한 고등직업교육 교양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제안한다.

첫째,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은 수업 연한이 다른 교육체제이다. 다른 교육체제의 특성상 수

61) 유홍준, 「교양교육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 교수신문, 2015.6.22.

62) 임연기 외, 「사회이동성과 교육격차」, 『사회이동성과 교육해법 -개롱남은 전설이 되었나-』, 한국경제연구원 대외세미나, 2017.8.23., p.57.

63) 요시미 순야 지음, 서재길 옮김, 『대학이란 무엇인가』, 글항아리, 2014, p.253.

64) 임연기 외, 「사회이동성과 교육격차」, 『사회이동성과 교육해법 -개롱남은 전설이 되었나-』, 한국경제연구원 대외세미나, 2017.8.23., p.19.

65)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미래 산업수요 대응을 위한 전문대학 혁신방안」, 2019.12.23.

업 연한의 차이는 동일한 양과 동등한 질의 교양교육을 편성하고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시사한다. 2년 이상 3년 이하 수업 연한의 전문대학은 교양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때 일반대학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대학 나름의 고유한 방식으로 교양교육을 운영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 결과, 일반대학의 전공 졸업이수학점의 평균값은 130.81학점이며, 전문대학의 전공 졸업이수학점의 평균값은 학제에 따라 2년제 74.2학점, 3년제 111.2학점, 4년제 130.4학점이다. 일반대학의 교양 졸업이수학점의 평균값은 35.08학점이며, 전문대학의 교양 이수학점의 평균값은 학제에 따라 2년제 8학점, 3년제 14.9학점, 4년제 20.8학점이다. 전체 이수학점 대비 교양교육과정의 비율은 일반대학 26.82%, 전문대학의 경우 4년제 16.0%, 3년제 13.4%, 2년제 10.8%, 평균 13.8%를 차지하여 전문대학은 일반대학에 비하여 교양 학점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업 연한이 짧아질수록 교양 학점의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전공 학점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수업 연한이 짧을수록 전공직무역량을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짧은 수업 연한의 전문대학 교육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직무역량이 강조되는 반면, 창의성 함양과 자유시민 양성 등 보편타당한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데 있어 교양교육의 효용성을 의문시하는 풍토, 2~3년 수업 연한의 학과에서 전공 이수학점을 줄이고 대신 교양 학점을 늘리게 될 경우 전공 교수의 수업시수가 확보되지 않는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2년제 학제 교양교육과정의 경우, 교양 이수학점의 평균값이 8학점이므로 졸업할 때까지 교양 교과목 7~9개, 학기당 평균 2학점 교육을 통해서 교양, 인성과 창의성, 책임감과 핵심역량 함양을 충족할 수 있는가? 전문대학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에 비하여 교양 학점의 비율이 절반 수준인 현상을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는 고등직업교육 차원에서 교양교육의 고유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교양교육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특히 대학의 특성에 따라 주체적으로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체제에서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양이 어느 정도이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권고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권준원은 교양교육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 전체 졸업 기준 학점 대비 교양과목 기준 학점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18% 이상이 되도록 권장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⁶⁶⁾ 단순히 양적 기준을 통해 교양교육의 문제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에서 밝혀진 전문대학의 학제별 평균 교양 기준학점, 즉 4년제 16.0%, 3년제 13.4%, 2년제 10.8%, 전체 평균 13.8% 현재 값보다 확대된 교양과목 졸업 기준 학점을 명시하여 학생들이 보다 많은 교양기초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66) 권준원, 「전문대학 교양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변화의 시대, 지속가능한 교양교육(II)』,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019.

것은 명확하다. 또한 전문대학은 보편타당한 교양교육 이외에 교양의 실용적 측면이 강조되는 교양교육 내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전공직무역량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전문대학만의 차별화된 교양교육 방식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전문대학은 교양교육이 활성화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외부적 요인을 갖고 있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로서 교육부의 고등교육통계는 전문대학의 교양 전담 전임교원을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이다. 즉 교육부는 전문대학의 교양 전담 교원이 교양학부 소속으로 재직할 경우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문대학은 교양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을 각 학과 소속으로 배치해야만 전임교원 확보율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 및 국고지원사업의 각종 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이 매우 중요한, 비중이 큰 정량지표임을 감안할 때, 전문대학은 교양 전담 교원이 전문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교양교육에 전념하게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문대학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이므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양 전담 교원의 전임교원 확보율 인정이라는 선결 과제를 풀어야 한다.

셋째, 전문대학 교양 교육과정은 학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교양교육모델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문대학의 비교과프로그램은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다. 전문대학의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은 전체 비교과 프로그램의 19.17%로 일반대학의 2배가 넘는다. 이는 전문대학 학생들이 일반대학 학생들과 비교할 때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고 학업 수행 동기가 미흡하며 대학 학업을 수행하는 기초수학능력에 어려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전문대학은 학생들이 대학을 떠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하여 안정적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적응과 흥미, 동기를 끌어내기 위한 교양교육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기 때문에 일반대학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특히 짧은 수업연한 이내에 입학단계 적응과 동기 부여로부터 시작해서 전공 직무역량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교양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과 전문대학 학생의 특성에 맞춘 비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문대학은 기존 대학교육 체계 내에서 교양교육을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다. 이러한 연유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계 수요와 현재의 전문대학 인재 교육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⁶⁷⁾ 전문대학은 이러한 부조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계의 실질적 역량 수요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전문대학과 산업계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양교육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계가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양교육의 방향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67) 원만희 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산업계 수요 조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7. ; 김수연,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황과 인식 연구」, 『변화의 시대, 지속가능한 교양교육(II)』,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019.

② 대학 교양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 제언

1. 교양교육의 인적 토대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1.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 비율의 제한

연구진은 교양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양교육 전담조직 전임교원의 구성에서 전임교원 보수 수준 하위 10~20% 미만의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지 않도록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전임교원 구성과 관련한 이와 같은 조건이 필요한 까닭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이다. 2003년부터 도입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는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악용되면서 적지 않은 문제를 양산하였다. 2011년부터 시작된 대학기관평가인증 제도는 그 운영 과정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시킴으로써 이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고착화하는 데 일조하였다.⁶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문제는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에 대한 부당한 오해를 확대 재생산하는 데에도 일조하였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전공 학과보다는 교양교육 전담조직에 2배 이상 집중적으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전공교육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임용하여 교육하도록 해야 하지만, 교양교육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임용하여 교육해도 지장이 없다는 부당한 인식을 조장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부당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전임교원 확보와 관련한 법제의 마련 및 시행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교양교육 전담조직 교원의 구성 비율에 대한 이와 같은 법제화는 현실적 수용 가능성을 전제로 한 과도기적 절충안이다.⁶⁹⁾ 고등교육기관의 여러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는 일시에 폐지함이 최상의 정책일 것이나, 그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학 재정의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을 고려하여 대학이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모두가 양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과도기적 차선택을 제시한 것이다. 과도기적 차선택이라도 제안하는 것은 그만큼 시급히 시행해야 할 정책이기 때문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대학의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처우와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의 마련 및 시행을 강력히 제안한다.

68) 남진숙, 「각 대학 교양교육 전담교수 위상 및 개선 방향」, 『교양교육연구』 12-4, 한국교양교육학회, 2018.

69) 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처우는 고등교육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도 대기업 대졸신입사원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교육과 학생지도 등 다양한 대학의 요구에 대응하느라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게 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처음 임용될 때와는 달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발전을 위한 연구와 교육, 봉사에 자발적인 동기를 불어넣기도 어렵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고학력 전문가를 대학이라는 공룡의 생존을 위한 값싼 소모품으로 전략하게 만드는 제도인 것이다.

1.2 전공학과 폐과 교원에 대한 전공 전환 및 연수의 국고 지원

전공학과 폐과로 인해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게 된 교원에 대해 전공 전환 및 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국고 지원 사업의 신설을 제안한다. 학령인구 급감 등 인구 구조의 변화로 2024년 현행 입학정원 수준 유지 시(2018년 기준, 49.7만명) 2024년 입학 가능 학생 수는 37.3만명으로 추정되며, 약 12.4만 명의 입학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 가능 학생 수의 급감 추세가 두드러지고,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난으로 인해 지방대학, 전문대학부터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대학은 정원 감축, 기능 개편 등 적정 규모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고등교육 환경이 급변하면서 대학의 폐교 및 학과 구조조정과 폐과 등으로 인한 교원의 잉여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은 교원 운용 측면에서 폐과 교원을 다른 전공으로 전환하도록 하거나 교양교육 운영에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학년도에서 2019학년도까지 담당 교원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기별 평균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2018학년도 대비 2019학년도에는 전임교원의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의 교양 교과목 담당 비율은 증가하였다. 이는 강사법 시행의 여파도 그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지만, 대학의 구조조정 및 폐과 교원의 교양 담당 전환 과도 상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상황은 전문대학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시행된 국고지원사업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SCK)의 목표 중 한 가지가 대학의 구조조정이었다. 따라서 SCK사업은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정원 감축에 따른 학과 구조조정 그리고 학과 통·폐합으로 인해 발생한 폐과 교원에 대한 전공 전환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SCK사업이 일반재정지원사업인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되면서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지만, 폐과 교원에 대한 전공전환 지원은 할 수 없다. 현재 전공학과 폐과로 인한 교원의 지원은 대학이 교비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금 동결 및 인하가 10년 이상 지속된 현 상황에서 더구나 신입생 충원까지 힘들어져 재정이 열악해진 대학에서 교원에 대한 전공 전환 지원을 하기는 쉽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대학 인재 유출의 가속화와 동시에 대학 교육의 질과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폐과 교원의 발생으로 인하여 교육의 질 하락뿐만 아니라 해임 관련 소송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까지 소요되는 상황이다.

폐과로 인해서 교양교육 담당하게 된 교원들에 대해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 시 인정하는 문제와 함께, 이들에 대한 전공 전환 및 연수 지원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문대학 전공학과 폐과로 인한 교원에 대해 전공 전환 및 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국고 지원 사업을 신설함으로써 건강하고 내실 있는 대학 교육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1.3 전문대학 교양교육 담당 교원의 수급 방안 제도화

연구진은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특히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 교양교육을 담당할 인적 자원의 확보 및 지원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의 지정 및 시행을 제안한다.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상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취업과 밀접한 전공분야의 학과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문직업인 양성과 거리가 있는 기초학문분야의 학과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등 기초학문분야를 전공한 교원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이 분야의 교양 교과목을 개설해야 함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대학에서 다양한 교양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기초학문분야의 교양 교과목이 폭넓게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현실적인 수요와는 거리가 있는 기초학문분야 교양 교과목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과 학생들이 외면할 것을 우려한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과 역사, 철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는 안목을 폭넓게 갖추기 위해서는 인문학, 사회과학, 철학 분야의 교양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같은 교양교육의 이상과 전문대학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기초학문분야 교양 교과목을 담당할 교·강사를 모집·확보하여 필요로 하는 전문대학에 연결해 줌으로써 해당 교양 강의를 담당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하는 공적 기관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공적 기관으로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기관들을 통해 교·강사 공급은 물론 체계적인 교양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

2. 교양교육의 물적 토대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2.1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예산 지원 확대

연구진은 대학의 교양교육 진흥을 위하여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대학 교양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교양교육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대학과 연구자, 교육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2011년에 출범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그동안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개선을 위하여 다대한 성과를 이루어왔다. 불모지와 같았던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을 조사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개별 대학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개선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여 각 대학의 교양교육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에 대한 교수법 연수를 통하여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교양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왔으며, 국제교양교육포럼을 개최하여 교양교육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을 흡수하고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한국교양기초교육

원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연구보고서는 각 대학의 교양교육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에 관한 한 National Center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그 효과를 각 대학이 고루 누릴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한다.

2.2 교양교육연구소 지원 사업의 확대

연구진은 교양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양교육연구소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2019년 11월 30일 현재 교양교육 관련 연구소를 대학 부설 연구소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아래 <표 V-0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개 대학에 불과하다. 이는 조사대상 일반대학 198개교 가운데 9.09%에 불과한 것이다.

<표 V-01> 전국 각 대학 부설 교양교육연구소 현황

연번	대학명	연구소명
1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 교양교육연구소
2	경남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3	경성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4	경운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5	국민대학교	교양교육설계연구소
6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7	대구가톨릭대학교	융합교양교육연구소
8	대구한의대학교	향산교양교육연구소
9	대진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10	명지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11	성균관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12	세종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13	수원대학교	고운교양교육연구소
14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15	송실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16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17	인하대학교	인경교양교육연구소
1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교양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교양교육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전제되어야 하나, 위의 표에서 보듯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교육 연구 토양은 매우 척박한 상황에 있다. 2006년 10월 한국교양교육학회가 출범하여 매년 두 차례의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술지 『교양교육연구』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2011년 출범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교양교육 진흥을

위한 National Center로서 다양한 연구와 교육, 컨설팅 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아직은 그 역사가 일천하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교양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기능을 담당할 연구소를 육성할 필요가 있으나, 교양교육연구소를 설치한 대학은 앞에서 본 것처럼 전체 대학의 10%를 밀돈다. 그런 점에서 각 대학에서 교양교육연구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한국연구재단의 2019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은 세부유형의 하나로 ‘교육연계형’을 신설하고 ‘기초교양교육’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교양교육의 연구 토양을 다지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올해가 시행 첫해이고 최종 선정된 연구소도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교육연계형을 더욱 확대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과 교양교육의 진흥을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

2.3 전문대학 교양교육 전담조직 개설 지원 강화

이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교양교육 전담조직 개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에 참여한 전문대학 가운데 교양교육 전담조직을 설치한 대학은 51개교로 응답대학의 59.30%에 그쳤다. 전담조직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대학이 40.70%였다. 응답대학 86개 대학을 기준으로 할 때, 사립대학 대비 국공립대학의 교양교육 전담조직 설치 비율은 60.49% : 40.00% 으로, 사립대학의 전담조직 설치 운영 비율에 비해 국공립대학은 여전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 ‘교양교육원’ ‘교양교육센터’, ‘직업교육센터’, ‘교육혁신본부’와 같이 교육지원기구로 운영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일반 사립대학이 교양교육 전담조직을 교양대학이나 학부대학과 같은 단과대학 형태의 교육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은 교양교육 지원기구의 형태로 설치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그 결과 전문대학은 교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거나, 교양교육과 기초학문분야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과 혁신을 주도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전문대학 교양교육 전담조직은 교양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단초이다. 연구진은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하게 제안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양기초교육원뿐 아니라 K-MOOC를 운영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과 같은 교양교육과 관련 여러 전문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문대학 교양교육을 위한 협업과 지원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2.4 전문대학 개별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평가

이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개별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평가 방안에 대한 고려를 제안한다. 전문대학의 경우, 재학생 기준 2천명 미만의 대학이 전체 전문대학의 약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간호대학, 자동차대학, 승강기대학, 골프대학 등 단일 학과로 이루어진 대학도 다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 교양 교과목 개설강좌 수는 수도권 전문대학이 2018학년도 378.58개, 2019학년도 332.21개로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2018학년도 243.55개, 2019학년도 224.29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교양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수도권 대학의 개설강좌 수가 더 많은 것은 재학생 규모가 큰 전문대학이 대도시에 집중 분포되어 있고 비수도권에 규모가 작거나 교육 환경이 열악한 전문대학의 비율이 높은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대학이라고 해서 교양교육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대학의 재정, 교직원의 역량 등에 의해 교육의 질이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평가는 일반대학과 비교하여 다른 기준으로, 그리고 전문대학의 특수한 또는 열악한 환경을 고려한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규모의 경제에서 다양성과 효율성이 적은 소규모 전문대학이 교양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대학 환경을 고려한 공정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2.5 교양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국가-지역사회-지역산업 거버넌스 구축

이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지역사회-지역산업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표 VI-02> 학제별 교육 기본 여건 비교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18년 기준 35.0명인데 비해 일반대학은 21.9명이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전문대학이 5,817달러인데 비해 일반대학은 그 2배인 11,310달러이다. 심지어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중·고교 공교육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국가 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에 투자되고 있는 교육 예산의 실상이 잘 드러난다.

<표 V-02> 학제별 교육 기본 여건 비교

(단위 : 명, US Dollar)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일반대학
교원 1인당 학생 수 ¹⁾ (2018년 기준)	14.5	12.1	11.5	35.0	21.9
학생 1인당 공교육비 ²⁾ (2015년 기준)	11,047	11,025	13,247	5,817	11,310

자료 1) 국가지표체계(<http://www.index.go.kr>). 학생 수(교원 1인당). 2019. 5. 7.

2) OECD(2018). Education at a Glance 2018. p. 256.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에 대한 열악한 교육 예산은 실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양교육과정의 강좌 규모에서도 드러난다. 2018~2019학년도 교양 교과목의 강좌 규모 조사 결과, 1-20명 규모의 소규모 강좌는 일반대학 30.71%, 전문대학 12.88%로 일

반대학이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대로 대규모 강좌인 101-200명 규모의 강좌와 201명 이상 강좌는 일반대학이 각각 1.62%와 0.79%인 반면, 전문대학은 각각 14.10%와 11.23%로 조사되어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에 비해 대규모 강좌를 10% 포인트 이상 많이 개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좌 규모만으로 교육의 질을 단정할 수 없으나 상관이 있을 가능성은 높다.

교육 예산은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질은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뿐 아니라 미래 국가와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특히 산업체가 대학에 요구하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은 중국에는 국가와 기업이 활용하는 자산이 된다. 따라서 산업계 중심의 교양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육수요자인 기업과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강력하게 요구되며, 국가-지역사회-지역산업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6 ‘고등직업교육 교양교육 2030 로드맵’ 구축

이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중·단기 발전계획 ‘고등직업교육 교양교육 2030 로드맵’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중요성은 미래 사회에 대응하여 역량을 키워야 할 학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미래 사회의 중추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생의 평생진로개발역량 함양 차원에서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2017 글로벌 인재 포럼에서 야나가와 노리유키는 미래 일자리 변화로 생애주기 최소한 세 번의 직업 전환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⁷⁰⁾ 따라서 전공교육을 통한 특정 분야의 직무역량 함양도 필요하지만, 평생동안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교양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공교육과 교양교육 간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벗어나 교양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편제 상 교양교육의 양이 적어야 전공교육이 강화될 수 있다거나, 교양교육보다는 전공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전문대학은 전공 교육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교양교육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으며, 그 원인은 교양교육을 직업교육이나 전공교육과 대비되는 교육으로 이해하거나 전문직업교육을 보조하는 수단적 교육 또는 예비교육 정도로 인식해 온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⁷¹⁾ 그러나 교양교육은 다양한 전문 지식을 하나의 큰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하는 토대적 소양을 기르는 과정으로서, 각 전문분야들의 지식을 폭 넓고 깊이 있는 안목 아래에서 조망하고 연결시켜 주는 다면적 사고력, 즉 ‘지적 연결지평’을 제공할 수 있다.⁷²⁾

그런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정부가 고등직업교육 교양교육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찾아가는 ‘고등직업교육 교양교육 2030 로드맵’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빌 게이츠는 “우리는 대체적으로 2년 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70)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6110397751>

71) 남성희, 2003.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원만희 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산업계 수요 조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7.

72) 손동현, 『대학교양교육론』, 철학과 현실사, 2019.

는 과대평가하고, 향후 10년 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고 말했다. 교양교육에 대한 지원은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없을 수 있다. 오히려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의 역할과 효용성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꾸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3. 교양교육 분야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교양교육에 대한 평가는 2001년 학문분야별 평가 이후 현재까지 한 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다. 교양교육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현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그 준비 과정을 통하여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 기본역량진단과 같은 평가 제도가 이와 같은 기능을 충분히 시행하였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그것은 평가 기준이나 내용이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고, 교양교육 전문가 집단을 평가 기획안 시행의 주체로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⁷³⁾

한국교양교육학회와 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2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이 교양교육을 핵심역량 함양으로 한정하여 평가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같은 시정 요구는 이번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국 각 대학의 교양교육 목적이나 목표가 핵심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은 더 근본적이고 폭넓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학의 교양교육과정도 그와 같은 근본적이고 폭넓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양교육에 대한 평가기준을 핵심역량 함양으로 한정하는 것은 결국 대학 교육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고 교양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혼란은 대학 기관평가 인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반대학은 대부분의 대학이 교육 내용을 기준으로 그 성격이나 분야에 따라 교양교육과정의 하위 영역을 편성하고 있음에 비하여 대학 기관평가인증에서는 단순히 이수방식을 중심으로 교양교육과정의 현황을 진단하고 있다. 이는 평가지표를 고안한 평가 주체가 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을 그만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교양교육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한 교양교육 인증제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각종 대학 평가로 인하여 대학이 느끼고 있는 피로감을 고려한다면, 교양교육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그보다는 오히려 대학기관평가인증이나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같은 평가에 교양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교양교육에 대한 평가가 교양교육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고 본질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진은 교양교육 인증이든 평가든, 교양교육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목적을 충실히

73) 박정하, 「누가, 그리고 어떻게 교양교육과정을 평가해야 하는가?」, 『21세기 동아시아 교양교육의 미래』,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9.10.25.~26.

구현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각 대학의 교양교육 개선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나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2018.8.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미래 산업수요 대응을 위한 전문대학 혁신방안」, 2019.12.23.
- 교육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시안 설명회 자료집(전문대학)」, 2019.12.13.
- 강경중·이건남,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 개발 방안」, 『직업교육연구』, 22, 한국직업교육학회, 2003.
- 강창동, 「한국의 대학 교양교육의 현황과 특징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8-2, 안암교육학회, 2012.
- 권준원, 「전문대학 교양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변화의 시대, 지속가능한 교양교육(I)』,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9.
- 김수연,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황과 인식 연구」, 『변화의 시대, 지속가능한 교양교육(II)』,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019.
- 김은준, 「성찰적 글쓰기가 전문대 재학생들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13-3,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 김지현·신의향, 『대학의 학부교육: 세계 대학의 우수 사례』, 교육과학사, 2017.
- 김희삼, 「사회이동성과 교육격차」, 『사회이동성과 교육해법-개롱남은 전설이 되었나-』, 한국경제연구원 대외세미나, 2017.8.23.
- 남성희,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남진숙, 「각 대학 교양교육 전담교수 위상 및 개선 방향」, 『교양교육연구』 12-4, 한국교양교육학회, 2018.
- 문승한,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의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1993.
- 박주호, 「대학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연구(II)」,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3.
- 박정하, 「누가, 그리고 어떻게 교양교육과정을 평가해야 하는가?」, 『21세기 동아시아 교양교육의 미래』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9.10.25.~26.
- 박효식, 「전문대학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개발 연구에 대한 토론」, 『변화의 시대, 지속가능한 교양교육(II)』,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019.
- 변기용, 「강사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과 해결방안」, 『대학교육』 20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9.
- 변기용 외, 『잘 가르치는 대학의 특징과 성공 요인』, 학지사, 2015.
- 변기용 외, 『잘 가르치는 대학의 특징과 성공 요인 2』, 학지사, 2016.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양교육 60년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 손동현, 「대학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2.

- 송명진, 「국어교육과 ‘한국실용글쓰기’ 검정제도 -전문대학의 읽기와 쓰기 교육을 중심으로-, 『대학작문』 12, 한국리터러시학회, 2015.
- 양영근·정원희, 「NCS 직업기초능력과 산업체 교양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양교육과정 개편 연구», 『교양교육연구』 9-2, 한국교양교육학회, 2015.
- 양영근·정원희, 「NCS 직업기초능력에 기반한 교양교과목 개편방향 연구», 『교양교육연구』 8-4,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 원만희 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산업계 수요 조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7.
- 유기웅, 「우리나라 4년제 대학 교양교육 현황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4.
- 유홍준, 「교양교육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 교수신문, 2015.6.22.
- 윤승준·홍석민·홍성기,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역사, 문제점, 그리고 재구성 노력», 『21세기 동아시아 교양교육의 미래』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9.10.25.~26.
- 윤우섭, 「대학 교양교육의 과제», 『대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교양교육 혁신 토론회』,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2019.11.27.
- 윤우섭·홍석민·홍성기,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2019년도 국회의원연구단체 소규모용역보고서.
- 이상임, 「대학교양기초교육 백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7.
- 이보경 외, 「학부 교양교육 강화를 위한 국가수준 지원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자문조사 2009-11, 2010.
- 이성호, 「대학의 교육과정과 수업」, 『한국고등교육개혁의 과제와 전망』, 양서원, 1993.
- 이주호, 「고등교육기관 유형 재구조화 정책 연구」, 교육부 교육기관유형정책연구팀, 2015.
- 임연기 외, 「사회이동성과 교육격차」, 『사회이동성과 교육해법-개롱남은 전설이 되었나-』, 한국경제연구원 대외세미나, 2017.8.23.
- 전은실·이로미,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논문집』 11-1,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2010.
- 정혜령, 「해방 이후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변화 경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조휘형,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과 취업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12-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8.
- 조휘형,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과 하위능력 간의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11-4,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 주현재,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발전방향」, 『교양교육연구』 7-4,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 최미숙,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개선 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11-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 최윤경, 「전문대학 교양 교육과정을 통한 NCS 직업기초능력 향상 방안」, 『교양교육연구』 11-3,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 하경숙, 「대림대학교 교양교과목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의 현황과 발전방안」, 『대학작문』

10, 한국리터러시학회, 2015.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부록 1> 일반대학 자료제출 현황표

(가나다순)

연번	대학 명	① 요람 제출	② 설문파일 제출	①+② 제출
1	가톨릭관동대	○	○	○
2	강남대		○	
3	강원대	○	○	○
4	건국대	○		
5	건국대(글로벌)		○	
6	건양대	○	○	○
7	경남과기대	○	○	○
8	경남대		○	
9	경동대		○	
10	경북대	○	○	○
11	경상대	○		
12	경성대		○	
13	경주대	○		
14	경찰대	○		
15	경희대	○	○	○
16	고신대	○		
17	공주교대		○	
18	광운대		○	
19	광주대		○	
20	극동대	○	○	○
21	금오공대	○	○	○
22	김천대	○	○	○
23	남서울대		○	
24	단국대	○	○	○
25	단국대(천안)		○	
26	대구가톨릭대	○	○	○
27	대구교대	○		
28	대구한의대	○	○	○
29	대신대		○	
30	대전가톨릭대		○	
31	대전대		○	
32	대진대	○		
33	덕성여대	○	○	○
34	동국대(경주)	○	○	○
35	동서대		○	○
36	동신대	○		
37	동아대	○	○	○
38	동의대		○	
39	명지대	○	○	○
40	목원대		○	
41	목포가톨릭대		○	
42	목포대		○	

43	부경대	○	○	○
44	부산교대		○	
45	부산대		○	
46	부산외대	○	○	○
47	삼육대		○	
48	상명대(천안)		○	
49	상지대		○	
50	서강대	○	○	○
51	서경대		○	
52	서울과기대	○		
53	서울교대	○	○	○
54	서울대	○		
55	서울시립대	○		
56	서울신학대		○	
57	서울여대		○	
58	서울한영대		○	
59	서원대	○	○	○
60	선문대	○	○	○
61	성공회대		○	
62	성균관대	○	○	○
63	성신여대	○		
64	세명대		○	
65	세종대		○	
66	수원대	○	○	○
67	숙명여대	○		
68	순천대	○		
69	순천향대	○		
70	송실대		○	
71	신한대	○		
72	아세아연합신학대	○		
73	아주대	○		
74	안동대	○	○	○
75	안양대	○	○	○
76	영남대	○	○	○
77	영남신학대	○		
78	예원예대	○	○	○
79	용인대	○	○	○
80	우석대	○		
81	원광대		○	
82	을지대		○	
83	이화여대	○		
84	인제대	○	○	
85	인천가톨릭대		○	
86	장로회신학대		○	
87	전북대	○	○	○
88	제주대	○	○	○
89	중앙대		○	

90	진주교대		○	
91	차의과대	○		
92	창신대	○	○	○
93	창원대		○	
94	청운대	○	○	○
95	청주교대	○	○	○
96	초당대	○		
97	총신대	○		
98	춘천교대	○	○	○
99	충남대	○	○	○
100	충북대		○	
101	포항공대	○	○	○
102	한경대		○	
103	한국교통대	○	○	○
104	한국국제대	○		
105	한국방통대	○		
106	한국체대	○		
107	한국항공대	○	○	○
108	한국해양대	○		
109	한동대	○	○	○
110	한라대		○	
111	한림대	○	○	○
112	한성대	○	○	○
113	협성대	○	○	○
114	호남신학대	○		
115	호서대	○	○	○
116	호원대	○		
총 계		74	87	45

<부록 2> 대학 교양교육 현황조사 설문지 양식(일반대학)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우리나라 4년제 일반대학의 교양교육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대학의 교양교육 담당기관 현황과 교양교육과정 편성 내용, 교양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교양교육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과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실시되는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의 설문항목은 △ 대학 기본정보 △ 교양교육의 목표 △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내용 △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 △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 등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 대학의 현황은 국가 및 대학의 교양교육 정책 수립과 교양교육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 대학의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통계, 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귀 대학의 응답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이 조사지는 교양교육 전담 직원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직원이 없을 경우, 교양교육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문은 총 6개의 시트로 이루어져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질문 전체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팀 드림

문의처 : 이메일 : yoonsj@dankook.ac.kr
전화번호 : 031-8005-2500, 2583

I . 대학 기본정보

	대학명 : _____	
I-1. 설립 유형		
① 국립 <input type="checkbox"/>	② 공립 <input type="checkbox"/>	③ 사립 <input type="checkbox"/>

I-2. 학교 소재지 (캠퍼스의 경우 별도로 소재지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서울 <input type="checkbox"/>	② 부산 <input type="checkbox"/>	③ 대구 <input type="checkbox"/>	④ 인천 <input type="checkbox"/>	⑤ 광주 <input type="checkbox"/>	⑥ 대전 <input type="checkbox"/>	⑦ 울산 <input type="checkbox"/>	⑧ 세종 <input type="checkbox"/>	⑨ 강원 <input type="checkbox"/>	⑩ 경기 <input type="checkbox"/>
⑪ 경남 <input type="checkbox"/>	⑫ 경북 <input type="checkbox"/>	⑬ 전남 <input type="checkbox"/>	⑭ 전북 <input type="checkbox"/>	⑮ 충남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제주 <input type="checkbox"/>			

I-3. 대학 규모 (재학생 수 기준)			
① 2천명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 2천명 이상 ~ 5천명 <input type="checkbox"/>	③ 5천명 이상 ~ 1만명 <input type="checkbox"/>	
④ 1만명 이상 ~ 2만명 <input type="checkbox"/>	⑤ 2만명 이상 <input type="checkbox"/>		

I-4. 대학 전체 교직원 현황			
교원 수	전임	① 정년	
		② 비정년	
		③ 비전임	
교직원 수		④ 정규직	
		⑤ 계약직	

I-5. 대학 특성			
① 대학교 <input type="checkbox"/>	② 산업대학 <input type="checkbox"/>	③ 교육대학 <input type="checkbox"/>	
④ 기술대학 <input type="checkbox"/>	⑤ 예술대학 <input type="checkbox"/>	⑥ 방송통신대학 <input type="checkbox"/>	
⑦ 사이버대학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 <input type="checkbox"/>		

II . 교양교육의 목표

II-1. 귀 대학은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①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I-2. 위 문항에서 ‘예’ 라고 응답한 경우 귀 대학이 설정한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교양교육 목적	
교양교육 목표	

III.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내용

III-1. 2019학년도 귀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졸업 이수 학점 체계에 대한 정보를 아래 표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단위: 학점)

교양			전공	기타(자유선택)	졸업이수학점
필수	선택	계			

*계열에 따라 졸업 이수 학점 체계가 다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

1-2. 계열별 교양 이수 학점 체계에 대한 정보를 아래 표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단위: 학점)

계열	교양			전공	기타(자유선택)	졸업이수학점
	최소	최빈	최대			
①인문사회						
②자연과학						
③공학						
④예체능						
⑤의학						
⑥기타						

*계열은 교육부 대학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작성 요망 (별첨1-표준분류체계표 참조)

*최빈값: 해당 계열에서 가장 많은 학과 혹은 전공의 이수 학점 수

1-3. 교양필수 교과목 및 강좌 수에 대한 정보를 아래 표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교양 필수 교과목 수 및 교과목 명				강좌 수	
	①영역	②교과목 명 * 한줄에 한과목씩 작성	③학점	④과목수	⑤ 1학기	⑥ 2학기
교양필수	1	예) 글쓰기	예) 인문계 글쓰기	3	2	
		예) 글쓰기	예) 자연계 글쓰기	3		
	2	예) 인성	예) 인성캠프	1	1	
	3	예) 글로벌 의사소통	예) 영어	3	4	
		예) 글로벌 의사소통	예) 프랑스어	3		
		예) 글로벌 의사소통	예) 독일어	3		
		예) 글로벌 의사소통	예) 중국어	3		
총계(n)						

1-4. 2018~ 2019학년도 귀 대학의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에 대한 정보를 아래 표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1학기	2학기	계	1학기	2학기	계
①개설과목수						
②개설강좌수						

III-2. 2018~2019학년도에 귀 대학에서 신규 개설한 교양 교과목에 대한 정보를 아래 표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기초교육(사고, 정보문해, 의사소통, 외국어, 기초수학과학) ②인문학 ③사회과학 ④자연과학 및 공학·기술 ⑤예체능 ⑥인성 및 종교 ⑦보건 및 의학 ⑧융·복합 ⑨기타

년도 및 학기	①신규 개설 교과목 명	②영역	③총 교과목 수
2018-1학기	예) 시와 빅데이터	④	
2018-2학기	예) 서양 고전 오딧세이	②	
2019-1학기			
2019-2학기			

III-3. 국제학생(학부생) 대상 교양 교육과정

1-1. 2019년 9월 현재 국제학생(학부생(휴학생포함) 대상, 교환학생 제외) 재학생 수 (명):

1-2. 2019학년도에 귀 대학에서 개설한 국제학생(외국인 유학생) 대상 정규 교양 교과목에 대한 정보를 아래 표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국제학생 전용 교양 교과목		
	①교과목 명	②학점	③개설 강좌 수
2019-1학기			
2019-2학기			

III-4. 귀 대학에서 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를 아래 표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프로그램 유형	⑦프로그램 명	⑧프로그램 수
①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②글쓰기 프로그램		
③기초수학과학(BSM) 프로그램		
④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		
⑤기타 프로그램		
⑨총계		

IV.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IV-1. 아래 표를 참조하여 2018~2019학년도 귀 대학의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현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칸 추가 가능)

구분	전임교원 수(명)			비전임교원 수(명)						⑩총계(명)
	①정년트랙	②비정년트랙	③소계	④초빙	⑤겸임	⑥산학중점	⑦강사	⑧기타	⑨소계	
2018-1학기										
2018-2학기										
2019-1학기										
2019-2학기										

IV-2. 2018~2019학년도 귀 대학의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수(분반 포함)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임교원 담당 강좌 수			비전임교원 담당 강좌 수						⑩총계(수)
	①정년트랙	②비정년트랙	③소계	④초빙	⑤겸임	⑥산학중점	⑦강사	⑧기타	⑨소계	
2018-1학기										
2018-2학기										
2019-1학기										
2019-2학기										

IV-3. 2018~2019학년도에 개설된 귀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강좌별 규모(실제 수강인원 기준)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규모별 강좌 수						⑦총계
	①1~20명	②21~30명	③31~50명	④51~100명	⑤101~200명	⑥201명 이상	
2018-1학기							
2018-2학기							
2019-1학기							
2019-2학기							

IV-4. 2018~2019학년도에 개설된 귀 대학의 교양 교과목 가운데 온라인 교과목(일반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 교육부 2018.12)이 전체 교양 교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래 표의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K-MOOC 제외)

구분	온라인 교과목 비율					
	① 없음	② 0.1~5.0%	③ 5.1~10.0%	④ 10.1~15.0%	⑤ 15.1~20.0%	⑥ 20.1% 이상
2018-1학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18-2학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19-1학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19-2학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V.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

V-1. 아래에 제시된 활동 가운데 귀 대학에서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하여 연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복수응답 가능)

	체크
① 외부기관이나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	<input type="checkbox"/>
② 자체평가위원회 활동을 통한 진단 활동	<input type="checkbox"/>
③ 교과목 개선을 위한 교·강사 워크숍 및 간담회	<input type="checkbox"/>
④ 교과목 개선을 위한 CQI 활동	<input type="checkbox"/>
⑤ 수업평가(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우수강의시상 등 포함)	<input type="checkbox"/>
⑥ 수업평가(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교수법 컨설팅 등 교수법 관련 지원	<input type="checkbox"/>
⑦ 수업평가(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교과목 개폐	<input type="checkbox"/>
⑧ 수업평가(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교·강사 강의 제한	<input type="checkbox"/>
⑨ 만족도조사	<input type="checkbox"/>
⑩ 기타 (직접 기술)	

VI.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

VI-1. 귀 대학의 교양교육 전담조직 설치 여부 및 주요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귀 대학에는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1-2. 위 1번 문항에서 “예” 라고 응답한 경우 아래 정보를 기입해 주십시오.

명칭									
주제영역 위상(체급)	①교무위원급(처장, 원장, 학장)	<input type="checkbox"/>	②주제영 급(센터 장)	<input type="checkbox"/>	③팀장급	<input type="checkbox"/>	④기타	<input type="checkbox"/>	
조직 현황	소속 교원 수	전임	정년(명)						
			비정년(명)						
		비전임(명)							
	소계(명)								
	소속 교직원 수	정규직(명)							
		계약직(명)							
소계(명)									
총합(명)									

1-3. 위 1번 문항에서 “아니오” 라고 답하신 경우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VI-2. 귀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설치 여부 및 주요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귀 대학에는 교양교육과정위원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	-------	--------------------------

1-2. 위 1번 문항에서 “예” 라고 답하신 경우 아래 정보를 기입해 주십시오.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2019년 4월 1일 기준)		체크
소속 교원	① 교양교육전담조직 소속 교원이 50% 이상	<input type="checkbox"/>
	② 교양교육전담조직 소속 교원이 50% 미만	<input type="checkbox"/>
외부 위원	① 외부기관(타 대학 등) 위원 참여	<input type="checkbox"/>
	② 외부기관(타 대학 등) 위원 미참여	<input type="checkbox"/>

교양교육과정위원회 개최 횟수 (2018학년도 기준)	
---------------------------------	--

1-3. 위 1번 문항에서 “아니오” 라고 답하신 경우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끝 -

<부록 3> 대학 교양교육 현황조사 설문지 양식(전문대학)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합니다.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담당기관 현황과 교양교육과정 편성 내용, 교양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교양교육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과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실시되는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의 설문항목은 △ 대학 기본 정보 △ 교양교육의 목표 △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내용 △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 △ 교양교육 담당 조직 현황 등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 대학의 현황은 국가 및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정책 수립과 교양교육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 대학의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통계, 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귀 대학의 응답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이 조사지는 교양교육 전담 직원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직원이 없을 경우, 교양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문은 총 6개의 시트로 이루어져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질문 전체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팀 드림

문의처 : jerryfirst@naver.com

전화번호: 02-3407-8680

I . 대학 기본정보

대학명 :

I-1. 설립 유형

① 사립 ② 국·공립

I-2. 학교 소재지 (캠퍼스의 경우 별도로 소재지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서울	<input type="checkbox"/>	② 부산	<input type="checkbox"/>	③ 대구	<input type="checkbox"/>	④ 인천	<input type="checkbox"/>	⑤ 광주	<input type="checkbox"/>	
⑥ 대전	<input type="checkbox"/>	⑦ 울산	<input type="checkbox"/>	⑧ 세종	<input type="checkbox"/>	⑨ 강원	<input type="checkbox"/>	⑩ 경기	<input type="checkbox"/>	
⑪ 경남	<input type="checkbox"/>	⑫ 경북	<input type="checkbox"/>	⑬ 전남	<input type="checkbox"/>	⑭ 전북	<input type="checkbox"/>	⑮ 충남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제주								

I-3. 대학 규모 (재학생 수 기준)

① 1천명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 1천명 이상 ~ 3천명	<input type="checkbox"/>	③ 3천명 이상 ~ 8천명	<input type="checkbox"/>
④ 3천명 이상 ~ 8천명	<input type="checkbox"/>	⑤ 8천명 이상	<input type="checkbox"/>		

I-5. 대학 특성화 계열

① 공학	<input type="checkbox"/>	② 자연과학(보건계열 포함)	<input type="checkbox"/>	③ 인문사회	<input type="checkbox"/>	④ 예체능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input type="checkbox"/>						

II . 교양교육의 목표

II-1. 귀 대학은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II-2. 위 문항에서 ‘예’ 라고 응답한 경우 귀 대학이 설정한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교양교육 목적	
교양교육 목표	

III.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내용

III-1. 2019학년도 귀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졸업 이수 학점 체계에 대한 정보를 아래 표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단위:
학점)

구분(학제)		교양		전공	졸업이수학점
2년제	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직업기초능력			
3년제	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직업기초능력			
4년제	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직업기초능력			

1-2. 교양필수 교과목 및 강좌 수에 대한 정보를 아래 표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교양 필수 교과목 수 및 교과목 명				강좌 수	
	영역	교과목 명 * 한줄에 한과목씩 작성	학점	과목수 (분반수)	1학기	2학기
교양필수 (학점)	1	예) 외국어	예) 영어	2	2	
		예) 외국어	예) 중국어	1		
	2	예) 기초학습	예) 글쓰기	2	1	
	3	예) 직업기초능력	예) 의사소통능력 및 자기개발	2	4	
		예) 직업기초능력	예) 정보능력	2		
		예) 직업기초능력	예)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능력	2		
		예) 직업기초능력	예) 정보능력	2		
총계(n)	3			7	n	n

* 개설 영역은 대학별 체계에 따라 작성하되 영역 구분이 없는 경우 모두 1로 작성

1-3. 2018~ 2019학년도 귀 대학의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에 대한 정보를 아래 표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1학기	2학기	계	1학기	2학기	계
개설과목수						
개설강좌수						

III-2. 2018~2019학년도에 귀 대학에서 신규 개설한 교양 교과목에 대한 정보를 아래 표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기초교육(사고, 정보문해, 의사소통, 외국어, 기초수학과학) ②인문학 ③직업기초 ④자연과학 및 공학·기술
 ⑤예체능 ⑥인성 및 종교 ⑦보건 및 의학 ⑧응·복합 ⑨사회과학 ⑩기타

년도 및 학기	①신규 개설 교과목 명	②영역	③총 교과목 수
2018-1학기	예) SW코딩	④	
2018-2학기	예) 독서와 토론	②	
2019-1학기	예) 의사소통 및 자원관리능력	③	
2019-2학기	예) 인성계발과 리더십	②	

III-3. 귀 대학에서 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를 아래 표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프로그램 유형	⑦프로그램 명	⑧프로그램 수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글쓰기 프로그램		
기초수학과학(BSM) 프로그램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총계		

Ⅳ.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Ⅳ-1. 아래 표를 참조하여 2018~2019학년도 귀 대학의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구성 현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칸 추가 가능)

구분	전임교원 수(명)			비전임교원 수(명)						총계(명)
	정년 트랙	비정년트랙	소계	초빙	겸임	산학중점	강사	기타	소계	
2018-1학기										
2018-2학기										
2019-1학기										
2019-2학기										

Ⅳ-2. 2018~2019학년도 귀 대학의 교원 유형별 교양 교과목 담당 강좌 수(분반 포함)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임교원 담당 강좌 수			비전임교원 담당 강좌 수						총계(수)
	정년 트랙	비정년트랙	소계	초빙	겸임	산학중점	강사	기타	소계	
2018-1학기										
2018-2학기										
2019-1학기										
2019-2학기										

Ⅳ-3. 2018~2019학년도에 개설된 귀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강좌별 규모(실제 수강인원 기준)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규모별 강좌 수						총계
	1-20명	21-30명	31-50명	51-100명	101-200명	201명 이상	
2018-1학기							
2018-2학기							
2019-1학기							
2019-2학기							

Ⅳ-4. 2018~2019학년도에 개설된 귀 대학의 교양 교과목 가운데 온라인 교과목(일반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 교육부 2018.12)이 전체 교양 교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래 표의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K-MOOC 제외)

구분	온라인 교과목 비율					
	없음	0.1~5.0%	5.1~10.0%	10.1~15.0%	15.1~20.0%	20.1% 이상
2018-1학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18-2학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19-1학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19-2학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V-5. 전문대학 전체 차원에서 교양교육 발전을 위하여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

	체크
①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대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input type="checkbox"/>
②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전문대학 평가 지표에서 교양교육 관련 비중 확대	<input type="checkbox"/>
③ 교양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임교원 확보	<input type="checkbox"/>
④ 교양 교육 내실화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⑤ 체계적인 교양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충분한 학점 확보	<input type="checkbox"/>
⑥ 대학 설립 이념 구현을 위한 교양교육 운영의 자율성 강화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직접 기술)	

IV-6. 귀 대학에서 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

	체크
① 총장을 비롯한 대학 경영진의 교양교육 강화에 대한 의지	<input type="checkbox"/>
② 교직원들의 교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input type="checkbox"/>
③ 교양교육 관련 운영정책(규정, 지침) 및 운영체계(관련 위원회, 환류체계)의 마련	<input type="checkbox"/>
④ 교양학부, 교양교육센터 등 대학 내 교양교육 운영조직 설립	<input type="checkbox"/>
⑤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전임교원 확보	<input type="checkbox"/>
⑥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 및 교수 역량 강화	<input type="checkbox"/>
⑦ 교양교육에 대한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의 확대	<input type="checkbox"/>
⑧ 폐과 교원 발생 시 교양과목 담당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역량개발 지원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직접 기술)	

V.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

V-1. 아래에 제시된 활동 가운데 귀 대학에서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하여 연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복수응답 가능)

	체크
① 외부기관이나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	<input type="checkbox"/>
② 자체평가위원회 활동을 통한 진단 활동	<input type="checkbox"/>
③ 교과목 개선을 위한 교·강사 워크숍 및 간담회	<input type="checkbox"/>
④ 교과목 개선을 위한 CQI 활동	<input type="checkbox"/>
⑤ 수업평가(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우수강의시상 등 포함)	<input type="checkbox"/>
⑥ 수업평가(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교수법 컨설팅 등 교수법 관련 지원	<input type="checkbox"/>
⑦ 수업평가(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교과목 개폐	<input type="checkbox"/>
⑧ 수업평가(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교·강사 강의 제한	<input type="checkbox"/>
⑨ 만족도조사	<input type="checkbox"/>
⑩ 기타 (직접 기술)	

VI. 교양교육 전담조직 현황

VI-1. 귀 대학의 교양교육 전담조직 설치 여부 및 주요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귀 대학에는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2. 위 1번 문항에서 “예” 라고 응답한 경우 아래 정보를 기입해 주십시오.

명칭								
부서장의 위상	① 교무위원급 (처장, 원장, 학장)	<input type="checkbox"/>	? 부처장급 (센터장)	<input type="checkbox"/>	③ 팀장급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input type="checkbox"/>
조직 현황	소속 교원 수	전임	정년(명)					
			비정년(명)					
			비전임(명)					
	소속 교직원 수			정규직(명)				
		계약직(명)						

1-3. 위 1번 문항에서 “아니오” 라고 답하신 경우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VI-2. 귀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설치 여부 및 주요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귀 대학에는 교양교육과정위원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2. 위 1번 문항에서 “예” 라고 답하신 경우 아래 정보를 기입해 주십시오.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2019년 4월 1일 기준)		체크
소속 교원	① 교양교육전담조직 소속 교원이 50% 이상	<input type="checkbox"/>
	② 교양교육전담조직 소속 교원이 50% 미만	<input type="checkbox"/>
외부 위원	① 외부기관(타 대학 등) 위원 참여	<input type="checkbox"/>
	② 외부기관(타 대학 등) 위원 미참여	<input type="checkbox"/>
교양교육과정위원회 개최 횟수 (2018학년도 기준)		<input type="text"/>

1-3. 위 1번 문항에서 “아니오” 라고 답하신 경우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끝 -

<부록 4> 대학 교양교육 현황조사 설문 참여 대학 명단

번호	학교명	대학구분	학교구분	지역	설립구분
1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	대학교	강원	사립
2	강남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기	사립
3	강원대학교	대학	대학교	강원	국립
4	건국대학교(글로벌)	대학	대학교	충북	사립
5	건양대학교	대학	대학교	충남	사립
6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남	국립
7	경남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남	사립
8	경동대학교	대학	대학교	강원	사립
9	경북대학교	대학	대학교	대구	국립
10	경성대학교	대학	대학교	부산	사립
11	경희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사립
12	광운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사립
13	광주대학교	대학	대학교	광주	사립
14	극동대학교	대학	대학교	충북	사립
15	금오공과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북	국립
16	김천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북	사립
17	남서울대학교	대학	대학교	충남	사립
18	단국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기	사립
19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북	사립
20	대구한의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북	사립
21	대전가톨릭대학교	대학	대학교	세종	사립
22	대전대학교	대학	대학교	대전	사립
23	덕성여자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사립
24	동국대학교(경주)	대학	대학교	경북	사립
25	동서대학교	대학	대학교	부산	사립
26	동아대학교	대학	대학교	부산	사립
27	동의대학교	대학	대학교	부산	사립
28	명지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기	사립
29	목원대학교	대학	대학교	대전	사립
30	목포가톨릭대학교	대학	대학교	전남	사립
31	목포대학교	대학	대학교	전남	국립
32	부경대학교	대학	대학교	부산	국립
33	부산대학교	대학	대학교	부산	국립
34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	대학교	부산	사립
35	삼육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사립
36	상명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사립

37	상지대학교	대학	대학교	강원	사립
38	서강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사립
39	서경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사립
40	서울신학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기	사립
41	서울여자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사립
42	서울한영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사립
43	서원대학교	대학	대학교	충북	사립
44	선문대학교	대학	대학교	충남	사립
45	성공회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사립
46	성균관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사립
47	세명대학교	대학	대학교	충북	사립
48	세종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사립
49	수원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기	사립
50	송실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사립
51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기	사립
52	안동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북	국립
53	안양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기	사립
54	영남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북	사립
55	예원예술대학교	대학	대학교	전북	사립
56	용인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기	사립
57	원광대학교	대학	대학교	전북	사립
58	을지대학교	대학	대학교	대전	사립
59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	대학교	인천	사립
60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사립
61	전북대학교	대학	대학교	전북	국립
62	제주대학교	대학	대학교	제주	국립
63	중앙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사립
64	창신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남	사립
65	창원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남	국립
66	충남대학교	대학	대학교	대전	국립
67	충북대학교	대학	대학교	충북	국립
68	포항공과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북	사립
69	한경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기	국립
70	한국교통대학교	대학	대학교	충북	국립
71	한국항공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기	사립
72	한동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북	사립
73	한라대학교	대학	대학교	강원	사립
74	한림대학교	대학	대학교	강원	사립
75	한성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사립
76	협성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기	사립

77	호서대학교	대학	대학교	충남	사립
78	청운대학교	대학	산업대학	충남	사립
79	공주교육대학교	대학	교육대학	충남	국립
80	부산교육대학교	대학	교육대학	부산	국립
81	서울교육대학교	대학	교육대학	서울	국립
82	진주교육대학교	대학	교육대학	경남	국립
83	청주교육대학교	대학	교육대학	충북	국립
84	춘천교육대학교	대학	교육대학	강원	국립
85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86	경남도립거창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남	공립
87	경북도립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북	공립
88	경북보건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북	사립
89	계명문화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대구	사립
90	계원예술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91	구미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북	사립
92	대경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북	사립
93	대구공업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대구	사립
94	대구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대구	사립
95	대덕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대전	사립
96	대원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충북	사립
97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대전	사립
98	대전보건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대전	사립
99	동서울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100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남	사립
101	동의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부산	사립
102	문경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북	사립
103	백제예술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전북	사립
104	부산경상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부산	사립
105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부산	사립
106	부산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부산	사립
107	부산예술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부산	사립
108	부천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109	상지영서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강원	사립
110	세경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강원	사립
111	수원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112	순천제일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전남	사립
113	신구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114	신안산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115	여주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116	영남이공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대구	사립

117	영진전문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대구	사립
118	유한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119	인덕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서울	사립
120	인천재능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인천	사립
121	장안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122	전남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전남	사립
123	전북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전북	사립
124	조선이공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광주	사립
125	충북도립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충북	공립
126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충북	사립
127	충청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충북	사립
128	한국영상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세종	사립
129	한양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서울	사립
130	한영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	전남	사립
131	호산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북	사립
132	강릉영동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강원	사립
133	강원도립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강원	공립
134	거제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남	사립
135	경북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136	경북전문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북	사립
137	광주보건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광주	사립
138	군장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전북	사립
139	김포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140	김해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남	사립
141	농협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142	대구보건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대구	사립
143	대림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144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145	동아보건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전남	사립
146	동양미래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서울	사립
147	동원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148	명지전문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	서울	사립
149	목포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전남	사립
150	배화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서울	사립
151	삼육보건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서울	사립
152	서라벌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북	사립
153	서정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154	서해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	전북	사립
155	선린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북	사립
156	성덕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북	사립

157	수원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158	신성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충남	사립
159	안동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북	사립
160	연성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161	연암공과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남	사립
162	오산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163	용인송담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164	웅지세무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165	원광보건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전북	사립
166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	인천	사립
167	진주보건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남	사립
168	창원문성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남	사립
169	청암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전남	사립
170	춘해보건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울산	사립
171	포항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북	사립
172	한국골프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강원	사립
173	한국복지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국립
174	한림성심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강원	사립
175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서울	사립
176	조선간호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광주	사립

<부록 5> 대학 요람 제출 대학 명단

번호	학교명	대학구분	학교구분	지역	설립구분
1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	대학교	강원	사립
2	강원대학교	대학	대학교	강원	국립
3	경찰대학교		대학교		
4	건국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사립
5	건양대학교	대학	대학교	충남	사립
6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남	국립
7	경북대학교	대학	대학교	대구	국립
8	경상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남	국립
9	경주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북	사립
10	경희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사립
11	고신대학교	대학	대학교	부산	사립
12	극동대학교	대학	대학교	충북	사립
13	금오공과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북	국립
14	김천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북	사립
15	단국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기	사립
16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북	사립
17	대구한의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북	사립
18	대진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기	사립
19	덕성여자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사립
20	동국대학교(경주)	대학	대학교	경북	사립
21	동신대학교	대학	대학교	전남	사립
22	동아대학교	대학	대학교	부산	사립
23	명지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기	사립
24	부경대학교	대학	대학교	부산	국립
25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	대학교	부산	사립
26	서강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사립
2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국립
28	서울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국립대법 인
29	서울시립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공립
30	서울한영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사립
31	서원대학교	대학	대학교	충북	사립
32	선문대학교	대학	대학교	충남	사립
33	성공회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사립
34	성균관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사립
3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사립

36	수원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기	사립
37	숙명여자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사립
38	순천대학교	대학	대학교	전남	국립
39	아주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기	사립
40	안동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북	국립
41	안양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기	사립
42	영남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북	사립
43	영남신학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북	사립
44	예원예술대학교	대학	대학교	전북	사립
45	용인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기	사립
46	우석대학교	대학	대학교	전북	사립
47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사립
48	인제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남	사립
49	전북대학교	대학	대학교	전북	국립
50	제주대학교	대학	대학교	제주	국립
51	차의과학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기	사립
52	창신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남	사립
53	초당대학교	대학	대학교	전남	사립
54	총신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사립
55	충남대학교	대학	대학교	대전	국립
56	포항공과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북	사립
57	한국교통대학교	대학	대학교	충북	국립
58	한국국제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남	사립
59	한국체육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국립
60	한국항공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기	사립
61	한국해양대학교	대학	대학교	부산	국립
62	한동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북	사립
63	한림대학교	대학	대학교	강원	사립
64	한성대학교	대학	대학교	서울	사립
65	협성대학교	대학	대학교	경기	사립
66	호남신학대학교	대학	대학교	광주	사립
67	호서대학교	대학	대학교	충남	사립
68	청운대학교	대학	산업대학	충남	사립
69	호원대학교	대학	산업대학	전북	사립
70	광주교육대학교	대학	교육대학	광주	국립
71	대구교육대학교	대학	교육대학	대구	국립
72	서울교육대학교	대학	교육대학	서울	국립
73	청주교육대학교	대학	교육대학	충북	국립
74	춘천교육대학교	대학	교육대학	강원	국립
7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	방송통신대학	서울	국립

76	강원관광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강원	사립
77	대구공업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대구	사립
78	문경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북	사립
79	백제예술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전북	사립
80	부천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81	상지영서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강원	사립
82	세경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강원	사립
83	송호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강원	사립
84	수원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85	신구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86	신안산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87	유한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88	장안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89	전남도립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전남	공립
90	전북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전북	사립
91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충북	사립
92	충청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충북	사립
93	한국관광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94	거제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남	사립
95	경남정보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부산	사립
96	경북전문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북	사립
97	광양보건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전남	사립
98	광주보건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광주	사립
99	군장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전북	사립
100	대구보건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대구	사립
101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102	동아보건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전남	사립
103	배화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서울	사립
104	삼육보건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서울	사립
105	수원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106	용인송담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107	전주기전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	전북	사립
108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기	사립
109	충남도립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충남	공립
110	포항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경북	사립
111	혜전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충남	사립

<부록 6> 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 회원교 명단

연번	대학명	교육기관명
1	가천대학교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2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학
3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4	강남대학교	KNU참인재대학
5	강릉원주대학교	해람교양교육원
6	강원대학교	교양교육원
7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8	건국대학교(글로벌캠퍼스)	교양대학
9	건양대학교	휴머니티칼리지
10	경기대학교	융합교양대학
1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양학부
12	경남대학교	교양융합대학
13	경동대학교	온사람교양교육대학
14	경상대학교	기초교육원
15	경성대학교	창의인재대학
16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17	계명대학교	Tabula Rasa College
18	고려대학교	기초교육원
19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세종교양교육원
20	고신대학교	학부대학
21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대학
22	광주대학교	교양교육원
23	광주여자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24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25	군산대학교	황룡인재교육원
26	극동대학교	아레테교양대학
27	금강대학교	글로벌교양학부
28	김천대학교	교양교육개발센터
29	나사렛대학교	오웬스교양대학

연번	대학명	교육기관명
30	남부대학교	교양교육원
31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32	대구가톨릭대학교	프란치스코칼리지
33	대구대학교	인문교양대학
34	대전대학교	혜화리버럴아츠칼리지
35	대진대학교	창의미래인재대학
36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37	동국대학교(경주)	파라미타칼리지
38	동명대학교	학부교양대학
39	동서대학교	민석교양대학
40	동신대학교	기초교양대학
41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42	동의대학교	동인지천교양대학
43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44	목원대학교	교양교육원
45	목포대학교	교육혁신개발원
46	목포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47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대학
48	백석대학교	백석교양대학
49	부경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50	부산가톨릭대학교	트리니타스칼리지
51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52	부산외국어대학교	만오교양대학
53	삼육대학교	스미스학부대학
54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55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56	서경대학교	인성교양대학
57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58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59	서울시립대학교	교양교육부
60	서울여자대학교	기초교육원
61	서원대학교	교양대학

연번	대학명	교육기관명
62	선문대학교	이니티움교양대학
63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64	성신여자대학교	교양교육대학
65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66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67	수원대학교	교양대학
68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대학
69	순천대학교	교양융합대학
70	순천향대학교	향설나눔대학
71	송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72	신라대학교	교양과정대학
73	신한대학교	교양연구원
74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75	안양대학교	아리교양대학
76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77	영남대학교	기초교육대학
78	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79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80	우송대학교	교양교육원
81	울산과학기술원(UNIST)	기초과정부
82	울산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83	원광대학교	융합교양대학
84	위덕대학교	융합기초학부
85	을지대학교	교양학부
86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87	인제대학교	리버럴아츠칼리지
88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89	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대학
90	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
91	전북대학교	혁신교육개발원
92	전주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93	제주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연번	대학명	교육기관명
94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95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양학부
96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97	창신대학교	카리스교양교육원
98	창원대학교	기초교육원
99	청운대학교	교양교육연구센터
100	청주대학교	교양대학
101	충남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102	충북대학교	창의융합교육본부
103	평택대학교	피어스컬리지
104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105	한경대학교	교양교육대학
106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10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108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109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 교양대학
110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111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교육원
112	한남대학교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113	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학부
114	한라대학교	기초교육원
115	한림대학교	일송자유교양대학
116	한밭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117	한서대학교	교양교육원
118	한성대학교	상상력교양교육원
119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120	호남대학교	창의교양대학
121	호서대학교	더:함교양대학
122	호원대학교	교양교육원

연구과제명

2019년 12월 27일 인쇄

2019년 12월 27일 발행

발행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08504 서울시 금천구 서부셋길 606 대성디폴리스A-23층

전화 02) 6919-3914

인쇄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35-3 단대프라자1차 203호

카피프린스

전화 031-889-2347

※ 이 책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